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調査經緯/ 17
社會背景/ 18
方　　言/ 35
家　　族/ 57
海　　女/ 73
說　　話/ 86
信　　仰/116

調査經緯

지난 해 처음 實施한 安德面 倉川里 調査에서 未洽하나마 얼마간의 成果와 自信을 얻은 우리는 學生이나 敎授나 한층 意慾이 부풀었다. 그래서 이번은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로 대상지를 잡았다. 지난 해 典型的인 農村을 調査했으므로 금년은 典型的인 漁村이요, 섬의 섬을 파악해 보자는 意圖에서였다.

漁村이요, 섬이니만치 그 特性을 考慮하여 調査班을 方言·說話·海女·社會背景·家族·信仰 등의 分野로 構成하고 梁重海(說話), 玄容駿(家族, 信仰), 姜根保(方言), 金榮敦(社會背景, 海女), 金永和(信仰)등 다섯 분의 指導敎授와 16名의 學生들이 各各 分擔하여 調査에 臨했다. 班別 調査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안은 재학년이다).

社會背景 및 家族 : 李起奉(3), 姜榮鍾(2), 高權一(1)
方　　言 : 金承泰(4), 宋月好(4), 李穗南(3)
海　　女 : 高宗提(4), 姜漢浩(3), 梁順烈(2)
說　　話 : 全榮轍(3), 金勇勳(2), 梁榮吉(2)
信　　仰 : 金德男(4), 康禎姬(4), 松順喆(2), 玄平益(1)

調査期間은 1973年 8月 24日부터 28日까지 5日間이다. 牛島는 1個 行政里이지만 11個의 自然部落이 있는 넓은 섬이어서 5日間이란 너무나 짧은 期間이었다. 그래서 時間을 金같이 아끼며 調査를 했지만, 漏落과 未盡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님을 整理段階에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만큼의 報告書라도 낼 수 있었음은 舊左邑 演坪里出張所를 비롯한 島內 여러 機關과 里民들의 積極的인 協助 德澤이었다. 各 機關長과 里民들에게 感謝하며, 특히 우리들의 宿泊을 위해 敎舍를 쓰게 해주신 演坪國民學校長과 調査 進行에 積極 協助해 주신 李淳珩 敎授님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社 會 背 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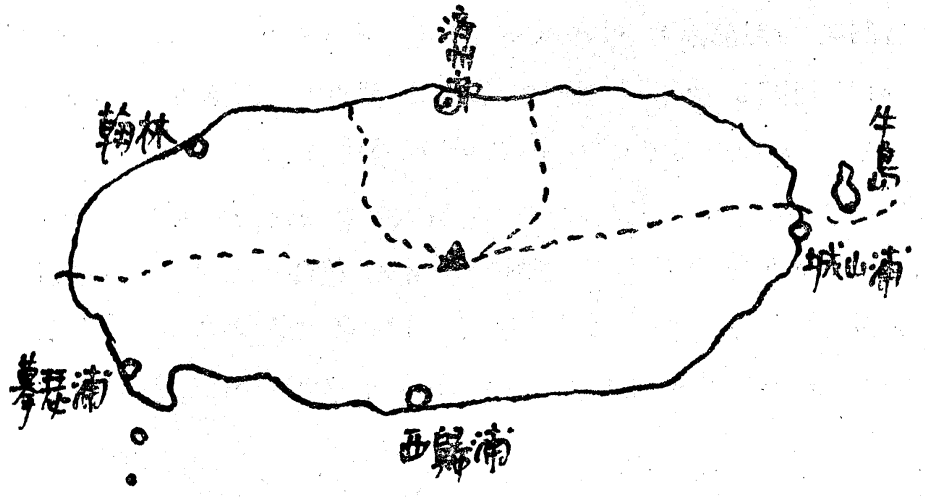
차 례

1. 自 然 環 境
2. 史 的 背 景
3. 人 文 概 況
4. 産 業 構 造
5. 家 屋 構 造

1. 自 然 環 境

牛島는 濟州本島의 東端 城山浦에서 3.8㎞ 떨어진 바다에 놓인 面積 6,646㎢의 附屬島嶼다. 50個에 이르는 제주도의 附屬島嶼(有人島 9, 無人島 41) 가운데 가장 큰 이 牛島는 흔히 〈소섬〉이라 하는데 行政上으로는 온 섬이 北濟州郡 舊左面 演坪里로 되어 있다.

〈圖 1〉 牛 島 의 位 置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北緯 33° 29′ 6″, 東經 126° 58′ 3″에 위치한 이 牛島는 물소가 머리를 내민 모양, 곧 牛頭形 혹은 소가 누워 있는 모양 臥牛形이라고 전하는데 平面圖上으로는 장난감 오뚝이가 北을 머리로 오뚝 앉아 있는 모습 같기도 하다.

이 섬 南端에는 132*m*의 牛島峰이 솟아 있고 깎아지른 듯한 단애가 바다에 臨했다. 〈동어귀〉라는 이 險峻한 낭떨어지를 起点으로 극히 緩漫한 傾斜가 北으로 뻗어가 펑퍼짐한 섬을 이루었다. 이처럼 온 섬이 屈曲이라고 거의 없이 平坦하고 單調롭게 이루어졌다는데서 〈演坪〉이란 里名도 생겼다는 것이다. 곧 이 마을의 象徵的 指導者, 前校長 高 泰柱氏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當地에서 訓學하던 吳 完哲氏(表善面 城邑 出身)가 1900年에 이 섬을 〈演坪〉이라 命名하였다는데 〈물에 떠 있는 들판〉을 뜻한다 한다.

南北의 길이 約 4 *km*, 東西 約 3 *km*의 이 牛島에는 河川이 없다. 예전엔 湧泉水가 古水洞等에 있었다지만, 지금 섬 안에는 샘물이라곤 전혀 없다. 섬 안에 散在된 〈물통〉(奉天水가 고이게 만든 못)의 奉天水를 食水로 쓰는데 食水難은 이 섬의 難題다.

섬을 뱅 둘러가며 海岸 쪽에 聚落이 形成되었고 農耕地 역시 聚落 가까이 흩어져 있다. 牛島峰 一帶와 中央엔 牧野地가 질펀하게 깔려 있는데 띄엄띄엄 소나무 등이 더러 자랄 뿐, 우거진 森林도 없다. 팽나무·멀구슬나무등 濟州 本島에 흔한 나무도 안 보인다.

城山浦 北北東 海上에 오뚝 떨어진 이 牛島와 가장 近距離의 濟州本島의 地点은 北濟州郡 舊左面 終達里다. (그 距離는 約 2.5*km*) 섬 둘레는 黃金漁場을 이루었으며 넓미역·우뭇가사리·미역·소라·전복등 海藻類·貝類가 많다.

이 섬 南端 〈동어귀〉라는 낭떨어지 옆 〈광대코지〉에는 洞窟이 있고, 이 洞窟에 스며드는 햇빛이 天井에 反射하여 둥근 달이 떠오르는 듯한 絶景을 이룬다. 이를 〈돌그린안〉 혹은 〈晝間明月〉이라 하는데 옛부터 썩 有名했던 듯, 李 元鎭氏의 耽羅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牛島 둘레가 五十里이며, 州東쪽 旌義와의 境界에 있다. 사람이나 말이 떠들면 갑짜기 風雨가 일어난다.

이 섬 西南에는 바다굴이 있어 작은 배 한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좀더 들어가면 배 5·6척을 감출 수 있다. 그 위에는 큰 암석이 지붕처럼 덮여 있으며 만일 햇빛이 비치면, 별이 반짝이는데 空氣가 몹씨 차가와 毛髮이 竦然한다. 俗稱에 神龍이 있는 곳이라 하여 7·8月에는 고깃배가 여기 가지 않는데, 만일 갔다가는 大風雷雨가 몰아쳐서 나무를 꺾어뜨리고 農作物을 해친다. 그 위에는 닥나무가 흔하다.

牛島 周五十里在州東旌義之境人馬喧則便有風雨島之西南有竇可容一小船稍進則可藏船五六艘其上大石如屋如有日光浮燿星芒燦列氣甚寒凉毛髮竦然俗稱神龍在處七八月間漁舟不可往往則大風雷雨拔木損禾其上多楮木.

이 〈돌그린안〉을 〈神龍在處〉로 보았던 것도 흥미 있거니와, 〈其上多楮木〉이라 했으니 예전엔 森林도 茂盛했었을 것이다.

2. 史的背景

牛島는 원래 無人島로서 國有牛馬의 牧馬場이었다. 李朝 肅宗 때 島內의 牧場을 十所場으로 分割 設置한 바 있었는데 이 十所場 외로 毛洞場·鹿山場등과 아울러 牛島場이 있었다.

李 元鎭氏의 〈耽羅志〉에도"羔囤~牛島飛揚島俱有之"란 기록이 보이며 淡水契編 〈耽羅誌〉에는 "牛島場~舊左面 演坪里에 在하니 幅圓이 五十里요, 六個處에 水가 有하다. 今廢."라 되어 있다.

이 荒凉한 牛島에 처음으로 마소가 放牧된 것은 17世紀 末(1698年·肅宗 24年)로 전해지는데(金 錫翼著 〈耽羅紀年〉) 그 후 百餘年이 지난 19世紀初 사람들이 入住하기 시작한 듯하다.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전하는 바에 따르면 1844年에 金 錫麟氏가 移住하면서부터 마을의 形成이 急進展되었다는 것이다. 進士 金 錫麟氏가 1844年(甲辰·憲宗 10年) 入住했을 당시의 住居址는 그 家族 專用의 飮料水 水溜池인 〈進士통〉이 迎日洞(後海洞) 西쪽에 現傳된다. 1957年 廢家, 迎日洞(後海洞)으로 옮겨 짐에 따라 〈딴밧〉이라 불리우는 그의 住居址에는 오직 〈進士통〉이라는 奉天水 못이 전해질 따름인데 現在 迎日洞(後海洞)에는 그의 後孫이 約 20餘名 살고 있다는 것이다.

一說에 의하면 濟州本島의 某人士가 窮民을 이 섬에 移民시키려 해서 1828年(純祖 28年, 戊子)부터 運動을 일으켰던 게 드디어 1841年(憲宗 7年, 辛丑)에는 牛島에 放牧中인 牛馬를 실어내면서 그 이듬해(1842年)부터 一般人의 移住를 허락하자 水產資源이 풍부하므로 많이들 옮겨 살아서 급작스레 마을들이 形成되었다 한다.

어차피 牛島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기는 19世紀 中葉인 듯하니 그 歷史는 짧다. 아마 天惠的 水產資源과 農土開墾의 餘裕가 移民을 促進시켰겠고 오늘날 11個洞(혹은 中央洞을 합쳐 12個洞) 3千數百名의 人口를 包容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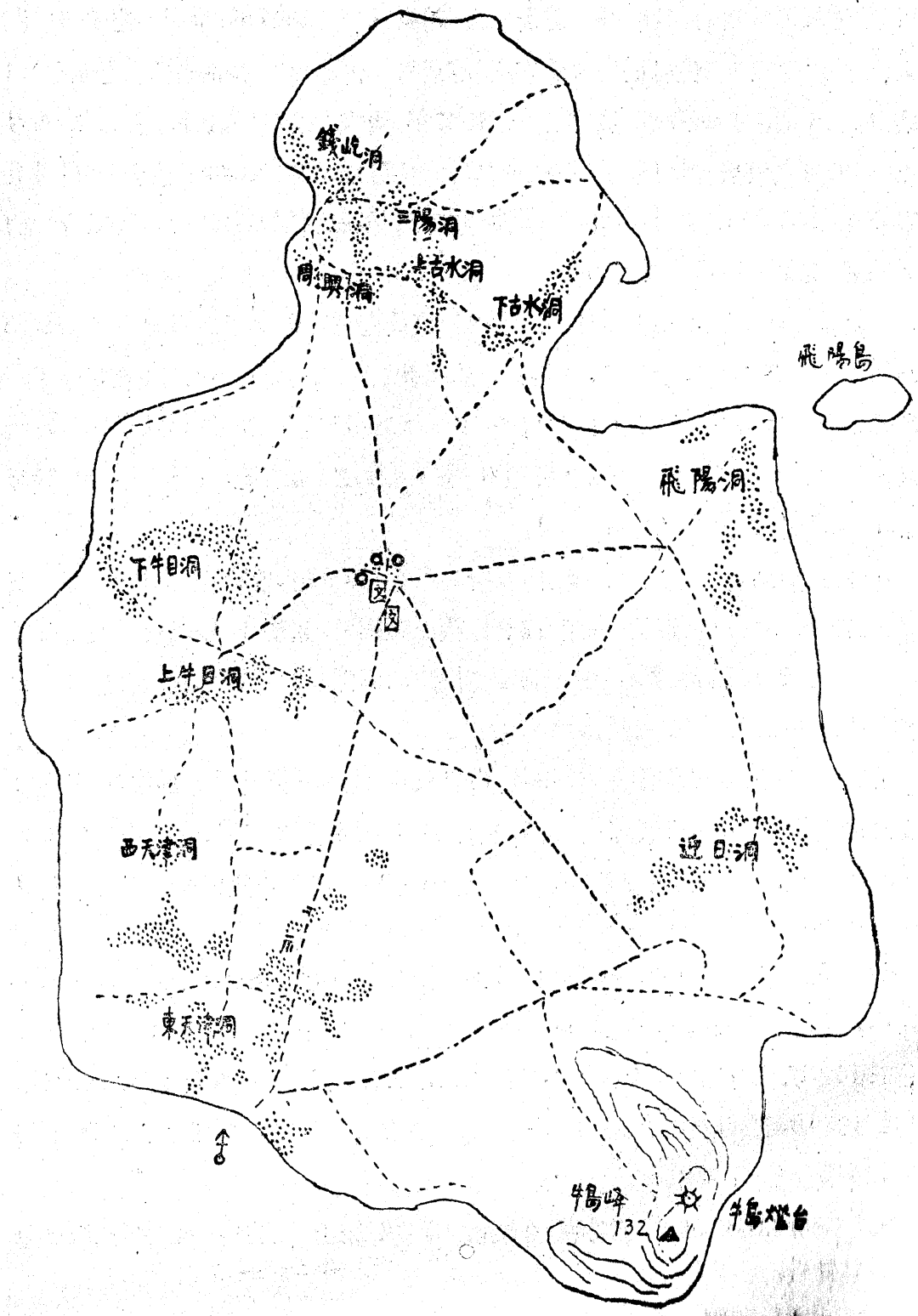
住民들은 주로 舊左面을 비롯한 市以東의 北濟州郡에서 移住해 왔으며 城山浦 以南의 南濟州郡에서의 移住는 드물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전 濟州가 三縣分立統治되었을 당시의 旌義縣民보다 濟州牧民이 주로 옮겨 왔다 한다.

점차 住民이 불어나, 後海洞·天津洞·古水洞과 飛揚洞·錢岭洞·周興洞·牛目洞·三陽洞等 8個 自然部落이 이루어졌다. 그후 人口 增加에 따라 1915年頃 牛目洞을 上·下牛目洞으로, 天津洞을 東·西天津洞으로 나누었고 1949年에 다시 古水洞을 上·下古水洞으로 分離, 現在는 11個洞(혹은 12個洞)에 이른다.

1927年~1931年 사이 當分間 牛島는 行政區域上 二個區로 分割되었던 일도 있었다.

1區(古水·三陽·錢岭·周興)

〈圖 2〉 牛 島 全 島



2區(後海·飛揚·牛目·天津)

後海洞은 1970年 迎日洞이라 改稱되었으며, 近來 學校와 各事務所가 密集되어 있는 中央街에 10餘 家口가 들어서면서 聚落이 形成途中에 있다.

地政學上 牛島는 軍事要地로서 日帝時에는 日海軍이 駐屯했었으므로 거기 따른 逸話가 오늘도 전해지는데, 解放後 四三事件時에는 本島와 隔離돼 있어서 別被害가 없었다.

牛島는 사람이 移住해서 이래, 불과 130年쯤의 짧은 歷史이지만, 역시 四面環海의 屬島이므로 民間遺習의 改變이 덜 이루어진 面도 巫俗儀禮나 通過儀禮等에서 엿보인다.

3. 人 文 概 況

牛島는 11個 自然部落이 各各 洞을 이루고 있으며 섬 전체가 하나의 行政里다. (지금 形成途中에 있는 中央洞을 합치면 自然部落과 洞이 각각 12個다)

牛島, 곧 演坪里의 戶數는 687戶이며 3550名의 人口를 지닌다. (1973年 7月 31日 現在〈表2〉參照) 4年前과 對比해도 別差 없는데 그 統計를 對比하면 〈表1〉과 같다.

〈表1〉 牛島(演坪里)의 戶數 및 人口

項目 / 年月日	戶數	人口數 男	人口數 女	人口數 計	戶當人口 平均	性比 (女子 100名)
1968. 12. 31 現在	682	1,621	2,015	3,636	5.3	80.4
1973. 7. 31 現在	687	1,480	2,070	3,550	5.2	71.5

여기서 보면 지나치게 女多의 現象이 드러난다. 1971年度의 濟州道 總人口의 性比는 92(男) 對 100(女)인데 비해서 엄청난 差異다. 牛島 特有의 養女制와 관련하면서 분석해 볼 問題다.

지붕을 일 새를 求하기 힘든데다가 食水難도 해결할 겸 지붕은 낮이 스레트로 바꾸어 졌다.

〈表 2〉 牛島(演坪里)의 洞別 戶數 및 人口

△ 資料 : 演坪里事務所

洞別	1968年末現戶數	1973. 7. 31現在	
		戶數	人口數
東天津洞	80	77	415
西天津洞	90	97	505
上牛目洞	35	35	175
下牛目洞	75	74	370
周興洞	60	59	280
錢屹洞	50	43	265
三陽洞	40	34	190
上古水洞	32	31	175
下古水洞	50	48	220
飛揚洞	100	106	535
迎日洞(後海洞)	70	71	345
中央洞	—	12	75
計	682	687	3,550

下牛目洞의 경우는 지붕의 近 65%가 스레트化되었다. 말하자면 牛島內에는 새가 적어 本島에 나가, 사들이든지 水山·蘭山의 새밭 구석에 남겨진 새를 베어 온다. 이를 〈새 뽑으레 간다〉고 하는데 그 運送等 번잡하기 이를데 없다. 더구나 스레트 지붕의 빗물을 물맹크에 받아 놓으면 飮料水로 쓸 수 있는 一擧兩得的 利点이 있다. 그리고 10여채의 기와집도 있다.

住民의 姓氏構造는 金·高·尹·鄭氏等이 비교적 많을 뿐, 雜姓으로 이루어졌다.

電氣 架設은 지금 構想中인데, 통틀어 30餘 家口에는 充電 螢光燈을 근래 마련해 놓았다. 벌써부터 公醫診療所를 두었으나 落島라 醫師가 赴任했다가도 長期勤務를 꺼려 현재 空席中이다. 따라서 無醫村인 이 섬 住民들은 질병에 너무 過敏한 나머지, 엥간하면 高價藥을 多量 投與하고 注射할 줄 아는 住民들이 많다. 예전엔 痲藥服用의 弊가 있었으나 근래 거의 사라졌다. 1972年度에 藥局 分局이 하나 생겼다.

牛島內의 機關은 다음과 같다.

〈機 關 名〉	〈職 員 數〉
演坪中學校	10
演坪國民學校	13
舊左面演坪出張所	4
演坪里事務所	2
牛島燈臺	3
牛島警察官派出所	4
農協演坪單位協同組合	7
濟州漁業組合演坪出張所	4
城山浦郵遞局牛島電信電話分局	2
演坪公醫診療所	1
牛島漁村契	3

이 機關 가운데 燈臺와 警察官派出所·電信電話分局을 빼면 中央洞에 密集되어 있다. 中央洞은 이 機關들이 있음으로써 이루어져 나간다.

1954年 開校한 演坪中學校는 현재 6學級 225名이 在學하고 있으며 1929年 演明書堂으로 출발한 演坪國民學校에는 12學級 622名이 在學한다. 演明書堂 이전에 演明義塾이 1918年부터 있었다니 오랜 沿革을 지니고 있다.

1951年에 設置된 面出張所는 1958年 現事務所 建物이 세워지자 里事務所와 共用하고 있다. 牛島峰에 있는 燈臺는 옛부터 有名하며 解放 이후 마련된 警察官派出所는 東天津洞에 위치해 있다.

全國에서 里單位組合으로는 唯一한 農協은 1973年 9月, 北濟州郡 農協에서 共濟事務를 인계 받았다. 濟州漁組出張所는 1961年에 출발했는데 牛島漁村契와 같은 事務所를 쓴다. 1967年에 開局된 電話電信分局은 東天津洞에 있다.

새마을青年奉仕隊·青年會·婦女會가 있어 洞別組織을 가져 있으며 下

牛마을文庫가 個人住宅(高 訓一氏宅)에 설치되어 約 300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各種의 私設契(접), 예를면 〈술접〉·〈그릇접〉·〈장막접〉·〈도야지접〉등이 조직되어 있음은 本島와 마찬가지다.

中央洞을 중심으로 雜貨店(4)·布木店(2)·家具店(1)·寫眞館(1)·卓球場(1)·理髮館(1)·酒店(2)·빵집(1)·電磁社(1)등이 흩어져 있으며 各洞에 자그만 구멍가게들(15)이 있다.

TV가 中央洞에 1個 있으며 라디오·時計·재봉틀·新聞등의 保有狀況은 國民學校의 教育計劃을 보면(〈表3〉參照)落後된 편은 아닌 듯하다.

〈表3〉 **演坪國校 아동의 家庭 文化施設**

△ 資料 : 演坪國校 1973年 教育計劃

區 分	兒童數	라디오	전 축	카메라	시 계	재봉틀	책 상	신 문	잡 지
數	622	366	22	6	279	352	185	59	58
兒童數에 따른 百分율	100%	58.8	3.5	0.96	44.9	56.8	29.8	9.5	9.3

濟州本島와의 交易은 城山浦로 내왕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우도와 城山浦 사이에는 渡船(滋演號 15t)이 하루 두번 다닌다. 이 渡船便으로 郵便集配員이 날마다 드나든다. 城山浦 東南五日市場과 細花五日市場을 드나들면서 日用品을 사들이는데 종전엔 細花 出入을 많이 하다가 近來 城山浦 東南으로 쏠린다.

約 30個所나 있었던 研子磨(물방애)는 15年前에 모조리 헐어졌고 精米所가 7個 섰다.

通婚圈은 大部分 牛島內에 국한되어 있는데, 城山浦等 濟州本島와의 通婚은 약 20%~25% 정도라 한다. 婚禮는 3日에 걸쳐 치르고 結婚前 新郎宅에서 新婦宅으로 쌀·돼지·술 따위를 보내는 〈이바지〉風習의 殘痕이 가끔 남아 있다. 紗帽冠帶 쓰고 舊式結婚하는 遺習도 가끔 전해진다.

葬禮組(골)는 自然部落 單位, 곧 洞單位로 이루어져 동네의 葬日에는 洞의 各 家戶에서 總動員된다. 日晡祭는 30年 前에 없어졌으며, 墓地는

이 섬 안에서 정한다.

佛教(西天津洞)·天主教(下古水洞)·天地大安教(東天津洞)·陀佛教(上古水洞)等의 寺院·教會가 각각 하나씩 있다.

이 섬의 宿題는 食水問題다. 數年間 當局에서는 相當한 예산을 들여 貯水池를 마련하고 水道管까지 各洞에 뻗쳤었었으나 애석히도 失敗했다. 가뭄이 極甚하면 〈물표〉(汲水票)騷動까지 벌여야만 하니 주민들은 부딪친 食水解決을 위하여 契까지 짜면서 지붕의 스레트化를 促進하는 한편, 貯水池의 再工事를 建議 推進하는데 안간힘이다.

牛島內에 飮料 奉天水 水溜池가 22個所 있다. 이 奉天水池는 주민의 소중한 食水인데 高 泰柱氏는 그의 〈鄕土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牛島는 飮料水가 극히 어려운 곳이다. 옛날에는 〈예물〉이라 하여 現古水洞에 大湧水泉이 있어, 牧場時代에는 牛馬飼育에도 아무런 隘路를 느껴보지 못하였고 日本漁船들도 이것을 使用하여 潛水器船이 드나들었다 하며, 또 〈갓예물〉이라 하여 現 周興洞 海岸湧水로 使用하여 왔으나 入住後 人口가 불고 居住地와의 距離가 멀기로 各 洞마다 住居 近處에 飮料水用 水溜池를 掘鑿하여 奉天水를 마시고 있는 實情이며 그 主된 것만 들어도…云云.

出他 移住한 牛島 주민도 많다. 國內로는 釜山 影島에서 漁業 海女作業等에 종사하며 사는 牛島出身만도 約 200世帶에 이르며 日本에도 50餘世帶가 나가 있다. 釜山 等地와의 왕래가 頻繁하므로 지난날에는 中高校를 釜山에서 留學하는 경우도 흔했었다.

오늘날 牛島가 부딪친 問題로는 이 飮料水 解決을 비롯하여 公醫配置, 東天津洞 港口防波堤 施設 延長, 大型渡船의 마련등인데 이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熱望인 것이다.

4. 産 業 構 造

牛島는 四面에 黃金漁場을 갖고 있다. 따라서 牛島의 主産業은 農業과 더불어 海女들의 裸潛漁業을 中心한 水産業이다. 따라서 牛島에는 비단 瘠薄한 農土나마 질펀하게 깔려 있으므로 住民 거의가 農·漁兼業이다. 土地利用狀況 및 耕作規模別 農家戶數는 다음과 같다.

〈表 4〉 **土 地 利 用 狀 況**

△ 資料：舊左面事務所 演坪出張所
△ 單位：反步

種 別	計	田	垈 地	林 野	雜種地	其 他
面 積	6701	5041	210	890	120	440
百分比(%)	100	75.2	3.0	13.3	1.8	6.6

〈表 5〉 **耕作地 規模別 農家戶數**

△ 資料：舊左面事務所 演坪出張所

區 分	1 반보 미만	1~3반보 미만	3~5반보 미만	5~10 반보미만	10~15 반보미만	15~20 반보미만	20~30 반보미만	農家 戶數計
戶 數	32	89	194	148	92	110	3	668
百分比(%)	4.8	13.3	29.0	22.2	13.8	16.5	0.5	100

戶當平均耕作面積은 7.5反步에 이르므로 그다지 비좁은 편이 아니지만 農土가 퍽 메말라서 오히려 住民들의 食糧을 自給自足하기에 모자란 형편이다.

여느 農村과 같이 主要 耕作穀物은 보리와 조인데 특히 이 섬에서는 고구마를 많이 生産한다. 고구마는 土質에 맞을 뿐더러 切干으로 販賣, 收益을 올리고 고구마줄은 牛馬의 먹이로 이용되는 등 一擧兩得的이다. 1973年度의 夏作物 播種面積을 보면 고구마 植付面積은 여름농사 전반의 8.7%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섬에서는 牛馬의 골이 모자라 그 飼育에 먹이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表 6〉 **1973年度 夏作物 播種面積**

△ 資料：舊左面事務所 演坪出張所

穀種	고구마	조	참깨	大豆	煙草	計
播種面積	2,380反	778	76	222	7	3,463反
百分율%	68.7	22.5	2.2	6.4	0.2	100

다음엔 家畜統計를 보기로 하자.

〈表 7〉 **家畜保有狀況**

△ 1973. 6. 30 現在
△ 資料：演坪單位農協

區分		돼지	닭	개	염소	오리	말	戶數
頭數	264	532	609	170	5	150	12	687
戶當保有율(頭)	0.38	0.77	0.89	0.25	0.007	0.22	0.02	

이름이 牛島이긴 하나 戶當 平均 소 保有率은 0.38頭밖에 안된다. 이것은 제주도의 農家 戶當保有率 0.67頭(1972年 濟州道統計年報에 따름)에 對比하더라도 퍽 적은 수인데 대부분의 住民들이 農業에만 專力하지 않기 때문, 牛馬의 勞力 利用度가 낮은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섬에는 쥐·메뚜기가 많다. 쥐를 없애기 위해 1972년부터 고양이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裸潛漁業을 중심한 漁業戶數는 490戶, 全住民의 71%로 나타나지만 거의 모든 住民이 漁業에 종사한다.

〈表 8〉 **漁業從事者數**

△ 資料：牛島漁村契

구분 \ 항목 / 사항	組合員			漁業別從事者				
	男	女	計	一本釣	延繩	刺網	裸潛	計
人口數	144	485	629	156	23	27	896	1102
百分比(%)	22.9	77.1	100	14.2	2.0	2.5	81.3	100

一般漁業보다도 裸潛漁業의 從事者數가 많은 이유는 第一種共同漁場의



〈牛島의 關門, 東天津洞 浦口〉

海藻類와 貝類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우뭇가사리·미역·넓미역·톳·감태와 생복·소라따위가 제주도에서도 類例 없을 만큼 잡힌다. 漁船 勢力은 動力船 7隻, 無動力船 60隻인데 漁民들은 이곳 沿岸漁業뿐더러 本土各處로 出漁한다. 특히 壯年層 이상은 거의가 本土 各 沿岸으로 出漁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어 심심찮은 話題를 낳는다.

7月中下旬 넓미역 採取期에는 牛島의 모든 漁船과 人力은 물론 本島에서도 漁船들이 몰려 百餘隻이 바다에 뜨면 소섬은 왈칵 뒤집힌다.

이처럼 水產業이 極盛인데도 水產物에 따른 所得은 面出張所의 所得推計를 보면 農產物 所得의 $\frac{1}{3}$밖에 안된다.

어차피 牛島의 婦女子들은 現地에서도 所得을 올릴 水產資源이 풍부하기 때문 일부 海女出稼는 하지마는 本島의 여느 마을에서들처럼 紡織工場에 出稼하는 일은 예전부터 없다.

5. 家 屋 構 造

끝으로 下牛目洞의 家屋調査를 資料로 해서 牛島의 家屋構造에 대하여 槪觀해보려 한다.

部落形成이 그 部落의 地形과 地勢에 密接한 關係가 있듯이 家屋들의 集結狀態와 坐向等에도 自然地形의 影響을 받고 있는 듯하다.

牛島의 部落들 역시 濟州本島에 속해 있으므로 濟州本島의 海村과 다소 差가 있을지 모르나 거의 같은 形態를 取하고 있다고 본다.

下牛目洞도 牛島에 散在해 있는 11個 自然部落과 마찬가지로 海邊에 자리한 部落이다. 濟州本島의 家屋들이 大部分 南向이나 東向으로 지어졌는데 이 部落 역시 같은 方向을 取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바다쪽이 西쪽이어선지 西向집이 한 채도 없었으며, 坐向을 集計하면 〈表 9〉과 같다.

〈表9〉 **家 屋 의 坐 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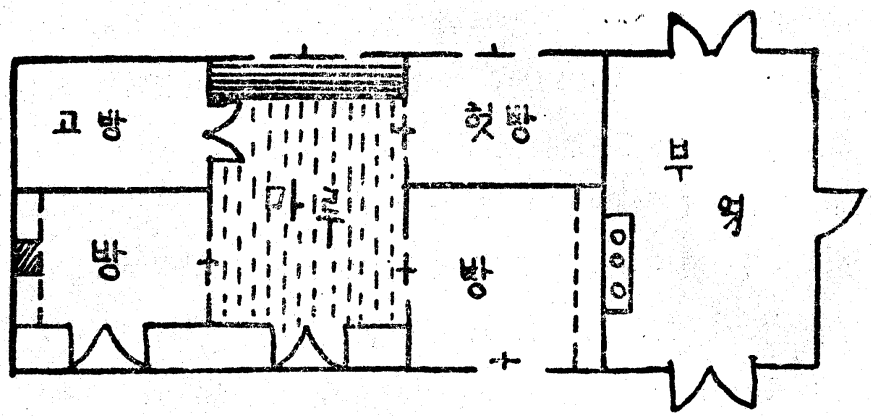
△ 對象 : 演坪里 下牛目洞
△ 1973年 8月 現地調査

坐向	東	南	北	南東	南西	北東	計
家屋數	14	33	3	6	4	4	65
%	21.9	51.5	4.6	9.4	6.3	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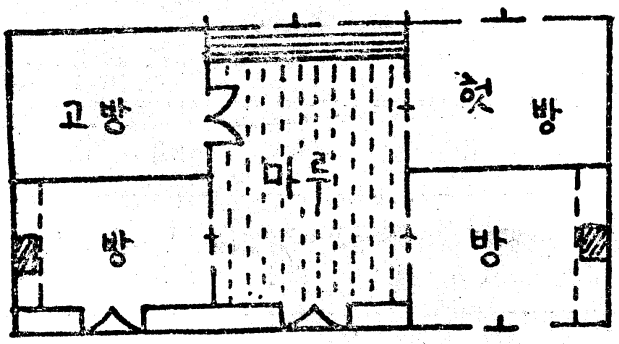
家屋을 形態上으로 살펴 보면 一律的으로 一字型으로 되어 있으며 한 울타리 내에 있는 家屋들 중에 안거리를 基準으로 해서 보면 〈圖3〉에서와 같이 間막이로 보아 三間집과 四間집 二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一般的으로 本島의 家屋에는 안거리 內部에 부엌이 붙어 있는데 반하여 下牛目洞인 경우 三間집에는 거의가 부엌이 分離되어 獨立된 부엌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四間집인 경우는 대개가 右側에 붙어 있으나 간혹 左側에 붙는 家屋도 있었다. 그리고 〈圖3〉에서 보듯이 헛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濟州本島의 房機能과는 달리 季節에 따라 거둬들인 農產物을 잠시 貯藏하거나 日常用品을 넣어두는 곳으로 代用하고 있었으며, 餘裕있는 農家에서는 자식들의 工夫房으로 使用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러한 三間집과 四間집의 分布는 64채 중 三間집이 31채이고 四間집이 33채로 半半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圖 3〉 家屋의 形態



(四間집)



(三間집)

울타리는 대개가 長方形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主된 살림을 營爲하는 안거리와 대개 부엌채로 代用하여 쓰고 있는 박거리 외에도 農機具나 海産物採取道具等을 넣어 두는 헛간을 大部分 所有하고 있었다. 보통 안거리인 경우 三間은 15坪, 四間은 18坪 程度의 建坪을 차지하고 있으며, 박거리 경우는 二~三間 程度의 크기이고, 헛간의 경우는 二間 程度로 間막이가 대개 없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을 經由해서 집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평평한 마당은 家屋들로 둘러싸여 포근한 감을 주면서 外部와 開放된 곳으로 여름철이나 農繁期가 되면 主로 여기에서 生活하게 되는 重要한 場所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이곳 部落民들의 生活空間은 대개 한 家口에 100坪 內外의 垈地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牛島의 경우 한 가지 特異한 家

屋 形態로 보이는 것은 이른바 높은 상방이 거의 집집마다 마련된 사실이다. 濟州本島 海岸部落에서도 가끔 보이는 이 形態는 마루 뒷쪽에 붙어 있는 출입구를 閉鎖해서 代身 창문을 만들어 그 붙은 안쪽으로 마루보다 50~60cm 정도 높이의 나무침대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높은 상방이라 한다. 이 높은 상방은 여러모로 利用되는데, 여름철에는 寢臺로 代用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밑에는 여러가지 日常用品을 넣어 두는 곳으로도 使用된다. 이러한 施設은 10年前부터 갖추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牛島의 경우는 거의가 높은 상방을 만들어 쓰고 있다.

우리들이 調査하면서 얼른 보기에는 뒷쪽으로 出入이 遮斷되어 不便하고 답답할 것 같았으나, 그곳 住民들은 집 內部 活用과 더불어 여러면으로 有用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表10〉에서와 같이 한 家口에 속해 있는 家屋中에 안거리와 박거리만을 합쳐가지고 보면, 四間을 所有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 家口當 所有 間數는 平均 4.5間이라 하겠다.

〈表10〉 家 屋 의 構 造(家垈內家屋間數)

△ 對象 : 演坪里 下牛目洞
△ 1973年 8月 現地調査

區 分	3間	4間	5間	6間	7間	計
家 屋 數	8	29	13	12	2	64
%	12.5	45.3	20.3	18.7	3.2	100.0

그런데 이곳 住民들은 오직 奉天水만으로 食水를 解決하고 있는가 하면 지붕을 일 새나 生活必須品等도 必要에 따라 他里에서 供給받고 있는 實情으로 여러가지 自然條件의 制約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불가피한 조건들은 住民生活에 커다란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下牛目洞의 家屋들은 草家와 스레트로 構成되어 있는데, 눈에 띌 程度로 스레트 지붕을 한 집들이 많았다. 下牛目洞 全家屋의 무려 65%나 스레트化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선 食水難을 解決하기 위해 스레트化가 急速히 實現되었다고 보겠다.

지붕을 改良하기 위해서는 經費調達이 우선 切實하므로 이 部落住民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親熟한 사이끼리 〈스레트계〉라는 것을 組織하여 손쉽게 스레트로 改良하고 있었다. 〈스레트계〉는 이웃에 살고 있는 7~8명의 婦人들로 構成하는데, 3個月을 1期로 하되 1期마다 各者 2~3천원씩을 據出, 定한 順番에 따라 會員의 家屋 한 채씩을 改良하고 있었다.

方　　言

調査對象者

北濟州郡 舊左面 演坪里

양 창 월 (女 74)　金 昌 信 (男 68)
金 辰 得 (男 58)　金 千 能 (男 55)
高 斗 日 (男 48)　康 基 鉉 (男 46)
고 연 행 (女 45)　高 定 煥 (男 44)
梁 南 仙 (女 44)　金 斗 弘 (男 40)
金 千 壽 (男 38)　홍 순 란 (女 23)
강 정 자 (女 19)

차　　례

1. 海女語彙
1) 海女의 等級
2) 海女의 作業
3) 採 取 物 名
4) 海 女 服
5) 海女의 作業器具名
2. 風　　名
3. 潮 水 名
4. 船　　名
5. 魚　　名
6. 海 岸 名
7. 地　　名

1. 海 女 語 彙

1〉 海女의 等級

(1) 좀수(조수군)~海女

(2) 상군(상좀수)

바닷속 16m~17m 程度까지 잠기고 海産物을 가장 많이 採取하는 숙련된 海女

(3) 중군(중줌수)

바닷속 10m~12m까지 잠기고 海産物을 많이 採取하는 海女

(4) 똥꾼(하군)(하줌수)

바닷속 5m 程度를 잠길 수 있는 13才~15才의 少女

2〉 海女의 作業

(5) 헛무레~미역, 넓미역철에 미역(넓미역) 外의 소라, 전복 其他 貝類等을 隨時 採取하는 作業

(6) 우미무레~3月부터 7月까지 우뭇가사리를 採取하는 作業

(7) 메역무레~3月부터 4月까지 미역을 採取하는 作業

(8) 又물질~바닷가에서 海産物을 採取하는 일

(9) 벳물질~바다 멀리 배를 타고 가서 海産物을 採取하는 일

물건무레~「우미무레」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우뭇가사리와 미역을 採取하는 일

◇ 무레 들레 감쭈

(作業하러 바다로 가고 있네)

◇ 물건무레 들레 감서

(미역, 우뭇가사리를 採取하기 위하여 바다로 가고 있어)

◇ 헛무레 들레 간

(소라 전복을 採取하러 바다로 갔오?(갔다))

(10) 물켄다(고지기 켄다, 물 켄다)

바다에서 자라는 雜草(고지기, 감태, 노랑장이, 몸, 듬북)을 除去해버리는 作業으로서 陰 1月末日~2月初 1回와 陰 9月初의 2回에 걸쳐 行하여진다. 그리고 除去된 雜草는 보리(麥) 播種時 밑거름으로 使用되는데 이 作業의 目的은 미역, 우뭇가사리(天草) 等을 採取할 바다에 이들이 잘 자라도록 餘他의 海藻物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作業時는 15才

~60才까지의 海女가 自進 出役하게 된다.

11) 줄나시~남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서 보리거름(麥肥)用으로 「듬북」을 採取하는 것인데 대개 「듬북조물」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된다.

(12) 듬북조물~「물케다」「물케다」「고지기케다」라는 말과 並用하는데, 陰 1月末~2月初에 「듬북」을 제거하는 作業으로 이 때의 기구로는 「공장이대」를 使用한다.

(13) 듬북~노랑쟁이, 몸, 듬북, 고지기 등을 일괄 듬북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14) 메역조문(메역ᄌᆞ문)~미역이 禁採되었다가 解除되어 처음으로 미역을 採取하는 것인데 許採하는 첫날의 作業을 「메역조문」「메역ᄌᆞ문」이라 말한다. 時期的으로는 3月에 있다.

(15) 우미조문(우미ᄌᆞ문)~우미(우뭇가사리)의 禁採가 풀려 처음으로 採取作業을 하는 것.

(16) 고등 트다~소라를 따다

(17) 벤초~근거리의 바다에서 作業하는 것

(18) 수심초~바다 멀리 나아가서 作業하는 것

(19) 메역 ᄌᆞ물레 감쑤다

(미역 採取하러 갑니다)

(20) 메역조문(ᄌᆞ문)하레 감쑤다

(許採하는 날에 미역을 採取하러 갑니다)

(21) 물케레 감쩌

(말(藻)을 採取하러 가고 있네)

(22) 개멋디 간다

(개것간다, 개꺼시 간다, 개끄시 간다, 갯기 간다, 개발 간다, 물들레 간다, 물질 간다)~(海女가 바다로 海産物을 採取하러 간다)

(23) 숨비소리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 海女가 물속에 깊이 잠겨 採取하다가 물위로

떠오르고 가쁜 숨을 「호—이, 호—이, 호—이」 내쉬는 소리

(24) 불턱

海女가 採取作業을 하다가 추워지면 뭍으로 나와 불을 쬐기 위하여 만든 보리짚이나 나무대기로 불을 피우는 자리. 作業은 春季에는 1時間 冬季에는 10分~20分間을 계속하면 冷氣가 몸에 베여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이때 불을 쬔다. 近來에 着用하는 새로운 海女服(고무옷)인 경우에는 作業時間이 현저하게 길어진다.

(25) 불초왕 들게

(「불턱」에서 불을 쬐고 바다로 作業하러 들어가자)

(26) 물에 들어가게(물에 가게, 물에 들게)

(바다로 들어가자, 作業을 시작하자)

(27) 물옷 フ라 입으라

(海女服으로 갈아 입어라)

(28) 물감전이 재기 숨비영들 나게

(물때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作業을 마치고 뭍으로 나아가자)

(29) 물건 엇다 안티로 가게

(採取物이 없다, 뭍쪽으로 가자)

(30) 물건 잇저 물 내린다.

(採取할 물건이 많이 보인다(있다), 물때가 지나간다)

(31) ᄀᆞ밧띄레

바닷가 얕은 곳에서 뭍으로

(32) 불 ᄃᆞ사시메 출려보라

(불을 다 쬐였으니 作業 준비를 하여보자)

(33) 개밧 머흘에서

바닷가 바위들이 있는 곳에서

(34) 머흘트멍서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3〉海女 作業에 필요한 船種

(35) 게발베(개발베)

「뱃물질」할 때 海女를 作業場으로 실어가는 배의 通稱

(36) 삼판세끼(삼판새끼)

가까운 거리의 바다에서 고기를 낚으는 船種의 하나로 海女를 作業場으로 실어가기도 한다.

(37) 장선

五日장(市場)을 보러 가는 장꾼을 실어 나르는 배인데 亦是 海女를 作業場까지 실어 나른다.

(38) 삼대선

돛대가 세개 있는 風船으로서 海女를 실어 나른다.

(39) 이대선

돛대가 두개 있는 風船

(40) 두대걸이~이대선의 別稱

(41) 당돌이베

배를 만든 나무가 딴딴한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굽히지를 못하여 거의 四角形에 가깝게 만들어진 배. 風船의 一種이나 지금은 볼 수 없다.

(42) 터욱(터위)

뱃목. 지금은 使用하지 않음

4〉採 取 物 名

(43) 우미(우묵가사리)

우뭇가사리

◇ 우미의 種類

① 돌우미~바닷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平常時의 作業服으로 採取하는 우뭇가사리. 바닷가 바위에서 자라고 그 꼴이 작다.

② 섭우미~海女服을 입고 물속에 잠겨 採取하는 우뭇가사리. 깊은

바닷물 속의 바위에서 자라고 形体가「돌우미」보다 크다.

(44) 우뭇가사리의 採取期別 名稱

① 일반(번)초~3·4月에 採取하는 우뭇가사리

② 이반(번)초~5·6月에 採取하는 우뭇가사리

③ 삼반(번)초~7月에 採取하는 우뭇가사리

(45) 메역

미역

(46) 미역의 種類

① 춤메역~和布

② 줄메역~人工으로 增殖된 미역

③ 넓메역(넓곽)~廣布

(47) 和布의 採取期別 種類

① 조각메역~겨울에 자란 미역을 4月에 따는 미역

② 망각메역~「조각메역」을 딴 다음에 따는 미역

③ 복자귀~①②의 미역을 딴 다음에 採取하는 미역으로서 바다에 잠길 수 없는 어린이들이 主로 바닷가에서 딴다.

(48) 프레

파래

① 개프레~파랑말로 바람이나 潮流에 依하여 물으로 밀려오면 돼지의 飼料나 農作物의 밑거름으로 쓰기 爲하여 거둔다.

② 지름프레~파랑말로 전체를 食用으로 한다. 소라껍질〈자개〉로 긁어 모은다.

(49) 몸

모자반. 바위나 돌에 자란 것을 뜯는다.

(50) 톨

鹿尾菜. 바위나 돌에 자란 것을 뜯거나 벤다.

(51) 지끄리

풀 材料로 하는 바닷말의 一種

(52) 쿠사리(성계, 성기, 퀴살, 퀴, 솜)

퀴, 쿠사리, 퀴살, 솜 等으로 일컫는데 陸地로(主로 慶尙道) 出稼 海女가 많아짐에 따라 그 地方에서 쓰여지는「성계」「성기」라는 名稱이 전파되어 漸次 優勢해지고 있다.

(53) 쿠사리의 種類

① 붉은 쿠사리~겉이 붉은 쿠사리

② 검은 쿠사리~겉이 검은 쿠사리

(54) 구젱기(고동)~소라

① 민둥구젱기~形体가 큰 소라

② 조쿠젱기~잘잘한 소라(고동)

(55) 문개~문어

① 물문개~알을 낳아버린 문어

② 돌문개~알을 낳지 아니한 문어

(56) 생복

점복

① 암첨복(암참복)~점복 암놈

② 숫첨복(숫참복)~점복 숫놈

(57) 미~해삼

(58) 오분재기~떡조개

5〉 海 女 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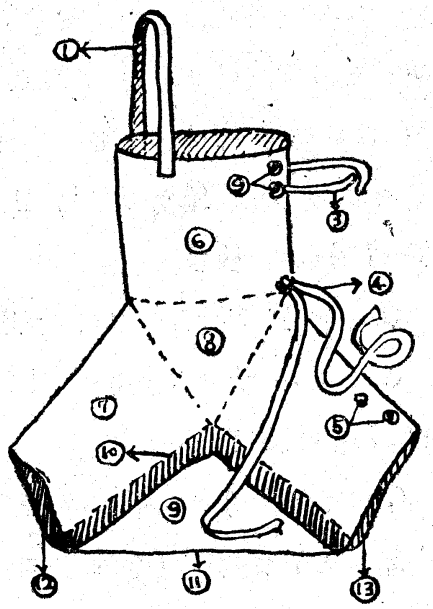
(59) 물옷

海女가 바다에서 作業을 할 때 입는 옷을 물옷이라 하고「속옷, 물저고리(물적삼), 물수건」이 包含된다.

① 속옷~속속곳에 웃도리가 이어지고 어깨에 걸치게 꾸며진 옷으로 黑·白色의 무명이나 廣木으로 만들어진다. 이 옷의 特色으로는 소매가 없고, 아랫도리와 윗도리의 왼쪽에만 한개의 고름과 세개의 꾀(단추 비슷한 것)가 있어서 입고 벗기와 作業에 便利하게끔 되었다.

(60) 속옷의 部分 名稱

① 메친
② 벌ᄆᆞ즉
③ 줏꾀
④ 곰
⑤ 꾀.
⑥ 허리
⑦ 이몸
⑧ 처지
⑨ 밑
⑩ 바데 — 앞바데, 뒷바데, 메친바데, 밑바데, 꾀바데, 곰바데
⑪ 숫굴
⑫ 암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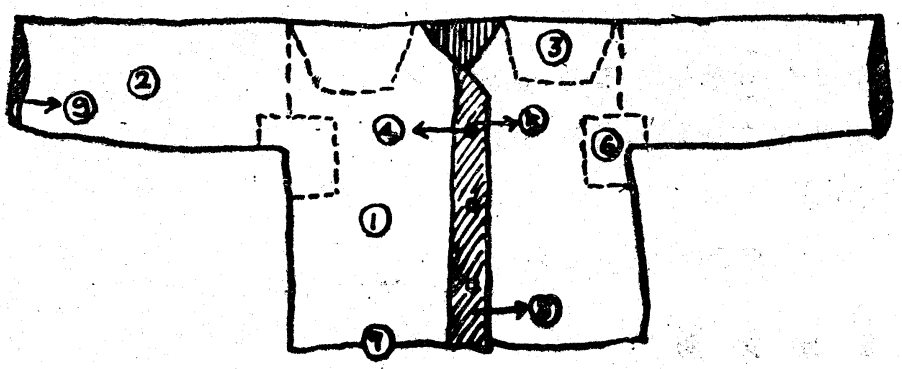


(속 옷)

2〉 물적삼(물저고리)

作業時 입는 저고리(적삼)로 천은 亦是 "무명" 廣木 等으로 만든다.

물적삼의 部分 名稱



(물적삼)

① 이몸 ② ᄉᆞ미 ③ 웃둑지 바데 ④ 벌ᄆᆞ즉 구멍 ⑤ 벌ᄆᆞ즉
⑥ ᄌᆞ껭이 바데 ⑦ 알단 ⑧ 바위

이「물적삼」의 特色은「물저고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나 실은 홑적삼으로 어깨부터 허리까지의 길이가 길고 소매가 좁으며 앞에는 단추의 구실을 하는「벌ᄆᆞ작」이 세개 있고 동전과 짓이 없다. 그리고 이어진 部分마다「바데」라 하여 옷천이 겹쳐 있어 단단하게 꾸며져 있다.

3〉 물수건

作業時 머리에 동여매는 廣木천으로 된 수건

4〉 까부리

「물수건」 대신으로 作業時 머리에 쓰는 것으로 그 모양이 꼭 防寒帽 비슷하나 뒷 面이 길게 드리어 목 部分에서 묶으게 되어 있다.

5〉 손뽁딱

장갑과 비슷하나 손가락 끝만 감추어지게 만들어진 것으로 作業할 때 손가락이 다칠가 하여 끼우는 것이다.

이상 說明한 傳來의 海女服을 대신하여 2~3년전부터 化學纖維製品인 「고무옷」이 들어와 입기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不便한 점이 많다고 한다.

6〉 海女 作業 器具名

(61) 테왁 (드렁박) (두렁박)

海女가 바다에서 作業時 물속에 잠길 때 以外는 언제나 양팔로 안아 가슴을 얹히고 헤엄치는데 힘들지 않게하고 採取한 물건들을 담은 「망사리」가 가라앉지 않게 하는 가장 요긴한 기구로서 一種의 浮囊이라 할수 있다. 씨통을 파내버린 박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잘 막아 노끈으로 얽어 「망사리」에 묶어 놓아 물에 뜨도록 만들어졌다.

(62) 테왁의 部分 名稱

① 알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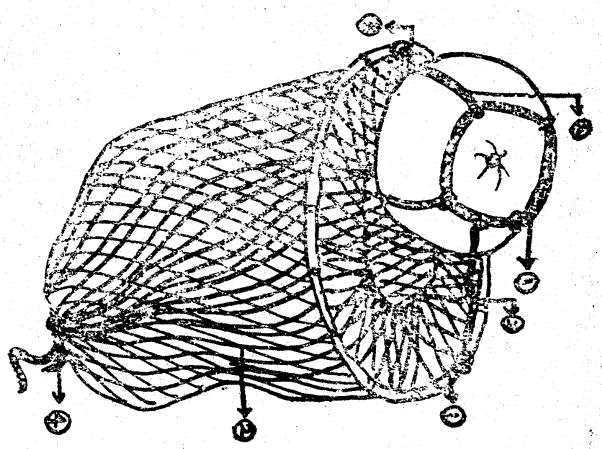
② 지동

③ 웃관제

(63) 테왁의 種類

① 큰테왁~18才 以上의 海女가 使用한다.

② 중테왁~16才~17才 以上의 海女가 使用한다.



(테왁, 망사리)

③ 조근테왁~16才 以下의 海女가 使用한다.

이러한 박으로 만든「테왁」은 漸次 자취를 감추고 있고 대신「스폰지」로 만든「테왁」이 거의 使用되고 있다.

(64) 망사리(망아리)

海女가 바다에서 미역, 점복 등 채취한 海産物을 담아 넣는 기구로서 그물로 엮어 만든다. 그 크기는 윗쪽 지름이 40cm~50cm 깊이가 70cm의 圓筒形이나 아랫쪽이 더 넓다.

(65) 망사리의 部分 名稱

① 어음~나무때기를 圓形으로 굽혀 「망사리를 둥글게 묶어 놓고「테왁」에 달아매여지는 부분이다. 미역을 따는 「어음」은 크고 단단하며 우뭇가사리를 따는 「어음」은 작고 조금 약하다.

② 망사리~채취한 물건을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진 것.

③ 웃호름새기~채취한 물건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졸라매는 새끼줄

④ 알호름새기~채취한 물건을 끌어낼 때 풀어주는 새끼.

(66) 눈(수경)

海女가 바다에서 作業할 때 쓰는 안경

(67) 눈의 種類

① 큰눈(왕눈)~알이 하나로 된 눈

② 족세눈(족은눈)~알이 두개 있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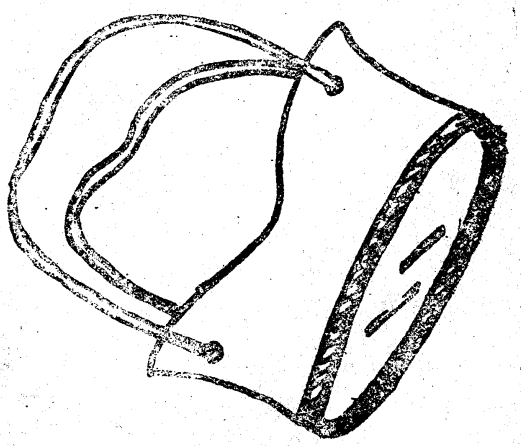
③쉐눈~가장자리가 쇠로 된 눈

④ 고무눈~가장자리가 고무로 된 눈

⑤「눈」의 産地別 名稱으로는

ㄱ) 엄젱이눈~涯月面 新嚴里에 製造된「눈」

ㄴ)궤눈~舊左面 漢東里에서 製造된「눈」



(큰 눈)

(68) 밀

귀에 물이 못 들어가도록 「밀」로 반죽을 만들어 막는다.

◇ 밀이 텄다~귀에 물이 들어가다.

채취 器具의 名稱

(69) 호멩이(호미)~낫

① 종게호멩이(종게호미)~미역 採取時 使用하는 낫. 이 밖에 海藻類를 제거할 때도 使用하는데 形은 田畓에서 쓰는 낫과 흡사하다.

② 돌호미(비호미)~낫

田, 畓에서 農作物을 刈取할 때 使用하는 낫

(70) 골각지(골각지)(골겡이)~호미

① 성기골각지(성기골겡이)~호미

성기, 떡조개를 따거나 문어 등을 잡을 때 使用하는 호미. 밭에서 쓰는 호미보다 자루가 짧고 쇠대가 길며 날 부분이 가늘다

② 골각지 (골겡이)

밭에서 除草할 때 使用하는 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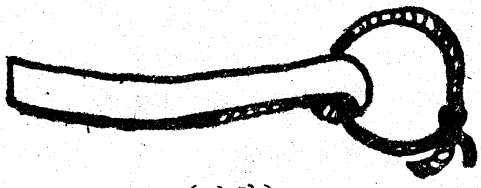
(좁게호멩이)



(성기골각지)

(71) 비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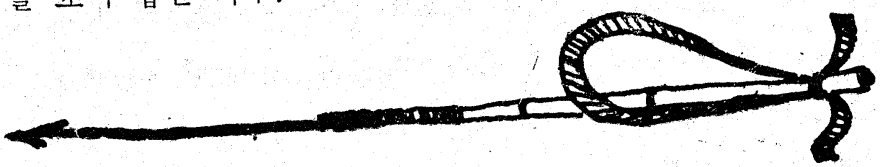
점복을 따는 기구. 約 30cm 정도의 편평한 쇠붙이로 무디나 날이 돋쳐 있고 한쪽은 손잡이로 손목에 감을 노끈이 달려 있다.



(비창)

(72) 작살

고기를 쏘아 잡는 기구.



(작살)

(73) 갈궁이(갈쿠리) (갈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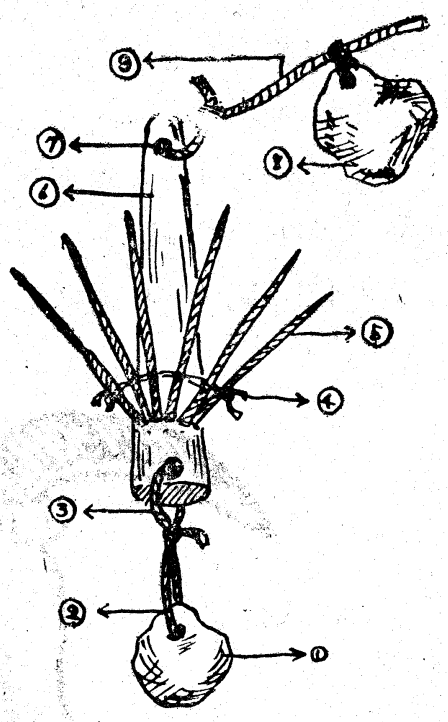
廣布를 채취하는 기구.

(74) 갈궁이의 部分 名稱

① 원줄~배(船)에서 「목돌」을 거쳐 「갈궁이」의 「코」까지 이르는 줄. 約 60m~70m의 단단한 줄로 배에서 「갈궁이」를 끌어가는 줄이다

② 목돌~배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갈궁이」의 「채」가 물위에 떠오르지 않게끔 하는 돌덩이.

③ 코(웃코)~「갈궁이」 채 위쪽에 뚫어진 구멍에 꿴 노끈. 이 끈에 원줄이 묶인다.



(갈궁이)

④ 갈궁이채~「갈궁이」의 몸을 이루는 45cm 정도의 굵은 나무때기. 토막나무를 아래는 네모로, 윗쪽은 둥글게 깎아 만들어진다.

⑤ 쌀(갈궁이쌀)~단단한 나무를 굵은 화살形으로 길이 45cm 정도로 깎아 「갈궁이」 채에 비스름하게 박고 동여매여진 것이다. 「쌀」의 數

는 11個로 되어 있는데 이「쌀」이 바다의 밑바닥(모래벌판)에 닿아져 廣布를 굵어내는 것이다.

⑥ 코(알코)~「갈궁이」채 아래에 뚫린 구멍에 꿰어맨 끈. 이 끈에 「붓돌」이 달린다.

⑦ 불출

붓돌(불돌)을 달아매는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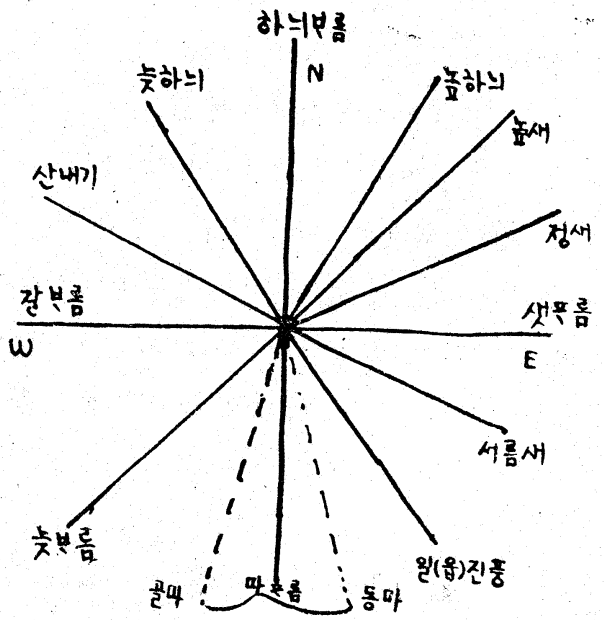
⑧ 붓돌(불돌)

「갈궁이」가 海底에 잘 닿도록 달아매는 돌

(75) 송동바구리

채취한 海產物을 뭍에서 담아 넣거나 運搬하는 바구니

2. 風 名



※ 동마와 골마는 마프름을 細分해서 말함인데 이는 동쪽으로 비끼면 「동마」서쪽으로 비끼면「골마」라 한다.

3. 潮　水　名

陰一日　여(ㅇ)듭물　　〃二日　아흡물
〃三日　열물　　〃四日　열흔물
〃五日　열두물　　〃六日　막물
〃七日　아끈조(쳬)기　　〃八日　한조(쳬)기
〃九日　흔물　　〃十日　두물
〃十一日　세물　　〃十二日　네물
〃十三日　다섯물　　〃十四日　여(ㅇ)섯물
〃十五日　일곱물　　〃十六日　여(ㅇ)듭물
〃十七日　아흡물　　〃十八日　열물
〃十九日　열흔물　　〃二十日　열두물
〃二十一日　막물　　〃二十二日　아끈조(쳬)거
〃二十三日　한조(쳬)기　　〃二十四日　흔물
〃二十五日　두물　　〃二十六日　세물
〃二十七日　네물　　〃二十八日　다섯물(※)
〃二十九日　여(ㅇ)섯물(일곱물)　　〃三十日　일곱물

※ 달(月)이 큰 경우에는 上記와 같이 이어지는데 만약 달(月)이 적을 경우에는 29일이 그믐이 되므로 28일(다섯물)까지는 이어지고 29일은 여(ㅇ)섯물이 안되어 일곱물이 된다. 그러므로 여(ㅇ)섯물은 자연히 없어짐.

4. 船　　名

1〉 船의 種類

(1) 발동기—動力船

(2) 맨마—風船보다 작으며 돛대없이 노의 힘으로만 움직이고 浦口에서 근거리를 航海할 때나 또는 操業할 때 많이 使用된다.

(3) 터우—「터욱」「터위」라고도 하여 굵은 통나무 10~12개 정도를 연이어 만든 것이다. 몇여년 전만 하더라도 風船과 같이 航海와 操業에 利用됐었지만 速度가 느리고 使用하기에 不便해서 지금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4) 風船—가) 2대선—돛대가 2개

나) 3대선—돛대가 3개

風船은 海女의 操業, 고기잡이, 往來等을 맡고 있다.

2〉 船体(風船)의 名稱

船体는 크게 三部分으로 나뉘는데 앞 部分을「이물」, 가운데 部分을「한판」, 뒷 部分을「고불」이라 한다.

여기 收錄한 語彙들은 배를 만들 때에 그 組立하는 順으로부터 그 部分名稱을 羅列했으며, 또한 船体를 움직이는데 使用되는 器具, 그리고 고기잡이에 必要한 그물(網) 名稱까지를 包含시켜 記述한다.

(5) 밑—배의 根本이 되는 것으로써 第一 밑에 놓은 나무다. 보통 배련 앞에 5치 5푼을 넣고 뒤는 동밑이라 하는데 약간 올라간다.

(6) 하반—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뒷 部分에 있어 中樞의 役을 맡는다.

(7) 묘시—第一 앞에 있는 것으로서「이물코지」라고도 하며 이는 배의 머리다.

(8) 두두레—「한판두두레」「감빵두두레」「고불두두레」를 總稱해서 말함인데 나무들을 固定시키는데 使用한다.

(9) 부자리—「밑(바닥)」에 비스듬하게 놓여진 것.

(10) 도련—부자리와 장부를 연결시킨 것.

(11) 장부—옆 部分에 붙이는 나무

(12) 멍에—「한판멍에」「감빵멍에」「고불멍에」를 總稱해서 말함인데 가로로 세운 나무로써 上·下를 이어줌.

(13) 실레게—윗 部分에 左右로 연한것.

(14) 묘메기—윗 部分에 上·下로 연한 것.

(15) 파락—「옆날개」라고도 하는데 이는 배의 中心을 잡아주는 役割을 한다.

(16) 청날—파락의 밑 部分.

(17) 후다—「한판감빵」「고불감빵」을 덮는 뚜껑인데 이를「녀장」이라고도 한다.

(18) 도지게—파락과 장부를 연결하는 받침으로써 2~4개를 만든다.

(19) 돛대—돛을 달기 위하여 세운 기둥인데「2대선」에서는 첫번째를 야오돛, 두번째를 허리돛이라 하고「3대선」에선 첫번째를 야오돛 두번째를 가운디돛 세번째를 허리돛이라 한다.

(20) 통무니—키를 연결시키는 곳으로서 제일 뒷 部分에 우직스럽게 붙여진 것이다.

(21) 가랑다리—「앙그레」라고도 하며 이는 돛(초석)이나 태왁등을 걸치기 위하여 통무니 위에「Y」자로 세운 나무.

(22) 사시다—통무니를 連結시키는 작으마한 나무.

3〉 器具의 名稱

器具는「며, 키, 삿대, 돛, 닻」그리고 고기잡이에 必要한「그물」등이 있는데 첫째 노의 名稱은 다음과 같다.

(23) 내우대—앞 部分

(24) 냇닢—뒷 部分

(25) 몽고지—손잡이

(26) 내방에—손잡이를 連結하는 줄

(27) 내방에코—노를 固定시키기 위하여 약간 패인 곳

보통배면 大槪 3개의 노를 놓으며 평상시는 하나의 노만을 使用하나 바람이 없어 돛이 無用할 때는 3개의 노를 使用 그 힘으로 움직인다. 노에 이어 배의 方向을 잡는 키가 있다.

(28) 키—배의 方向을 定하는 器具로써 보통 배면 1.5~2m가량 된다.

(29) 치따리—「치장남」이라고도 하는데 키와 連結되어 있으며 키를 움

직이는 막대다.

浦口는 거의 水深이 얕기 때문에 浦口를 벗어나기 위해서 밀려주는 器具가 必要하는데 그 器具들은「사울대」와「공쟁이대」다.

(30) 사울대—5~7m 가량의 길쭉한 나무로써 浦口를 벗어나기 위하여 밀려주고 키대신 向方을 결정하기도 한다.

배에 따라선 1~3개 정도 놓으며 材料는 삼나무가 많이 쓰인다.

(31) 공쟁이대—길이와 수량이「사울대」와 類似하며 材料는 대나무(竹)가 많이 쓰이고 앞 部分엔 비스듬하게 30cm 정도의 나무를 덧붙여 어떤 物体를 걸리는데 使用한다.

배가「사울대」나「공쟁이」대로 밀려 浦口를 벗어나선 키를 내리고 돛을 올려 目的地로 向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2대선은「야옷대」와「허릿대」로 구성되며「초석(돛)」이라는 바람받이를 달게 된다.

돛은 광목으로 만든다. 보통배면 허리돛이 27~28자(尺)가량, 야오돛이 17~18자(尺)가량 모두 45자(尺)가량이 든다.

돛의 名稱을 보면

(32) 돛대—돛을 달기 위하여 세운 기둥

(33) 용도—도르레

(34) 무루줄—용도에 연결된 줄로써 초석을 내리고 올리는데 使用한다.

(35) 아디줄—질활대에 연결되여 배에 묶여 있어 風向에 따라 옮긴다.

다음에는 碇泊中이나 操業할 때 배를 멈추어 서게 하기 위하여「닻」을 만든다.

몇여년전만 하더라도「닻줄」은 칡을 풀어서 줄을 만들고 그 줄은 다시 여러겹을 겹쳐 굵은 줄을 만들어 돌을 메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나일론 줄을 利用하고 닻은 쇠를 利用한다.

닻은 통상「앞닻, 뒷닻」이라 부르고 碇泊中엔 앞닻은 물속으로, 뒷닻은 陸地에 멘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서 操業中일 때는 앞닻만 내리고 배를 멈추게 한다.

닻줄은 보통 20~30m로써 그 部分 名稱은 다음과 같다.

(36) 닻멍에—묘시 바로 뒤에 붙어 있으며 닻줄을 메는 나무다.

(37) 닻가지—닻에 달린 갈구리

(38) 닻줄—닻을 맨 줄

그물의 名稱

(39) 부표—그물에 연결되어 있어 멀리서나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처음 놓은 자리로부터 마지막 놓은 자리까지 두곳을 표시한다.

(40) 아바—그물과 같이 連結되어 가까운 곳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第一 윗 部分에 連結

(41) 아바줄—아바를 묶은 줄

(42) 유아줄—그물 밑에 連結되어있으며 연철을 連結시킴.

(43) 연철—납으로 만든 것인데 그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固安시킨 쇠.

(44) 닻돌—그물을 固定시키는 돌.

5. 魚 名

1) 모도리	2) 저 립	3) 죽	4) 돔
5) 막쟁이	6) 쩜뱅이	7) 저울도리	8) 개상어(존단이)
9) 빗 게	10) 비근더리	11) 키상어	12) 갈치
13) 꽁 치	14) 고질멩이	15) 고도리	16) 놀 치
17) 고등에	18) 각재이	19) 북바리	20) 구문쟁이
21) 다근바리	22) 물 톳	23) 왱 이	24) 논쟁이
25) 구 릿	26) 감은돔	27) 우 럭	28) 볼 락
29) 변자리	30) 삼 치	31) 망 치	32) 부 리
33) 자 리	34) 어랭이	35) 실어랭이	36) 술맹이
37) 맥진다리	38) 독대기	39) 장 어	40) 붕장어
41) 끔장어	42) 깩주리	43) 멜	44) 졸락
45) 오테미	46) 문 어	47) 낙 지	48) 쭉께비
49) 민낙쟁이	50) 코생이	51) 앞돔배	52) 벋돌락

53) 돔발치　54) 복쟁이　55) 돌도랭이　56) 가오리
57) 헉숙이　58) 북발이

6. 海　岸　名

1) 너른구미　2) 나는여　3) 서궁구미　4) 쟁반여
5) 모살케　6) 솔밭여　7) 청석빌테　8) 목갈라진여
9) 먹돌개　10) 가메기부리　11) 섬여　12) 옷따는여
13) 샤트랑여　14) 거멀래　15) 너른지바당　16) 등굽은여
17) 돌랭이　18) 진빌레　19) 서웃통　20) 선돌목
21) 광대코지　22) 톤독　23) 동어귀　24) 버섯봉오지
25) 세살모진개　26) 서머리　27) 틀까니　28) 꿀정여
29) 들렁머리　30) 산여톤여　31) 만여　32) 톤여
33) 개울레　34) 삼웃돌여　35) 손지고서방여　36) 고등여
37) 꿀정여　38) 넙대기　39) 진개여　40) 진여
41) 코난돌　42) 방언여　43) 드렁코지　44) 큰ᄆᆞ실레기
45) 감테부리　46) 목시터여　47) 집여　48) 홀체망렝이
49) 맹상이코지　50) 한장여　51) 방언여　52) 조근ᄆᆞ실레기
53) 대창여　54) 독새기코지　55) 개창여　56) 선창군지
57) 번지　58) 북돌코지　59) 장통알　60) 쟁반여
61) 섬여　62) 노랑여　63) 방언여　64) 고여물
65) 중개　66) 물코　67) 앞통　68) 앞바당
69) 동녕알　70) 앞톤여　71) 감테부리　72) 새비여
73) 세비톤여　74) 두든세비　75) 방ᄆᆞ루　76) 진질락
77) 싼물겐지　78) 자락　79) 답단이　80) 늙은이물
81) 묘왕마지코지　82) 세비코지　83) 독진포　84) 앞여
85) 큰여　86) 작은여　87) 개염멀　88) 난여
89) 고분여　90) 큰개　91) 장테코　92) 요양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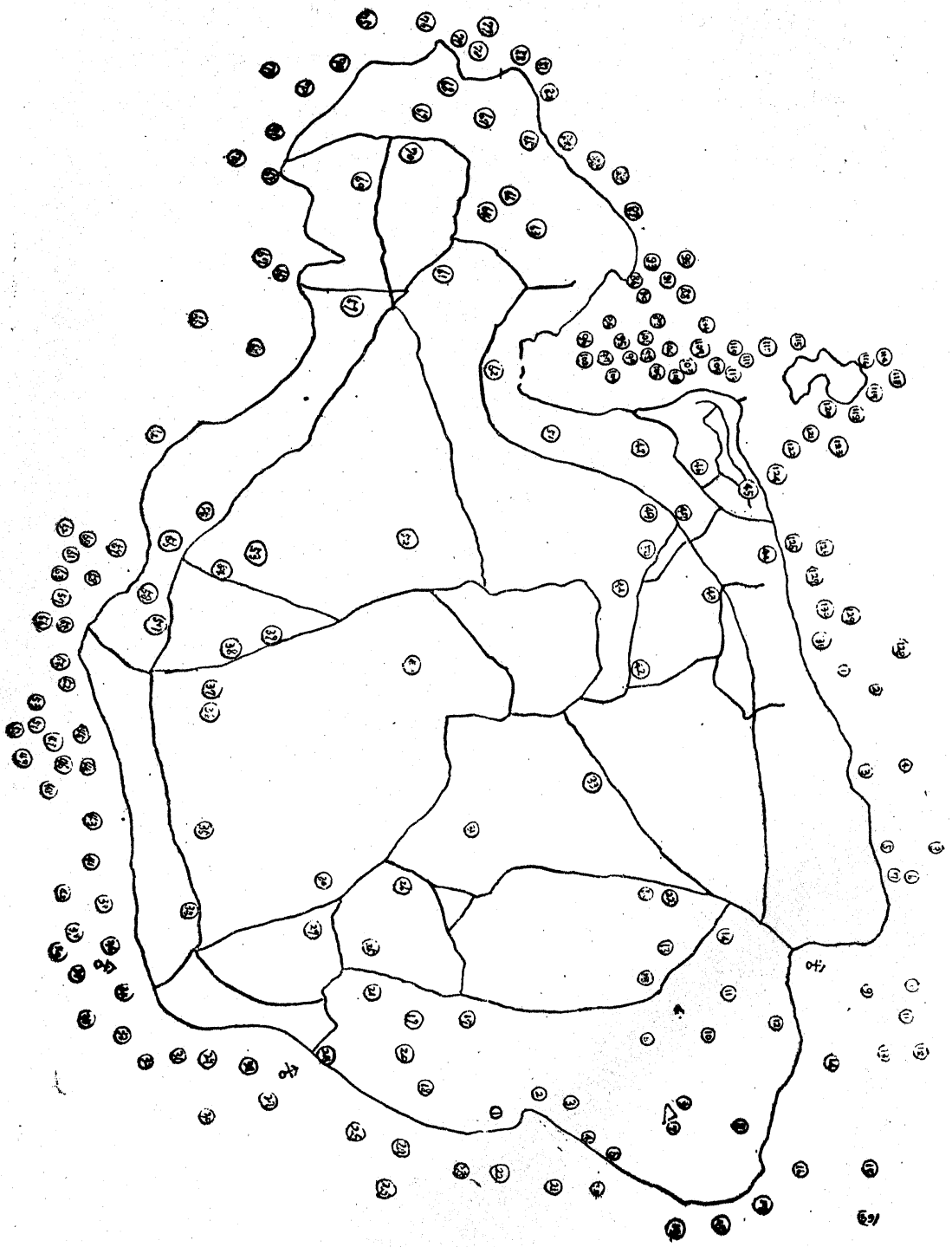
93) 고등여　94) 한참봉여　95) 웃여믈　96) 바당여
97) 숨은여　98) 톤여　99) 동글랑여　100) 독진포
101 옷따는봉오지　102) 진여　103) 멜무개　104) 방언여
105) 독진개포구　106) 진지코　107) 들렁머리　108) 모살
109) 수눔바위　110) 개도맹이여　111) 섯배슬　112) 한와지
113) 불락통　114) 모살비양　115) 섯구슴　116) 동구슴
117) 꿀정여　118) 동들모을　119) 오다리　120) 볼래낭안
121) 오다리톤여　122) 쟁반여　123) 똥내미여　124) 조름바위
125) 넙대기여　126) 큰모실래기　127) 돌비양　128) 돔징게
129) 등새울　130) 톨까니　131) 산물통

7. 地　　名

1) 돌그린안(晝間明月)　2) 낭코밧　3) 절터
4) 코구망굴　5) 보섭봉오지　6) 牛頭峯(섬머리)
7) 붉은코구망　8) 조근섬머리　9) 활대왓
10) 배움드　11) 뒷바당　12) 갯벌왓
13) 물왓　14) 남굴왓　15) 진사통
16) 안틀까지　17) 매농코지　18) 당(할망당)
19) 각시물　20) 하늘이　21) 논동산
22) 새통　23) 양벵통　24) 박서방통
25) 포제동산　26) 김진사비　27) 징피앗동산
28) 앞동산　29) 생이동산　30) 하늘질
31) 가름팟　32) 우묵개　33) 갯머리
34) 사고동산　35) 유복이동산　36) 산예정
37) 조름바위　38) 먹돌　39) 당동산
40) 벵작통　41) 수눔바위　42) 숭굴왓
43) 집터　44) 물코　45) 비둘기동산

46) 개남동산　47) 앞재골　48) 정서방동산
49) 알묵개　50) 목양지　51) 구정질목
52) 중개　53) 돈흘래　54) 침동산
55) 이물　56) 물그랑동산　57) 웃여물
58) 수덕동산　59) 조븐수덕동산　60) 줌벵이동산
61) 오서방동산　62) 제밧동산　63) 개미동산

演坪里(牛島)의 海岸 및 地名圖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家　　族

차　　례

1. 調査目的 및 方法
2. 家族의 構成
3. 家族의 類型
4. 妻·妾의 家族
5. 養子·養女

1. 調査目的 및 方法

牛島는 濟州島의 一屬島요, 濟州島에서 住民이 移住 開拓한지 不過 130餘年 밖에 안된다. 따라서 兩島間에는 文化面의 本質的인 差異가 있을 수 없을 것임은 곧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牛島는 섬의 섬이요, 半農半漁이면서도 海女裸潛業이 盛하고, 陸地 本土와의 交通이 빈번한 점등으로 보아 地域的 特性이 혹 두드러질 수도 있을 것이라 짐작되었다. 그래서 本調査는 家族構成의 形態面에서 濟州本島와 牛島間에 差異 有無를 確認하는 資料를 얻으려 하였다.

調査의 焦点을 家族의 構成·類型에 두었으니만치 自然 인텐시브한 調査方法을 擇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對象部落을 牛島 11個 自然部落 中, 上牛目洞과 下牛目洞 두 개의 自然部落을 擇했다. 理由는 意圖的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宿所와 가장 近距離에 位置해 있어 往來에 便한 점, 世帶數가 적어서 短期間에 調

査가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調査는 먼저 里事務所에 備置된 住民登錄票를 옮겨적어 公簿上의 家口員을 確認하고, 다음 各 家戶마다 돌아다니며 退去 出他 與否, 住居 및 生産 所費生活의 共同 與否등 實際의 家族을 確認하였다. 이는 濟州本島의 경우, 公簿上의 家口員과 實際의 居住家族은 相當한 相違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確認하고자 함이었다.

確認된 資料는 統計方法으로 處理하고 濟州本島와의 比較를 試圖함으로써 牛島 家族의 特性을 認識하고자 했다.

2. 家族의 構成

里事務所에 備置된 公簿(住民登錄)上의 世帶數는 上牛目洞이 33, 下牛目洞이 75였다. 이 登錄世帶를 實際 確認 調査한 結果, 上牛目洞의 경우 行方不明(1人家口) 1, 死亡(1人家口) 1, 退去 1, 調査未詳 3으로서 27世帶의 데이터를 얻었고, 下牛目洞의 경우는 退去 11, 出他(1人家口) 1, 調査未詳 1로서 62世帶의 데이터를 얻었다. 兩洞 82世帶의 實際 居住人口數는 〈表1〉이 보이는 바와 같이 534人으로서 世帶當 平均 家族數는 6.0人이다.

〈表 1〉 世 帶 平 均 家 族 數

部 落	世 帶 數	實 居 住 人 口	世帶當平均家族數
上牛目洞	27	167	5.92
下牛目洞	62	367	6.19
計	89	534	6.0

世帶當 平均 家族數가 6人이라는 것은 濟州島의 家族構成員으로 보아서 異例的인 많은 數다. 1972年度 濟州道의 家口當 平均 家口員數는 4.63人이고, 牛島가 所屬된 北濟州郡 舊左面의 平均 家口員數는 4.71人이며, 가장 적은 面은 보면 翰京面의 경우 4.04人 밖에 되지 않은다.[1]

平均 家族數 6人. 이것은 牛島의 家族이 濟州本島에 비해 大家族的이요, 特異함을 暗示하여 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家族의 크기를 統計해 보면 〈表2〉와 같이 나타난다. 6人家族의 世帶가 18.0%나 되고, 7人家族 世帶가 15.7%, 5人家族 世帶가 12.4%, 亦是 6人家族 世帶가 最高의 %를 占有하고 있다.

〈表 2〉 **가 족 의 크 기**

區分	上牛目洞		下牛目洞		計		
	世帶數	人員數	世帶數	人員數	世帶數	%	人員數
1人家族			1	1	1	1.1	1
2人家族	2	4	4	8	6	6.7	12
3人家族	3	9	3	9	6	6.7	18
4人家族	4	16	8	32	12	13.5	48
5人家族	2	10	9	45	11	12.4	55
6人家族	2	12	14	84	16	18.0	96
7人家族	4	28	10	70	14	15.7	98
8人家族	4	32	5	40	9	10.2	72
9人家族	4	36	4	36	8	9.0	72
10人家族	2	20	3	30	5	5.6	50
11人家族	—	—	—	—	—	—	—
12人家族	—	—	1	12	1	1.1	12
計	27	167	62	367	89	100.0	534

한편, 이들 家族의 世代別 構成은 보면 〈表3〉과 같다.

〈表 3〉 **世 代 別 家 族 構 成**

區分	世帶數			
	上牛目洞	下牛目洞	計	%
1世代家族	2	2	4	4.5
2世代家族	17	36	53	59.5
3世代家族	8	22	30	33.7
4世代家族		2	2	2.3
計	27	62	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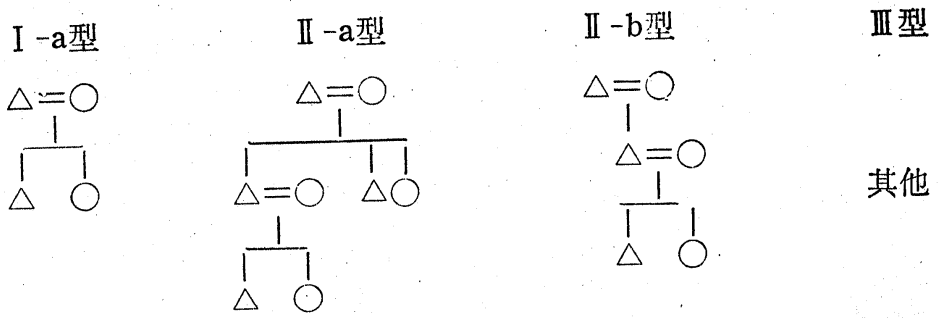
보는 바와 같이 1世代家族과 2世代家族을 합치면 64%가 되고, 3·4世代로 構成된 家族은 36%가 된다. 1·2世代의 構成 家族은 夫婦 또는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로 構成된, 所謂 核家族일 수 있는 公算이 큰 것이다. 이들 中에는 子女를 갖지 않은 夫婦가 그의 父母家族과 같은 家族을 構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3·4世代로 構成된 家族은 所謂 直系家族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直系家族에 들어갈 수 있는 3·4世代의 構成 家族이 36%나 되는 것을 보면 平均 家族數가 6人이나 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牛島의 家族은 濟州本島에 比해서 直系家族이 많기 까닭에 家族 構成員이 많고 家族의 크기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 實際로 牛島의 家族은 어떤 類型으로 構成되어 있는가를 檢討해 나가기로 하자.

3. 家族의 類型

牛島의 家族을 濟州本島의 그것과 比較하면서 편의하게 살피는데는 다음과 같이 分類함이 좋다.



Ⅰ-a型은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로 構成된 家族으로서 한 울타리 안에서 生産 所費生活을 共同으로 하는, 이른바 核家族이다. 이 型에는 圖示와 같은 完型의 家族 뿐 아니라, 1人家族, 父缺, 父母缺의 家族, 子女缺의 夫婦만의 家族도 포함시킨다.

Ⅱ型은 三世代로 構成된, 이른바 直系家族이다. 그 中, Ⅱ-a型은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 그리고 그의 既婚子, 子婦, 孫子女로 構成된 家族으로서 한 울타리 안에서 住居를 共同으로 할 뿐 아니라, 生産과 所費生活을 共同으로 하는 家族을 말한다. 이 型에는 孫子女를 ego로 해서 祖父缺의 家族 祖父母缺의 家族, 父缺의 家族을 포함시킨다. 이 類型의 家族은 濟州本島의 경우 거의 있을 수 없는 家族으로 알려진 것이다. 濟州의 경우면 長男이건 次男이건 結婚하여 子女를 갖게 되면 의례 分家하여 새로운 家族을 形成한다. 다시 말하면 生殖家族은 方位家族에서 分離되어 다른 家族을 形成하는 것이 原則으로 알려져 있다. 特히 方位家族인 父母의 家族에 未婚子女가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牛島에는 이 類型의 家族이 相當數 있으므로 이를 한 類型으로 獨立시킨 것이다.

Ⅱ-b型은 아들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 그리고 그의 父母로써 構成된 家族으로서 그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住居와 生産 所費生活을 共同으로 營爲하는 家族을 말한다. 이 型에는 最下 世代인 孫子女를 ego로 해서 祖父缺, 祖父와 父缺, 祖母와 父缺, 祖父와 父母缺, 父缺의 家族등 여러가지 缺型 家族을 포함시킨다. 이 型의 家族은 濟州本島의 경우, 完型의 것(父母+子+子婦+孫子女의 家族)은 父母와 子의 家族이 分離되는 것이 一般이고, 父母 어느 一方만이 生存해 있을 경우는 한 家族으로 되는 일이 있는 家族이다. 濟州本島에도 있을 수 있는 家族이므로 Ⅱ型 中에 獨立시켜 Ⅱ-b型으로 잡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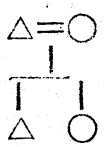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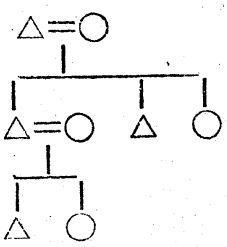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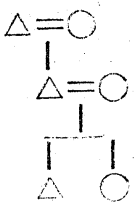
Ⅲ型은 特殊한 非正常的인 家族이다.

이 分類에 따라 上·下牛目洞의 類型別 實態를 보면 〈表4〉와 같다.

Ⅰ-a型 곧 核家族은 全体의 5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곳 家族의 基本的 類型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점은 濟州島 어디서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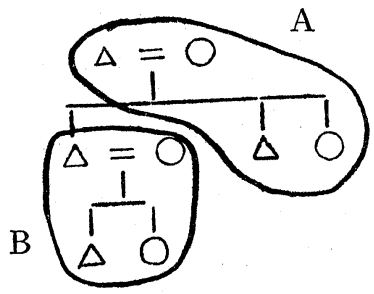
그런데, Ⅱ-a型이 全体의 13.4%나 차지하고 있는 점은 現在까지 알려진 바로는 濟州島의 家族類型으로 特異한 것이다. 〈表4〉에서 본 바와 같이 Ⅱ-a型의 完型 家族은 2, 祖父缺의 家族이 6이나 된다. 6은 Ⅱ-a型 全体數가 12이므로 꼭 半數가 된다. 그러므로 祖父缺의 Ⅱ-a型이 이 類型에서 가장 이루어지기 쉬운 家族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濟州本島의 경

〈表 4〉 上·下牛目洞의 家族類型

Ⅰ—a型	Ⅱ—a型	Ⅱ—b型	Ⅲ 型
			其 他
39 (43.8%)	完型 2 (2.2%)	完型 1 (1.1%)	
父	祖父缺6 (6.7%)	祖父缺11 (12.4%)	
父母缺 1 (1.1%)	祖父母缺3 (3.4%)	祖父·父缺4 (4.5%)	
夫婦만 1 (1.1%)	父缺 1 (1.1%)	祖母·父缺2 (2.2%)	
		祖父·父母缺2 (2.2%	
		父缺 3 (3.4%)	
計 51 (57.3%)	計 12 (13.4%)	計 23 (25.9%)	計 3 (3.4%)
	合計 35 (39.3%)		總計 89 (100.0%)

우며는 이 類型에서 完型의 것은 勿論, 祖父缺의 家族이라도 〈圖1〉 과 같이 分離되기 마련이다.

〈圖 1〉



即, 長男이든 次男이든 結婚하여 子女를 갖게 되면 耕作할 農地와 住宅과 生活道具를 相續하여 別居시킨다. 住宅은 한 타리 안이나 가까운 이웃에 마련하여 준다. 한 울타리 안의 경우는 대개 住宅이 두 채 세워지는 일이 많으니, 하나는 〈안거리〉 하나는 〈박거리〉 다. 〈안거리〉는 〈박거리〉 보다 집이 크다. 그러므로 아들을 別居시킬 경우 아들의 家族(B)는 父母의 家族(A)보다 적으므로 〈박거리〉에 別居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울타리 안의 〈안거리〉에는 父母의 家族이, 〈박거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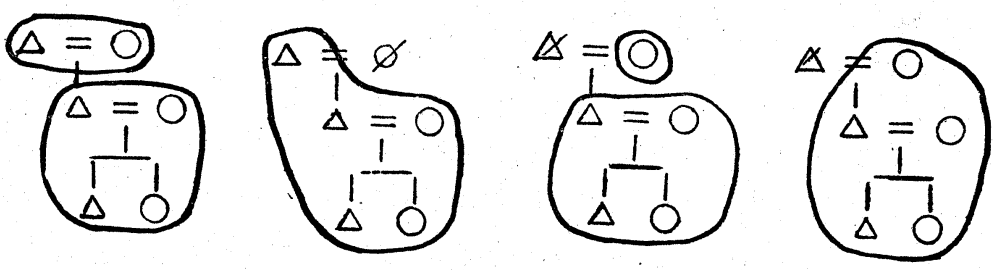
는 아들의 家族이 各各 부엌을 따로하여 炊事를 달리하고 農地를 따로 갖고, 事實上의 다른 家族을 이루어 생활해 나간다.

그런데, 牛島의 경우는 마땅히 分離될 법한 이 家族이 分離되지 않은 事例가 13.4%나 된다. 여기서는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 있을 경우, A家族은 〈안거리〉, B家族은 〈박거리〉와 같이 住宅空間의 利用은 달리하면서도 부엌은 하나요, 家計, 耕地도 共同이다. 이는 事實上 直系家族으로서 濟州本島의 경우와 다른 것이다.

Ⅱ-b型은 23世帶, 全体의 25.9%가 있다. 完型의 家族은 1世帶 뿐이고 祖父缺의 家族(母+子+子婦+孫子女의 家族)이 11世帶로서 Ⅱ-b型의 거의 半數가 된다. 이런 家族이 가장 이루어지기 쉬운 것임을 말해준다.

이 Ⅱ-b型의 家族도 濟州本島의 경우는 흔히 이루어지지 않은다. 完型의 家族은 勿論 〈圖2〉와 같이 分離되어 〈안거리〉 〈박거리〉에 別居하거나, 이웃에 別居하고, 祖父缺 또는 祖母缺의 家族도 可能하면 分離하려 하나, 祖母缺의 경우는 男子 혼자서 炊事가 困難하기 때문에 〈圖3〉과 같이 同一家族을 이룬다. 그러나, 祖父缺의 경우는 祖母가 勞動力이 있는 한 獨立生計를 유지하려 하여 〈圖4〉와 같이 分離하나, 勞動力이 없어지면 〈圖5〉와 같이 同一家族을 이룸이 一般이다. 그런데, 牛島의 경우는 分

〈圖2〉 〈圖3〉 〈圖4〉 〈圖5〉



離되지 않고 同一家族을 形成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그러면 濟州本島의 경우와 牛島의 경우, 類型別 比率의 差가 얼마나 나는가? 筆者가 調査한 濟州市 廣坪部落과 佐藤信行 博士가 調査한 濟州市 吾羅三洞의 家族[2] 을 들어 比較해 보기로 하자.

〈表5〉 牛島와 廣坪部落·吾羅三洞의 家族類型(比較)

類型	Ⅰ-a 型	Ⅰ-b 型	Ⅱ-a 型	Ⅱ-b 型	Ⅲ型 其他
牛島	51(57.3%)	0	12(31.4%)	23(25.9%)	3(3.4%)
	51 (57.3%)		35 (39.3%)		
廣坪部落	57(73.1%)	12(15.4%)	0	6	3(3.8%)
	69 (88.5%)		6 (7.7%)		
吾羅三洞	62(51.2%)	38(31.5%)	0	5	16(13.2%)
	100 (82.7%)		5 (4.2%)		

○ 吾羅三洞의 家族類型은 佐藤 博士의 分類를 基礎로 하되 比較의 便宜를 위하여 牛島의 것에 맞게 바꾸고 再統計 하였음.

○ Ⅰ-b型은 母의 가족과 子의 가족이 한 울타리 안의 〈안거리〉와 〈박거리〉 各己 別居하는, 事實上의 核家族임.

○ 廣坪部落의 Ⅰ-b型에는 母가 子의 집 이웃에 別居하면서 子의 가족으로 登錄되어 있는 것도 包含되었음.

○ 廣坪 部落이나 吾羅三洞의 Ⅱ-b型에는 完型은 없고, 父缺 또는 母缺의 가족만 있음.

〈表5〉는 그 差異를 明示하여 준다. 거듭 말하거니와, Ⅰ型은 核家族이고, Ⅱ型은 直系家族이다. 그중 Ⅰ-b型은 公簿上으로는 1家族으로 登錄하여 對外的으로는 1個家族으로 自處하면서 實際는 2個의 核家族으로 分離되어 있는 것이요, Ⅱ-b型은 父 또는 母 어느 一方만이 生存하여 자식의 扶養을 받는 直系家族이다.

〈表5〉를 檢討해 보면 Ⅰ-a型의 核家族은 어느 마을이나 그 率이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Ⅰ-b型 곧 한 울타리 안의 두 개의 親子間 核家族은 牛

島에는 없다. 이 家族은 牛島에서는 Ⅱ-a型 곧 直系家族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울타리 안에서 親子가 부엌을 따로하여 別居하지를 않은 것이다. 이런 類型은 廣坪部落이나 吾羅三洞에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Ⅱ-b型도 牛島가 다른 두 部落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그래서 牛島는 直系家族이 近 40%나 實現되고 있는 것이다. 廣坪部落이나 吾羅三洞은 直系家族이 不過 7.7%, 4.2% 밖에 안 되는 것에 比하면 牛島의 家族類型의 特性은 이 直系家族의 많음에 있다.

이 事實을 어떻게 解釋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濟州本島의 경우, Ⅰ-b型 곧 父母의 家族과 子息의 家族이 實際는 別途의 核家族生活을 하면서도 公簿上 1個 家族으로 登錄하고 對外的 社會的으로 同一 家族임을 自處하고 있는 意識을 分析할 必要가 있다. 이는 直系家族的 意識이다.

가령, 아들을 結婚시켜 〈박거리〉에 別居를 시작했다 하자. 이 아들의 夫婦는 부엌을 따로 하여 別個 家族生活을 하지만, 새로운 살림이니만치 아직 社會的인 家口으로서의 權利 義務를 遂行할 만큼 成熟하지 못했다. 이를 〈어린 살림〉이라 한다. 〈어린 살림〉이므로 父母는 아들의 家族도 自身이 扶養하는 同一家族이라 하여 社會的으로 代表하여 나선다. 또, 아들 家族이 人員으로나 經濟面으로나 커져서 所謂 〈촌살림〉이 되고, 父母의 家族은 父·母 어느 一方이 死亡하고 子女들은 結婚하여 나가고, 그래서 人員, 또는 經濟面에서 不具的인 家族이 되어 가면 아들의 家族은 든든한 큰 살림이 되어 간다. 이 때에는 어버이 家族이 獨立 別居生活을 하고 있더라도 아들은 扶養의 義務를 느끼게 되고, 對外的, 社會的으로는 同一家族이라 하여 自己가 家長으로서 代表하여 나서는 것이다. 이런 事實은, 實質的으로는 核家族을 形成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直系家族 意識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하고 보면, 牛島의 경우는 이 直系家族意識이 濟州本島의 경우보다 現實的으로 많이 實現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問題는 牛島의 경우, 濟州本島보다 直系家族이 월등히 많이 實現된 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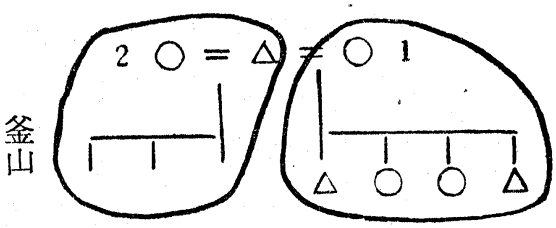
因이 무엇인가가 있다.

아마도 이는 牛島의 生業의 特性에 一要因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牛島는 漁業, 特히 海女의 裸潛漁業이 盛하여 5·60歲의 老女나 14.5歲의 少女까지라도 自己의 生活費는 넉넉히 벌어 들인다. 家族이 많으면 그만큼 勞動力이 많아 家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老母나 未婚의 누이가 아들의 家族과 같은 家族을 이루고 있어도 經濟的인 갈등 같은 것이 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理由에서 直系家族이 많이 實現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假說의 하나에 지나지 않은다.

4. 妻·妾의 家族

牛島에서는 한 남자가 부인을 여럿 거느리는 일이 많다고 말해주는 이가 있었다. 調査結果 下牛目洞의 경우, 妻·妾關係의 家族을 두 개 發見할 수 있었다.

No. H—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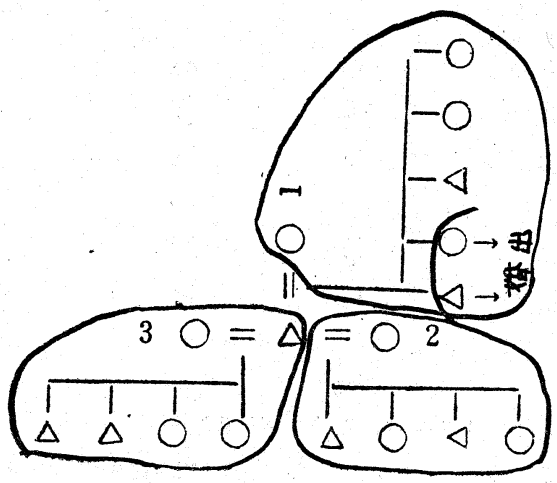


No. H—60은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2男 2女를 낳고, 다시 둘째 부인을 얻어 子女를 낳으면서 現在 釜山에 가 살고 있다. 첫째 부인 家族에게는 왔다갔다 한다.

No. H—29는 첫째부인에게서 2男 3女를 낳고,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 2男 2女, 셋째부인과의 사이에 2男 2女 합계 6男 7女를 얻은 가족이다. 세 부인은 각각 그녀의 가족을 거느리고 獨立 世帶를 이루어 있는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No. H—29



데, 男便은 現在 셋째 부인과 같이 登錄되어 이 부인과 同居하며, 나머지 두 부인 집에 왕래한다.

이 妻·妾關係家族에서 發見되는 것은 모두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子女가 있는데도 둘째, 셋째의 부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娶妾의 目的이 得男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濟州島內 一般的인 娶妾은 得男을 위한 것이 많은데 下牛目洞의 事例는 이와 性格이 다른 것이다.

한 男子가 부인을 여럿 할 수 있다는 것은 女人들이 海女이므로 男便의 扶養이 없어도 부인의 海女收入으로 子女를 充分히 扶養할 수 있다는데 一要因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男女의 性比도 한 要因이 아닌가 생각된다. 參考로 性比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6〉이 보이는 바와 같이 實居住者의 性比는 女子 100人에 대하여 男子 78.5이다. 1972年末 濟州道 統計年報에 나타난 濟州道의 性比는 91.5, 70年度는 92.0, 68年度는 91.2, 65年度는 89.0 더 올라가 62年度는 86.5이다. 道 全体의 性比에 비하면 牛島의 그것은 매우 낮은 것이다.

한편 下牛目洞의 婚姻狀況을 보면 約 90%의 男子가 牛島(演坪)內의 女

〈表 6〉 上·下牛目洞의 性比(實居住者)

年令	男	女	性比 (女 100人에 對한)
0 — 10	60	65	
11 — 20	77	90	
21 — 30	40	37	
31 — 40	23	25	
41 — 50	17	27	
51 — 60	11	28	
60 以上	7	27	
計	235	299	78.5

子와 혼인을 맺고 있다. 이것도 參考가 될 資料이다.

5. 養子 · 養女

韓國의 養子制度는 아들이 없을 경우, 父系 近親에서 아들과 同行(동항)의 親族을 養子로 데려 財産과 祭祀를 相續하고 家系를 잇는 것이 一般이며, 養女制度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牛島에는 이와 다른 養子, 養女가 있다. 이것을 養子, 養女라 할 수 있는지는 더욱 檢討가 必要하나, 우선 便宜上 養子, 養女라 불러두기로 한다. 위의 諸 統計에는 이들을 모두 家族으로 處理하였다.

部落民들의 提報를 종합하면 養子·女의 形成과 觀念은 이러하다.

① 海女들이 육지(本土)에 出稼 나갔을 때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얻어먹으러 자주 온다. 이런 아이들은 데려오는데, 아이의 父母와 打合하여, 데려다 戶籍에 入籍시키고 친 자식과 같이 기르겠다는 것을 約束하고 데려온다. 데려 올 때 아이의 값을 支拂하는 일은 없고, 쌀 말이나 아이 옷등을 선물로 사 드리는 일은 있다.

② 데려오는 아이의 年令은 보통 5살~10살이다.

③ 데려오는 아이는 거의 女子아이인데 가끔 남자아이도 있다.

④ 데려오면 戶籍에 姓을 바꾸어 子로 入籍시키고 養育하며 집안의 신부름, 아기 업저지 일등을 시킨다.

⑤ 養父母들은 친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父母 같이 생각하여 父母라 부른다.

⑥ 데려온 후, 학교에 就學시킨 이도 있고, 아니시킨 이도 있다.

⑦ 어릴 때는 주위에서 〈아기업개(아기 업저지)〉 라고 차별하여 나무라는 일이 있으나, 커나면 존중하여 그런 말을 아니하고 주위에서 감싸준다. 그런데, 自身이 劣等意識을 가지고 差別함을 드러내는 수가 있다.

⑧ 成長하여 海女로서 出稼 나갔다가 生父母를 찾아 만나지만 대개 養家로 돌아온다.

⑨ 海女일을 하여 번 돈은 養父母가 모아 두었다가 결혼시켜 주고 그 돈은 내어준다.

⑩ 生父母가 딸을 찾으러 왔다가 잘사는 것을 보고 그대로 간 일이 있으며, 딸도 가지 않겠다고 해 남은 일이 많다.

⑪ 전에는 養女가 50餘名 있었는데, 경찰이 유괴가 아닌가 조사한 일이 있어, 가기를 희망하는 자는 모두 돌려보내고 現在는 여기 살기를 희망하는 자만 남아 있다.

〈表 7〉 **牛島의 養子·女 現況**

年令	養子	養女	計
10 — 14		3	3
15 — 19		7	7
20 — 24	1	14	15
25 — 29		3	3
30 — 34	3	1	4
35 — 39	1		1
40 — 44	1		1
計	6	28	34

(19) 전에는 男子아이도 데려왔었는데, 兵役, 財産相續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제는 보통 아니 데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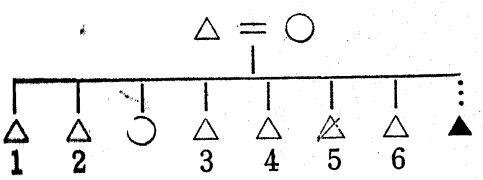
以上과 같은 養子·女의 現況을 牛島全体에 걸쳐 調査한 바, 調査된 現況은 〈表 7〉과 같다. (여기엔 漏落이 勿論 있을 것이다.)

〈表7〉에서 보듯, 養子는 6人, 養女는 28人이고, 養子의 경우 年令은 30歲以上에, 養女의 경우는 25歲 以下가 많다.

이제 그 事例들을 몇 개씩만 들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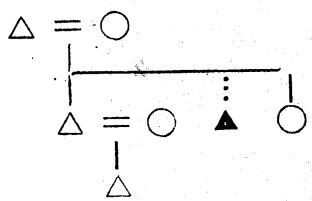
1. 養　子

〈No.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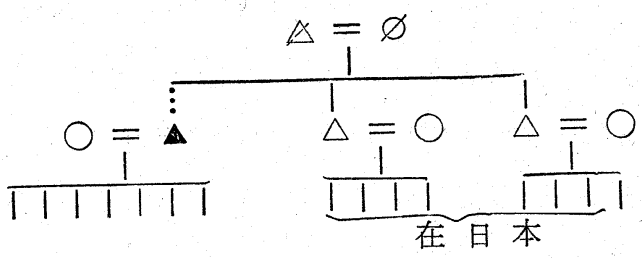
다른 事例도 아들이 있는데 養子를 데리고 있지만, No. 2는 아들이 6男까지 있는데 養子를 데리고 있어, 아들을 얻기 위한 養子가 아님을 明白히 말해 준다.

〈No. H—54〉



No. H—54는 養子가 不具者이다. 아들이 있는데도 데리고 있다. 不具者이기 때문에 學校를 가거나 軍人을 가거나 하는 일 없이 집안일을 잘 할 것이기 까닭에 데린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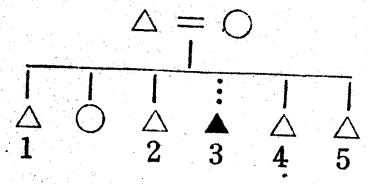
〈No. 21〉



No. 21은 父母는 死亡하고 형제들은 둘이 있는데 모두 日本에서 잘 살고, 養子는 결혼하여 七兄妹를 낳고 여기 살고 있는 例다. 父母들은 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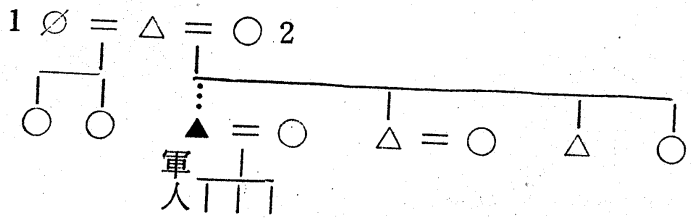
들에게 相續할 만한 財産이 없었으니, 財産相續에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 現在는 日本에 있는 형제들의 버은 田地가 여기 있는데 養子인 本人은 이 田地들도 모두 管理하며 祖上의 祭祀, 墓所의 伐草등을 한다.

No. 7



No. 7은 圖示와 같이 飛揚洞 K氏의 3男으로 戶籍에 入籍되어 있으나, 實地 養子로 데려온 사람은 下牛目洞의 Y氏요, Y氏의 집에서 일하며 養育되었다. 그런데 K氏의 子로 入籍을 시킨 理由는 財産相續 등 問題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即 Y氏의 子로 入籍시키려면 年令上 長男으로 入籍시켜야 하고, 그러면 財産 其他 長男으로 待遇해야 하기 때문에. Y氏는 親知의 戶籍에 3男으로 入籍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養子인 本人은 이것이 不滿이어서 長期 出他하여 돌아오지를 않은다 하며, 公簿上에는 長期 出他 및 住所不明으로 職權抹消가 되어 있다.

No. 27



No. 27은 첫째 부인이 딸 둘을 낳고 死亡하자, 둘째 부인을 맞아들였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가난한 집 자식을 데려다 길렀다. 그 후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도 養子를 長男으로 待遇하여 財産과祭祀를 相續하고, 養子도 父母를 生父母나 다름 없이 생각하여 孝道한다.

以上에서 보아, No. 27 例는 特殊한 것이고, 一般的인 入養動機는 家系의 繼承에 있는 것이 아니라, 勞動力의 獲得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의 一般的 槪念의 養子와는 다른 것이요, 머슴보다는 優位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머슴制度가 養子처럼 優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養　女

養女 28事例中 22個 例는 子로 登錄이 되어 있고 6個 例는 同居人으로 登錄되어 있다.

그 家族構成들을 보면 모두 아들 딸들이 갖추어 있는 正常的인 가족들이다. 일일히 事例를 분석할 必要도 없이 이 養女는 勞動力의 獲得에 그 動機가 있는 것이다. 女子아이는 데려오기만 하면 집안의 잔 심부름을 할 뿐 아니라, 14·5歲만 돼가면 해녀일을 해서 家庭經濟에 收益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서 내보낸 후도 여인은 出嫁外人이니, 그 집안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로운 영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家族側는 〈아기업게(아기 업저지)〉 곧 食母와 비슷한 것을 戶籍에 入籍시키고 자식처럼 優待하는 形態라 할 수 있다. 자식처럼 優待한다고는 해도 學校就學에 친딸과 차별이 있으며 統營, 莞島등으로 退去하여 있는 자가 여럿 있는 것을 보면 亦是 差別 待遇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든, 濟州本島에는 現在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양자·양녀제가 있는 것은 牛島家族의 한 特性이다.

註

1) 1972年度『제주도통계연보』
2) 佐藤信行「濟州島の家族と親族－O村の事例－」『アジア文化研究』7 國際基督敎大學 1973

海　女

차　례

1. 牛島와 海女
2. 作業·採取物
3. 海女出稼
4. 海女器具 및 收益

1. 牛島와 海女

제주도 해녀는 世界的이다.

제주도에서도 牛島는 海女作業이 極盛한 마을의 하나다. 牛島의 여인들은 모두가 해녀라 해도 過言이 아니며, 이들은 다들 農業을 兼하고 있다. 농사를 안 짓는 純漁業家庭은 各洞에 2·3戶 정도에 不過하다니 牛島內 거의 모든 가정이 農事를 지으며 그 가정의 여인들은 모두 裸潛漁業에 종사한다.

牛島의 海女數는 얼마나 될까? 牛島 漁村契의 統計에 따르면 1973年 7月末 現在 裸潛漁業者, 곧 海女數는 896名으로 나타났다. (社會背景 〈表9〉 參照) 그러나 실제는 每家戶마다 해녀가 平均 2名씩은 거의 있는 셈이니 牛島의 海女數는 1,300名 쯤은 되리라고 推算된다. 이 推算은 곧 住民들과의 조사에서도 確認된다.

牛島의 海女數는 차라리 年年 漸增一路에 놓여 있기는 했어도 줄어드는 편은 아니다. 牛島는 우뭇가사리·넓미역·미역·전복·소라등 海藻類와

貝類가 多量 生産되는 黃金漁場을 이루고 있기 때문, 그들의 收益이 괜찮다. 우뭇가사리는 近 一世紀 동안 제주도 해녀들이 즐겨 出稼하는 慶北 九龍浦·甘浦·良浦 三個 漁組 管內 第一種共同漁場에서와 同質의 것이 生産되는가 하면, 下牛目洞 앞바다 一帶를 중심으로 제주도에서도 唯一한 넓미역 바다를 지니고 있으며 소라·섬개등도 良質이다.

그러니까 牛島 여인들은 대체로 確固한 職業觀을 가져 있는 듯했다. 海女作業에 대해 그들나름의 自矜과 自慰를 느끼고 있어 이를 改變하려는 意識은 별로 없다. 첫째 他律的인 時間制約 없이 사정에 따라 作業할 수 있다는 점, 둘째 作業함에 있어 어떤 면에서도 남의 간섭 없이 恣意的으로 始終할 수 있는 점, 셋째 作業上 所要經費가 극히 微微하다는 점에서다. 他職業으로 改變하려는 意識이 別無한 점은 제주도내 어디서나 비슷할 것이니 넷째 설령 職業轉換을 하려 해야 이보다 收益 높은 일이 주변에서 얼른 찾을 수 없다는 것도 理由의 하나일 수 있다. 海女作業에 대한 職業觀이 牛島처럼 黃金漁場을 지녔을 경우에는 여느 海岸部落보다 天職처럼 여기는 율이 짙은 바 있다.

따라서 牛島의 바닷가에는 國民學校 1學年의 어린 소녀들부터 80前後의 老婆까지 몰려들어 裸潛漁業에 열심이다. 어린 소녀들은 자그만 海女器具를 마련하고 벗들과 함께 바다에 몰려 國民學校 3·4學年까지 作業技倆을 익힌다. 여름내내 바다에서 헤엄치며 지껄이는 일은 그들 어린이들로서 다시 없는 喜悅이요, 遊戲的 生活이다. 여름의 바다는 이들의 마당이요 놀이터다. 이들이 자라 5·6學年이 되면 海藻類를 조금씩 採取하는데 하루 平均 100~300원의 收入을 올린다. 어린이들로서는 대견한 所得이요 이로써 제 學費는 마련해 나간다.

이들은 자라면서 下軍(하줌수)이 되고 中軍(중줌수)·上軍(상줌수)이 된다. 本土로 出稼하여 벌어들이기도 한다. 한 가구안에 成熟한 해녀가 2名 이상이 있게 되면 家計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뻔한 일, 그러니까 좀 지나친 表現이긴 하지만 〈아들은 나면 애 엉덩이를 쳐때리고 딸은 나면 돼지 잡아 잔치한다〉는 말까지 전해온다. 裸潛漁業을 통한 여인들의 勞

動力은 牛島의 경우 절대적인 收入源인 것이다.

2. 作業과 採取物

海女들의 裸潛漁業方法은 本島에서나 마찬가지다. 牛島一帶를 통틀어 〈뱃물질〉하는 例는 없고 다들 〈ᄀᆞᆺ물질〉이다. 〈ᄀᆞᆺ물질〉이란 바닷가에서 그냥 헤엄쳐 나가 海女作業하는 경우를 말한다.

第一種共同漁場, 곧 海女漁場은 11個洞別로 分割되었다. 元來는 牛島全域漁場이 牛島民이면 누구나 入漁할 수 있도록 共同所有였으나 解放後 各洞別로 分割되었는데, 당초의 分割趣旨는 바닷가에 떠오르는 屍体處理와 道路補修를 分擔하자는 데 있었다.

境界線은 〈ᄀᆞᆷ〉이라 불러우고 그 標識方法으로는 海岸 岩石에 도끼로 찍어 놓은 점과 〈여〉(海中岩礁)와를 直線으로 連結한다. 境界線에 이용되는 〈여〉를 〈ᄀᆞᆷ녀〉라 부른다.

濟州本島의 수많은 海岸마을과 마찬가지로 牛島의 洞과 洞 사이에는 漁場紛糾가 가끔 인다. 1965年의 飛揚洞과 迎日洞(後海洞)의 紛糾가 한참 떠들썩한 바 있었으며 1971年 이후에는 迎日洞 앞 〈너런지바당〉의 入漁를 둘러싼 말썽이 法廷에까지 번졌었다.

말하자면 迎日洞 앞 〈너런지바당〉에는 종전에 이웃部落인 東天津洞, 下牛目洞, 周興洞, 上古水洞, 下古水洞등의 海女들이 入漁해 왔었으나, 1971年 8月 迎日洞에서는 이들의 共同入漁를 막아버림으로써 紛爭이 일어났다. 水產物 輸出增大로 收益이 좋아지고 海女服이 改良되면서 多量採取가 可能한데서 이 紛爭은 激化되었다. 드디어 迎日洞 洞民들은 濟州地法에 1973年 12月 東天津洞等 5個洞을 상대로 〈入漁出入禁止等 假處分申請〉을 내기에 이르렀었는데 1974年 1月 濟州地法에서는 牛島漁村契는 單一漁村契이므로 漁村契 構成員이면 入漁를 規制할 수 없다고 判決함으로써 迎日洞 이웃 海女들의 入漁가 可能하게 됐다.

이것은 第一種共同漁場 紛糾의 한 例이지만 이런 紛糾는 대체로 미역

解禁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역 解禁時에는 우선 그〈곰〉에서부터 採取하기 시작한다. 만약 듬북 따위가 이 〈곰〉으로 바람때문 밀려 왔을 때는 두 동네가 한꺼번에 採取한다.

동네에서의 入漁權은 그 동네의 住民이면서 해마다 9月末에서 11月中旬에 걸쳐 實施되는 개닦기에 參與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닦기란 海底의 雜草除去作業인 바〈바당풀 캔다〉고들 말하는데 이는 洞民들의 徹底한 義務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0回~40回의 作業을 해야 하는데 各洞 靑年會에서 住民을 召集·主導한다. 迎日洞·錢乞洞 같은 부락은 東北風 받이여서 海底雜草가 잘 안자라지마는 東天津洞等은 바다가 깊으므로 오랫동안 힘들여 개닦기를 해야 한다. 이 개닦기는 全家口의 철저한 義務임은 물론이지만 60才가 지난 老婆에게는 이 義務를 免除한다든가, 개닦기 不參者에게는 3,000원~5,000원의 入漁料를 징수한다든가 개닦기作業期間中 不參日數에 대한 入漁料도 징수하는 등의 細部規定은 洞別로 좀 다르다.

牛島의 女人들은 年中無休 농사와 겸해서 海女作業에 당한다. 本格的인 海女作業이 시작되는 年令은 실제 조사결과를 統計하면〈表1〉과 같다. 말하자면 15·6才 前後해서 海女作業을 시작하는 셈이다.

이들의 月別作業日數·1日潛水回數 및 1日平均所得을 統計로 보이면 〈表2〉와 같다. 月間平均 作業日數가 10日 이상에 이르는 期間은 4月~9月이니 역시 봄 여름이며 1日 平均 潛水回數가 2回 內外에 이르는 기간은 3月~10月 사이다.

〈表1〉 海女作業始作年令 ◉ 對象:牛島 海女 ◉ 1973年 8月 調査

작업시작연령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비고
인원	2	1	1	0	2	14	7	1	6	6	1	평균연령 15.2

1日 平均所得 통계는 조사에 임해 보면 실제 액수보다 항상 줄여 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지 못하다. 平均所得이라 하지만 평균以下로 드러났을 것이다. 어차피 冬季 12·1·2月 3個月間의 所得이 가장 낮고 나머

지는 비슷비슷하다. 4月의 平均所得이 높은 이유는 4月 中旬쯤에 미역 解警을 하기 때문이다.

〈表2〉 月別 作業日數·1日 潛水回數 및 1日 平均 所得

◉ 牛島海女對象
◉ 1973年 8月 調査

月別	月間 平均作業日數	1日 平均潛水回數	1日 平均所得
1	4.4日	1.1回	420원
2	6.8	1.2	370
3	7.3	1.8	590
4	10.2	2.0	1010
5	12.5	1.9	780
6	13.7	2.1	820
7	16.5	2.2	720
8	15.0	1.9	790
9	14.0	1.7	820
10	9.7	1.7	820
11	4.7	1.3	570
12	6.6	1.3	430

미역 解警은 그 日字가 해마다 다른데 漁村契 主導로 會合, 決議, 施行한다. 牛島內에서는 보통 〈허채(許採)〉라 말하는 이 解警日부터 1週日間이 섬의 바닷가는 미역 採取의 人波로 온통 들끓는다. 解警하는 날에는 모든 海女들의 公平한 採取를 위하여 入出漁를 定한 시간에 일제히 시킨다. 그 信號로서는 白色旗·나팔·貝類고동등을 이용한다. 나이 어린 少女에서부터 80高令의 老婆까지 바다에 몰리는가 하면, 남자들은 女人들이 캔 미역을 져 나른다고 아우성이다. 다른 漁村도 비슷하겠지만, 이 미역 解警 후 1주일간 家口마다 家計에 도움될 만큼 收入을 올린다.

6月中下旬이 되면 넓미역이 또 解警된다. 作況과 날씨에 따라 試驗採取해 본 다음 解警日字가 決定되는데 그 決定은 漁村契가 主管하고 各 洞長과 關係機關長이 會同, 合議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때에는 7月 中下旬이 돼야 解警하는 수도 있다. 解警이 되면 下牛目洞 앞바다에는 100餘隻의

낚싯거루가 몰려들어 1週餘 그야말로 壯觀을 이룬다. 牛島의 낚싯거루를 비롯하여 終達·始興·城山·禾北·爲美等地에서 몰려든 이 배들은 갈쿠리로 넓미역을 採取하는데 〈넓미역 건진다〉 고 말한다. 海女들은 海女들대로 15m~20m 水深으로 潛入하면서 넓미역을 캔다. 一般海女作業과 마찬가지로 〈맨몸질〉 로 캐는데 家族들도 일제히 바닷가로 몰려 캐어 놓은 넓미역을 〈바지개〉 로 져 나르고 1m쯤으로 자르면서 바닷가 잔디 위에 널어 말린다. 긴 넓미역은 6m 이상인 것도 있으므로 5·6매로 쪼개 말리기도 한다. 햇볕에 2·3시간 말리면 充分 乾燥하는데 그새 비가 내릴 때면 이를 반으로 접으면서 그 腐敗를 막는다. 넓미역 採取는 解警해서 1週日이 대목인데 이 대목에는 밤새며 採取하는 경우도 많다. 아니면 동이 트자 바닷가로 몰리는데 朝飯은 아예 어린이들이 짓고 바닷가로 져 나른다. 1969年 7月末 조사 나갔을 때는 마침 넓미역 철이었다. 그 해엔 넓미역 解警이 늦어져 7月 27日부터 採取한다는데 各處에서 몰려든 배가 下牛目洞 앞바다에 주욱 즐비해 있는데다 넓미역 캐는 海女들, 이를 말리는 아낙네들, 져 나르는 남정들, 食事를 나르는 등 뒷바라지하는 어린이들로써 바다와 바닷가는 온통 뒤덮여 그야말로 오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었다. 이 넓미역철에는 소라·전복따위를 일체 캐지 않는다. 말하자면 넓미역 採取에만 쏠려서 이른바 〈헛물질〉 을 하지 않기 때문 自炊를 하는 우리들은 그 副食을 城山浦로 나가 사들여 와야만 했던 것이다. 〈넓미역〉의 對稱으로 一般미역을 〈춤미역〉 養殖미역을 〈줄미역〉 이라 부르고들 있는데 莞島地方等에서 요즈음 〈줄미역〉 이 多量生産되는데다 우뭇가사리·섬게따위는 對日輸出하기 때문, 高價인데 비해 넓미역은 값이 낮기 때문 1972~1973年度에는 넓미역 採取에 별로 열을 올리지 않는 편이었다.

牛島에서는 慶北 九龍浦·甘浦·良浦地方이나 다름 없는 良質의 우뭇가사리가 多量 生産된다. 제주도내 어딧産보다도 良質이기 때문, 도내 他地方産과는 區分 販賣되며 그 委販量, 委販高는 全道의 2분의 1에 肉迫한다. 그것은 다음의 〈表3〉 을 보더라도 곧 理解할 수 있다. 이 우뭇가사리는 4月~10月 사이에 採取되는데 海女들은 이 期間에 섬게도 딴다.

〈表3〉 牛島產 우뭇가사리 委販高

◉ 資料：水協濟州道支部

年度	委販數		委販金額	
	牛島	全道	牛島	全道
1972	1272俵	2465俵	25,361,000원	45,816,000원
1973	1451	3150	46,308,000	94,134,000
全道對牛島 1973對比(%)	46.1	100	49.2	100

※1俵=48kg

여름에 바닷가로 감태가 바람에 몰려들면 이를 채취하며 여름에는 또한 청각도 캔다. 가을과 겨울엔 소라·전복·해삼따위를 採取하는데 이른바 〈헛물질〉 만 한다. 이리하여 年間 重要採取物을 月別로 보이면 〈表4〉 와 같다.

〈表4〉 月別重要採取物

◉ 牛島海女對象
◉ 1973年 8月 調査

月別	重要採取物
1	소라·전복·해삼·톳
2	소라·전복·해삼·톳
3	소라·전복·해삼
4	미역·우뭇가사리
5	미역·우뭇가사리·섬게
6	우뭇가사리·넓미역·섬게
7	넓미역·우뭇가사리·섬게·청각·감태
8	우뭇가사리·섬게·소라·전복·청각·감태
9	소라·전복·섬게·청각
10	소라·전복·해삼·섬게
11	소라·전복·해삼
12	소라·전복·해삼

3. 海女出稼

濟州本島에서와 마찬가지로 牛島 海女들도 出稼를 한다. 年年 600~700名이 出稼하는데 그 出稼對象地는 一定치 않다. 日帝時代에는 對馬島를 비

롯하여 日本 各處에도 出稼했었으니 지금도 對馬島에는 몇 家口의 牛島民들이 漁撈作業에 종사하면서 定着生活을 하고 있다. 지금 이들의 出稼는 慶北 迎日灣 一帶와 巨濟島等 慶南地方 黑山島等 全南 島嶼地方等等 各處로 나가는데 보통 3月末 出稼하여 8月末 歸鄕한다. 그 出稼人員은 그 해 牛島 海產物의 作況如何에 따라 해마다 增減한다.

40歲 이상의 男子들은 皆擧가 風船이나 發動船을 갖고 本土 各沿海나 日本地方으로 漁撈出稼를 했었으니 牛島內에는 出稼와 無關한 家庭이라고

〈表5〉 出 稼 始 作 年 令

◉ 對象：牛島海女
◉ 1973年 8月 調査

출가시작연령	15	16	17	18	19	20	21	22	23	비고
인 원	2	1	5	16	21	11	5	2	1	평균연령 18.9세

는 거의 없는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出稼를 시작하는 연령은 18·9세다. 出稼回數는 물론 年令이 짙어감에 따라 늘어나게 마련인데 40代初의 海女를 대상으로 한다면 3回 내지 5回의 出稼經驗을 가지고 있다. (〈表6〉 參照)

〈表6〉 牛島 海女들의 國內外 出稼狀況

◉ 牛島海女 46名 對象(16才~60才)
◉ 1973年 8月 調査

國內外區分	國內										日本			中國
出稼回數	1	2	3	4	5	6	7	8	9	10	1	4	5	1
出稼人員	4	8	10	5	10	1			2	1	2	1	1	1

下牛目洞의 한 老姿는 18歲時 遼東半島 大連까지 風船으로 20日間이나 걸리며 出稼한 일을 嚆矢로 하여 咸南 長津까지 16日間 航海하며 出稼했었고, 이어서 九龍浦·甘浦·항구포·仁川·蔚山·方魚津·동지포·하포·機張·여리개(機張옆)·나발도·적개(나발도 밑)·숙섬·甫吉島·靑山島等을 近 40年間 나갔었던 경험을 지니고 있으니 南韓 沿岸一帶를 거의 누비다시피 했던 것이다.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迎日洞의 金 昌娘 女人(59歲)는 17歲때부터 出稼하기 시작하여 對馬島에 줄곧 나가다가 南海·三千浦·機張·牛鶴里·巨濟島·閑山島等에 출가했었으며, 같은 洞의 韓 順玉女人(54歲)은 16歲에 機張으로 出稼하기 시작하여 連三年 機張을 드나들다가 19歲에 日本 九州로 건너가 海女生活을 했는가 하면, 20歲 때엔 四國에서 作業하다가 大阪에서 8年間 定着하여 물질하는 도중 해방을 맞자 歸鄕, 巨濟島에서 12年間 出稼生活하는 등 起伏 많은 歷程을 거쳤었다.

그 出稼過程이나 出稼生活은 濟州本島의 出稼海女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出稼地에서는 3~4人이 一組가 되어 집을 얻고 自炊하는데 솥따위 炊事道具는 가져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사 쓰다가 歸鄕할 때 同宿하던 한분이 代金을 計算하여 所有하기도 한다.

出稼生活中 月間 平均作業日數 및 一日 平均潛水回數는 〈表7〉 〈表8〉과 같다.

〈表 7〉 **出稼生活中 月間 平均 作業日數**

◉ 牛島海女對象
◉ 1973年 8月 調査

月間平均作業日數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人員	4			13	1	2	5	2	53	3	5	6		42		2	2		1

〈表 8〉 **出稼生活中 一日平均 潛水回數**

◉ 牛島海女對象
◉ 1973年 8月 調査

一日平均潛水回數	1	2	3	4	5	6	7
人員	2	25	58	39	11	3	3

平均3.4回

出稼期間中 보통 當地 農家에 投宿하는데 바다에 못 나가는 날은 바느질, 뜨게질 따위를 하거나 雜談과 노래로써 즐긴다. 가끔 집주인의 農事, 곧 김매기·보리베기·秋收等을 돕기도 한다. 이들은 5個月間 出稼作業의 결과 5만원~20만원의 收益을 얻고 歸鄕한다. (〈表9〉 參照)

〈表 9〉 出稼期間中 1人當 所得

◉ 牛島海女對象
◉ 1973年 8月 調査

年度	1971			1972					1973			
所得額(萬원)	5	7	10	4	7	8	11	15	5	10	15	20
人員	1	2	3	2	1	1	1	1	4	4	1	1

이들은 出稼生活을 하는 도중, 現地 住民과의 로맨스를 낳고 가끔 結婚까지 이끄는 경우가 있다. '70年에도 下牛目洞의 出稼海女가 靑山島 住民과 2名이나 結婚했다는데 물론 結婚式은 그곳에서 치러지며 고향의 父母들은 한결같이 反對한다. 따라서 結婚式에도 親庭父母는 不參하며 애 낳기 앞서 本人들은 故鄕을 찾지 않는다.

4. 海女器具 및 收益

現用 海女服과 海女道具를 조사, 集計해 보니 〈表10〉과 같이 나타났다. 아직도 海女服인 경우, 고무服을 마련 못한 海女가 4분지 1쯤 된다는 것뿐, 눈·망사리·테왁은 모두가 〈왕눈〉·〈나이론망사리〉·〈나이론테왁〉으로 바꾸어졌다.

〈表10〉 現用海女服 및 海女기구

◉ 牛島海女 77名 對象
◉ 1973年 8月 調査

種類	在來服·器具	改良服·器具
물옷(海女服)	19	58
눈(水鏡)	1	76
망사리(繩網袋)	—	77
테왁(浮瓢)	1	76

備考：海女服{ 在來服 / 改良服～고무服
水鏡{ 在來水鏡～족세눈(小型雙眼鏡) / 改良水鏡～왕눈(大型單眼鏡)
망사리{ 在來망사리 / 改良망사리～나이론망사리
테왁{ 在來테왁～콕테왁 / 改良테왁～나이론테왁



〈 作業을 마치고 돌아가는 어린 海女들 〉

水鏡은 25年前, 망사리와 테왁은 5, 6年前. 大幅 交替되었으며 海女服은 3年前부터 고무服으로 바뀌지기 시작했다. 故 金 泰圭氏에 의하여 牛島內에서도 〈왕눈〉이 제작되었었다 하니 역시 牛島는 海女의 섬임을 말해 주는 것인데, 6·70年前 水鏡 없이 작업했던 事例를 이곳에서는 가끔 들을 수도 있다. 곧 中央洞의 梁 昌月(女·74) 老婆의 말에 따르면 그가 열살 때쯤 애 업고 바닷가에 나가 보면 그때야 水鏡이라는 게 생겨서 눈 쓴 사람과 눈 안 쓴 사람 사이에 옥신각신 紛爭하던 光景을 目擊한 일이 있다는 것이다. 下古水洞 金 允一氏 母親 역시 70年前 水鏡 없이 作業하던 경험이 있다는 것인데 水鏡을 안 쓰고도 하루에 〈튼줌북〉(껍질을 따버린 전복)한 말씩은 캘 수 있었다 한다.

水產資源이 유달리 豊富하고 裸潛漁業이 極盛한 牛島의 경우, 그 年間 漁獲高는 얼마나 될까? 舊左面演坪出張所의 集計에 따르면 68年의 경우 약 1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그 87%가 貝類·海藻類에 따른 收入이니 牛島의 水產業은 전혀 海女들에 의해서 左右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表11〉 參照)

(表11) **1968年度 漁獲高** ◉ 資料：舊左面演坪出張所 ◉ 1969年 8月 調査

類別	種別	漁獲量	單價	金額
貝類 및 海藻類	생복	6t	212,500원	1,275,000원
	소라	30	16,300	489,000
	미역	18	112,000	2,016,000
	톳	72	24,600	1,771,200
	넓미역	30	64,000	1,920,000
	우뭇가사리	24	121,600	2,918,400
	감태	120	8,500	1,020,000
	小計	324		11,409,600
魚類	雜魚	18	66,500	1,197,000
	저립	3	128,000	387,000
	小計	21		1,581,000
合計		345		12,990,600

그러나 〈表12〉에서 牛島里民의 年間 所得推計를 보면 水產物에 따른 소득은 農產物에 따른 所得의 3분의1밖에 안된다.

農土는 瘠薄하고 水產物은 質量으로 優勢한 편이긴 하지만, 역시 농사는 민간생활방편의 基底를 이루고 있음은 牛島의 경우 역시 例外일 수는 없는 것이다.

〈表12〉 **牛島里民의 年間 所得推計** ◉ 資料：舊左面 演坪出張所 ◉ 1969年 8月 調査

所得源	年間總所得
農產物	39,454,980원
水產物	12,990,600
畜產物	2,849,200
其他	7,680,000
總計	62,974,780
戶當 收入 平均	93,900

끝으로 調査票를 통한 現地調査에 極力 協助해 준 演坪中 강 영숙교사에게 深謝하며 여기 다룰 수 없었던 많은 조사 결과의 整理는 後日로 미루어둔다.

說　　話

說話傳承者
高 泰 柱 (男·)　金 致 錫 (男·69)
姜 孔 汝 (男·66)　金 基 玉 (男·51)
金 昌 信 (男·68)　金 應 錫 (男·62)
梁 星 柱 (男·63)

目　次

1. 牛島傳說의 槪觀과 特色
2. 「牛島」와 「演坪」 그 名稱의 由來
3. 人物에 關한 傳說
 1) 섬을 開拓한 金進士
 2) 釜山僉使
 3) 점복할망
 4) 周興洞의 송중이
 5) 孫氏 이야기
4. 部落名에 關한 傳說
 1) 牛目洞
 2) 進士터
 3) 迎日洞(後海洞)
 4) 古水洞
 5) 錢屹洞
 6) 周興洞
 7) 天律洞
5. 地形·地名에 關한 傳說
 1) 의무덤
 2) 답당고슬
 3) 말톡박은 여
 4) 飛揚洞
 5) 보섭봉오리
 6) 망동산과 포제동산
 7) 고양이동산
 8) 돈지당
6. 飮料水에 關한 이야기
 1) 進士통
 2) 양뱅방통
 3) 갈라진 문서방통
7. 後　記

1. 牛島 傳說의 槪觀과 特色

牛島에 있어서의 住民의 歷史는 그리 오래지 않다.

이 섬에 사람의 生活이 定着한 것은 西紀 1800年初의 일인 것 같고, 더

욱 具体的인 史實로는 1844年 甲辰에 進士 金 錫麟이 朝廷의 入住 起耕의 許可를 받고 들어와 이 섬을 開拓하기 始作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니, 이를 起点으로 牛島의 鄕土史를 엮는다면 牛島의 鄕土史는 130年을 넘지 못한다.

端的으로 말하면 牛島의 鄕土史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傳承되어온 傳說이라 하더라도 100年 以內의 이야기들이 그 大部分이라 하겠다.

그리고 1844年에 이 섬에 入住한 사람들이란 大体로 오늘의 濟州市·朝天面·舊左面 곧 濟州牧 사람들이었기에 比較的 知識水準이 높고, 儒教的 風土의 住民들이었기에, 그들의 意識構造 속에서는 興味가 加味되면서 成長하게 마련인 傳說이 잘 培養되지 못하였을 상도 싶다.

그리고 그 先史時代라고 할 수 있는 牧場時代의 傳說도 그렇게 縮小할 수가 없음을 느꼈다.

이러한 風土에서 씨앗 뿌려지고 자라온 牛島의 傳說은 大体로 斷片的임을 免할 길이 없었는가 싶다.

意識的인 創作力이 作用된 豊富한 스토리도 없이 바닷가의 조약돌처럼 天生的이고 素朴하게만 바람과 파도에 부대끼며 딩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牛島는 果然 섬의 섬이어서, 바다와 關聯된, 또는 바닷가와 關聯된 이야기들이 많다.

山이나 바위나 생긴 그 모양을 그대로만 보지 않고 어떤 動物이나 其他 여러 對象에 類推하여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牛島는 飮料水가 어려운 곳이어서 奉天水를 貯水하는 물통이 到處에 있는 것과 같이, 이 飮料水인 물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음도, 牛島 住民들이 그들의 生活環境에 適應하는 內面 生活의 反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倭人과 關聯된 이야기가 많음에 놀랐다.

그 이야기들이 斷片的이어서 여기 紹介하기는 最少限에 그쳐두고자 하나 이처럼 倭와 關聯된 이야기가 많음은, 牛島의 地理的 環境과 倭寇의 侵入, 이 倭寇에 對한 牛島民의 생각이 그대로 전설로 빚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보아진다.

上述한 바와 같이 牛島의 傳說은 그 大部分이 斷片的인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傳說이라 하드라도 어느 한사람의 傳承者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사람의 이야기를 綜合한 결과의 이야기일 경우가 많았음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아깝게도 特定된 傳承者의 이름을 部分마다 밝혀두지 않기로 하였다.

2. 「牛島」와 「演坪」 그 名稱의 由來

北濟州郡 舊左面 演坪里는 濟州道의 東端 城山面 城山浦 北方 3.5*km* 떨어진 海中의 孤島인데 이 섬의 名稱을 「演坪」이라 부르기 始作하기는 西紀 1900年 庚子부터요 그 以前에는 이 섬을 「牛島」라고만 하였고 다시 俗稱으로 「소섬」이라 불러오던 곳이다.

오늘도 行政 區域으로서의 名稱은 勿論 「演坪里」라 하고 있지만 一般的으로 牛島란 이름이 더 通用되고 있으며 庶民層에서는 「소섬」이란 이름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牛島」란 名稱의 由來에 對하여 高 泰柱編 「牛島 鄕土誌」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이 섬을 牛島라 함은 섬 모양이 臥牛型, 또는 牛頭型이라 하여 命名된 것인데 소를 放牧하던 곳이라 하였다는 說도 있으나 이것은 다음 사람들이 想像的인 이야기에 不過하다. 소 放牧前부터 소섬이라 하였으니····」 (鄕土誌 p. 3)

이 鄕土誌의 記錄에 따르면 「牛島」라는 名稱의 由來는 섬 모양이 臥牛型, 또는 牛頭型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전에 소를 放牧하던 섬이어서 「소섬」 또는 「牛島」란 이름이 생겼다는 說을 들을 수 있지만 「鄕土誌」에서는 이를 否認하고 오직 地形에서 생긴 名稱이라는 点을 强調하고 있음을 본다.

「牛島」의 地形을 臥牛型으로 說明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섬은 섬이면서도 山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大部分이 農土인 平野로 되어 있는데 오직 섬의 東쪽만이 조금 높은 오름(山)으로 되어 있다. 이 오름이 있는 곳을 俗稱「섬머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섬 全体를 누운 소로 볼 때에 이 山이 있는 곳은 소의 머리型이라는 것이다.

牛島의 東南端, 바다로 突出한 곳이 있거니와 俗稱「광대코지」라고 불리우고 있다.

「섬머리」를 소의 머리로 볼 때에 이「광대코지」는 소의 엉치(臀部)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섬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소와 關聯된 地名이 이 섬에는 여러곳이 있다.

「牛目洞」이란 部落이 있거니와 이는 소의 눈과 關聯된 이름이다. 周興洞과 天津洞의 사이에 있고, 牛島는 섬 全体가 돌이나 모래나 玄武岩의 黑灰色인데, 이「牛目洞」만은 흰 모래여서 멀리서 보아도 눈(雪)과 같이 하이얗다. 이 마을을「牛目洞」이라 하거니와 俗稱「우뭇개」로도 불리운다.

「계우마루」라는 곳이 있다.

이 섬은 섬의 東쪽 끝인「섬머리」(島頭峯)를 除外하고는 平地로 되어 있거니와 섬 全体로 볼 때에「섬머리」를 除外하고는 가장 높은 곳인데, 이는「섬머리」를 소의 머리로 본다면, 소를 밧줄로 매어 놓은 말뚝을 박은 곳이 된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계우ᄆᆞ리」라고도 하거니와「계우」는「擊牛」요 一名「쇠맨ᄆᆞᆯ랭이」로도 불리우고 있다.

東天津洞에「톨까니」라는 곳도 있다. 이는 다시「촐까니」로도 불리우고 있다.

「톨까니」, 또는「촐까니」라 함은 소에게 촐(乾草)를 삶아 먹이기 위한 구시(가마)를 뜻한다고 한다.

牛島에서는, 本島(濟州島·큰섬)를 보는 遠景 가운데 水山峯을 臥牛型으로 보고, 牛島 바로 앞에 보이는 吾照峯(食山峯)을「촐눌」로 본다는 것

이다.

以上은 牛島라는 名稱이 臥牛型인 地形에서 생긴 것이라는 說이지만, 이 說과는 달리 소의 放牧場이었기에서 온 이름임을 말하는 古老들도 많다.

濟州島 全体가 古來로 牛馬의 放牧場으로 널리 알려졌었거니와 이 소섬도 옛날에는 一種의 國立牧場이었다고 말해지고 있다.

西紀 1844年 甲辰에 이 섬의 開拓者로 入住한 傳說的인 人物 金 錫麟 進士가 오기 以前에도 5·6家戶가 「牛目洞」에 살고 있었다는데 이들은 소를 치는 牧子 곧 「牛牧」이었고, 이들은 지금의 「牛目洞」에 거의 土窟生活로 가까운 原始的 生活을 하면서 소를 가꾸어 왔다고 傳한다.

섬의 開拓者로 알려진 金 錫麟 進士의 집터에 飮料水用으로 파놓은 奉天水통, 「進士통」이 있거니와 또 다른 奉天水통인 「梁兵防통」은 그 年代가 「進士통」보다 오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이 「梁兵防통」은 소섬이 牧場時節인 上代에 소의 飮料水用으로 아니면 소와 사람이 같이 마실 수 있는 飮料水用으로 파놓은 奉天水 물통일 것이라는 것이다.

「下牛目洞」에 「장통알」이란 곳이 있다. 地形이 우묵하게 파여져서 소를 간수하기에 편리하니 「장통」 같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金進士가 入住하였을 때 있었다는 5·6家戶도 이 「장통알」을 중심으로 하여 있었고 소를 이 소섬 밖으로 실어낼 때도 이 「장통알」에서 뗏목배에 실어서 終達을 거쳐 松堂쪽으로 내보내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最近(年代未詳)에 와서 「牛目洞」의 「장통알」近處에서 工事를 하면서 땅을 파내었더니 소의 뼈가 많이 나온 일도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牛目洞」은 소의 눈과 關聯시킨 名稱이라는 解釋과는 달리 소를 치는 牧子, 곧 「牛牧」과 連結시킨 名稱으로서의 解釋이다.

이 두가지 方式의 解釋이 「牛島」 또는 「소섬」이란 島名에도 고루 適用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이 섬의 오랜 俗稱은 「소섬」이요, 漢字式 表記 名稱으로는 「牛

島」인 것이다.

이 섬의 또 하나의 名稱으로「演坪」이란 것이 있다.

高 泰柱 編 鄕土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牛島에 入住하신 분들은 大擧가 西쪽에서 오셨으니「모관」 사람들이다. 水準도 높았고 氣質도 高尙하였다. 住居地가 소섬이란 듣기조차 거슬렸다. 그리하여 1900(庚子)年에 當時 當地에서 訓學하시던 表善面 城邑出身 吳 完哲 (吳 幼學이라 하였다)先生이 中心이 되어 「演坪」(물에 뜬 두둑)이라 命名 改稱하였다. 當時는 濟州道를 三分하여 「모관」「대정」「정의」라 하였는데 모관 양반, 대정 사람, 정의 사람 하였다.」(p. 4)

곧, 이 말은「牛島」란 名稱이 듣기에 거슬려「물에 뜬 두둑」이란 뜻으로「演坪」이라 改稱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西紀 1900年 庚子의 일이니 그리 오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섬의 이름은 둘로 되어 있다. 하나는「소섬」이란 俗稱을 同伴하고 있는「牛島」요, 하나는「演坪」이지만, 使用되고 있는 現況으로는 官公署의 公稱으로는「演坪」이니 行政區域 單位로서의「舊左面 演坪里」를 비롯「演坪國民學校」「演坪中學校」가 있지만, 民間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通稱은 亦是 거의가「牛島」요,「소섬」이다.

이렇듯, 在來 名稱인「牛島」를「演坪」으로 改稱케 된 過程을 보드라도「旋義」인 城山浦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旋義縣」에 들어가기를 꺼려「濟州牧」인 舊左面에 包含되기를 願해온 牛島民의 氣質을 엿볼 수가 있다.

3. 人物에 關한 傳說

〔섬을 開拓한 金進士〕

지금으로부터 128年前(73年 現在 基準) 李朝 哲宗 때에 進士 金 錫麟이 이 섬에 入住하여 飮料水를 파고 밭을 갈아 農事를 지어 이 섬을 開拓하

기 始作하였다.

金進士가 이 섬에 入住하기 前에는 住民이 5家戶쯤 있었는데, 그 住民이란 나무 밑뿌리 부근을 움푹하게 파내고 그 나무를 외기둥 삼아서 풀을 얽고 雨露를 가리워 살았으니, 그것은 거의 土窟生活이었다.

牧子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면 이 牛島에 入住하여 飮料水를 파고 農事를 짓기 始作함으로써 이 섬의 開拓者가 되고 있는 金進士는 어떤 사람이며 이 孤島에 入住하게 된 動機는 무엇일까?

金 錫麟 進士의 家系는 慶州金氏, 濟州市에서도 훌륭한 家系를 자랑할 수 있는 선비의 집안이었다.

金 錫麟은 靑雲의 뜻을 품고 漢陽으로 올라가서 敎育의 最高 機關인 成均館에 入學할 수 있었다.

成均館에 入學한 金 錫麟은 申判官 집에 방을 얻어 宿食을 하며 勉學을 하였는데 몇 해를 머무르는 사이에 申判官 딸과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申判官 딸의 몸에는 胎氣가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金 錫麟은 初試에 合格하고 進士가 되어 將來가 크게 촉망되었으나 申判官 딸과의 關係로 하여 大科及第의 꿈을 포기하고 故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때에 故鄕에는 妻子가 있었다.

金進士의 마음은 複雜하였다.

靑雲의 뜻을 품고 上京한 것이었는데, 한번 科擧도 못보고 環鄕한 것이라든가 집에는 妻子가 있다는 事實이 金進士의 마음을 괴롭혔다.

申判官 집에서도 兩班의 집안에서 창피스러운 일이니 소문도 못 들을 곳으로 딸을 데리고 가라고 꾸짖기도 했던 것이다.

故鄕으로 돌아온 金進士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어 살고 싶었다. 無人島라 하드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與件의 섬이면 찾아가고 싶었다.

이래서 濟州島의 구석 구석을 더듬어 보다가 牛島에 들어가보게 된 것이다.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牛島는 섬의 섬이지만 섬 全体가 岩山이 아니고 평평한 草地였다.

젊은 金進士는 드디어 꿈을 붓고 살 수 있는 곳임을 發見해냈다는 생각으로 기뻐하였다.

上京하여 임금님을 배알하고는 牛島를 훌륭한 牧場으로 만들고 運營을 하고자 하니 許諾하여 주십사 말씀 올렸다.

그 때만 해도 牛島에는 5·6名의 牧子가 있어 소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임금은 哲宗이었다.

哲宗은 金進士의 人物과 意志에 嘆服하시고 金進士에게 이 섬을 開拓하라고 命令하였다. 牧場은 안되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開拓하고 그 섬을 지키라고 분부한 것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牛島에는 소를 기르는 牧場으로 5·6家戶의 牧子가 있었지만, 그 牧子들이 不良하여 행패가 甚하였고, 倭寇의 侵入도 잦아서 이러한 일이 朝廷에까지 傳해졌던 것이다.

牛島 起耕 許可를 받은 金進士는 다시 故鄕으로 내려오고 申氏 夫人과 함께 牛島로 들어갔다.

牛島에서의 生活을 始作하여보니 이 곳에는 飮料水가 몹씨 不便함을 알게 되었다.

집을 지금의 迎日洞 西南쪽 「진사터」에 마련하고 飮料水가 될 수 있도록 奉天水를 받기 위하여 「進士통」을 팠다.

「進士통」은 「進士터」와 좀 떨어져 있다.

金進士는 따로 울안에 우물을 파 마셨고 「進士통」물은, 일을 부리기 위하여 移住시켜온 庶民들이나 奴婢들이 마시는 물로 하였다.

이로부터 牛島에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始作하였고 草地가 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래서 이 곳 저 곳 쫓겨나다 보니 온 섬 돌아가면서 人家가 흩어지게 되고, 이래서 모두가 오늘의 11개 마을의 始初가 되었다.

金進士가 살았던 「進士터」는 사람이 많이 살던 後海洞에서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라 하여 「딴밭집」이라 하였거니와 이 「딴밭집」은 1957年

에 廢家되고 오늘에는 울창하였던 老木들도 없어져 오직 「進士통」물만이 남아 牛島 開拓의 歷史의 첫장을 되비쳐주고 있을 뿐이다.

牛島 中心部「擊牛마루」길 가에 「進士金公錫麟遺愛碑」가 세워져 있다.

오랜 風霜 속에 碑石의 一部가 破損되어 있으나 官도 民도 이를 잘 保存키 위하여 손쓰려는 사람이 없어 牛島 開拓의 功勞者에 對하여 悚懼스런 생각을 禁할 수가 없다. 薄한 人心이 새삼스리 恨스럽다.

〔釜山僉使〕

「부산첨사」는 소섬 출신으로(본도 출신이라고도 한다) 姓은 光山金氏요 月汀 漢東등지에 親戚이 많았다.

學識은 없었으나 容貌나 外樣이 凡人에서 벗어났으며 협잡을 잘하기로도 有名하였다.

헤미현감(朝天, 金海金氏)과 동무하여 늘 돌아다녔다. 한 때는 헤미현감과 同途 上京하였다가 路資가 떨어지니 헤미현감은 한량 노릇을 하고 釜山僉使는 馬夫가 되어 行勢한 일도 있다. 때로는 主從을 바꾸어서 行勢한 일도 있다고 한다.

人物은 釜山僉使가 뛰어났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를 釜山僉使라 함은 한 때, 釜山僉使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釜山僉使로 있다가 逆賊에 몰렸을 때 自己의 所任을 다하지 못한 罪로 罷職되어 珍島 別波鎭으로 귀양을 갔었다.

珍島에서 귀양살이 하면서도 지나가는 배를 만나면 노략질을 하면서 살았다할 만큼 惡名이 떨쳤다 한다.

說話傳承者 金 昌信 (男·68)

〔점복할망〕

잠수질을 잘 하기로 有名한「점복할망」에 대한 이야기는 잠수들의 社會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점복할망」은 下牛目洞에 살던 鄭칩 할망이라고 傳해지고 있는데, 牛島 開拓 初期의 잠수였다고 한다.

牛島에서는 처음으로 잠수질을 하였던 할머니처럼 이야기 되고 있으며 牛島入住 初期에는 바다에 어떻게 점복이 많았는지, 수경을 쓰지 않고도 물에 들면 점복을 얼마라도 잡아냈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金 昌信 (男·68)

〔주흥동의 송증이〕

周興洞은 演坪里의 北쪽 마을의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마을 이름을「주흥동」이라고 부르게 된 이야기가 傳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미역장사를 하였고 아내는 잠수질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미역장사를 나가 돌아오다가 큰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죽어버렸다.

하루 아침에 밀어닥친 이 불행을 입술을 깨물고 참아가며 다시 바다로 나가서 잠수질을 해야 했던 그의 아내, 청상과부는 잠수질을 아주 잘해서 나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세 갑절씩이나 전복·소라·미역등을 따오곤 하였다.

그러나 잠수질을 나가면서도 늘 남편 잃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였으며 물질할 때는, 다른 잠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피해가며 자기만 물질을 하곤 했던 것이다.

하루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 떨어져서 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다른 잠수들이 그 곳을 보니 드렁박만 물 위에 떠 있고 사람은 오래도록 물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상히 여긴 잠수들은 한참 기다려 봐도 나오지 않으므로 이는 물숨먹어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전복을 못 따도 물숨을 아껴서 여유 있을 때 나오지 않고는, 욕심을 부

데다가 죽는 수도 있는 것이므로, 모든 잠수들은 걱정을 했던 것이다.

많은 잠수들이 그 드렁박 있는 곳으로 모여 갔더니 그 때야 과부 잠수가 헤엄쳐 떠올라와 울면서 노래까지 부르다가 다른 잠수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왔는데, 갑자기 失神하고 말았다.

잠수들은 이 失神한 잠수의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하여 잔디밭까지 옮겨 놓고 보니, 이 잠수에게는 수경도 없고 머리에 썼던 수건도 없어지고 머리까지 짧게 단발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심방을 불러들여 한참 빌었더니, 失神했던 이 과부 해녀는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다.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다.

수경도 없어지고 수건도 없어졌을 뿐 아니라 머리까지 단발되버린 까닭을 물었다.

깨어난 잠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전복을 찾아 숨비어 들어가보니 바다밑에 놋잔이 두개가 있었다.

이상히 여겨 그것을 가져내려고 하였더니 더욱 괴이한 일이 생겼다.

그 놋잔이 있는 바다 밑은 바다 밑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방이었던 것이다.

그 방은 꼭 하동 마을의 어느 점방과 같은 구들(방)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마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점방 주인 남자가 같이 살자고 붙드는 것이 아닌가.

한사코 피하려고 하자 그 남자는「이것은 증거다」하면서 머리를 짤라 가지더라는 것이다.

이렇게 바다 속에서 머리가 짤린 이야기를 할 때, 두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이었다.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일본으로 가고, 하나는 죽어버렸으니, 이 세상에는 혼자인 외로운 몸인데, 바다 속에서 이 머리 짤린 일이 있는 날부터는 몸이 성하지를 못했다.

사흘에 한번씩은 무당을 데려다가 빌어주고 하면 아프다가도 팔롱 정신

이 나곤 하였다.

이 마을에 송씨 무당이 있었다.

이 과부가 무당을 청해드리기 시작하자 이 송씨 무당은 사흘에 한번씩은 이 과부의 집을 찾게 되었고 이러한 나날이 흐르다 보니까 이 과부는 잉태를 하게 되었다.

송씨 무당은 자식이 없는 터라 기뻐하였다.

과부는 세상이 두려웠다.

송씨 무당은 쌍놈이지만 청상과부는 양반집안의 딸이다.

청상과부는 전에도 늘 〈똥배질은 예펜〉으로 불리어 왔기 때문에 몸에 애기를 가졌어도 마을사람들 눈에 그리 띠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사람들의 눈에 띠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자고 벼르고 벼르다가, 이 소섬 잠수들이 「대마도」로 출가할 때, 같이 「대마도」로 갔고 얼마 없음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

세상이 부끄러워 곧 돌아오지 못하였으니 그 곳에서 7년을 살고 돌아왔다.

아들 이름을 「송 중이」라고 했다.

일곱살까지 키우고는 송씨 무당에게 맡겼다.

송씨 무당과 청상과부의 사이에 태어난 「송중이」는 호강스럽게 나날을 보냈다.

섬의 섬인 소섬에 살면서도 헤엄칠 줄을 몰랐다.

이 마을에 큰 물통이 있었다.

「중이」는 나무잎으로 배를 만들어 물 위에 띄웠는데, 바람에 불리어 깊은 데로 떠가버렸다.

그 배를 잡으려고 돌을 밟으며 물 가운데쪽으로 디딤 디딤 나가다가 돌이 굴르는 바람에 그만 실족하여 물에 빠지고 만 것이다.

헤엄칠 줄 모르는 「중이」는 이래착 저래착 〈곰수애기춤〉을 하였다.

이 때, 대 여섯 어린 아이들이 모여들드니 「중이 잘 힌다. 잘 힌다…」고 외쳤다. 어린 것들이니, 물에 빠져 위급하다 함을 모르고 헤엄치는 연습

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던 것이다.

「중이」는 〈복〉을 많이 먹고 기진하여 물속으로 잠기니, 그제야 어린것들 생각에도 물에 빠진 줄을 알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중이 빠졌저! 중이 빠졌저……!」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이웃 밭에서 김매기에 바쁜 아낙네들은 중이(쥐)가 물에 빠진 것으로 알고 「중이 빠지나 마나 내불라!」 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다. 「검질이 버친디 중이 줏으레 갈 사람이 어디 시니—」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저녁이 되어 「중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중이」의 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에게 아들의 소재를 물었을 때, 비로소 그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줄을 알고, 마을 사람들을 동원시키니 헤엄 잘 치는 마을 여자들이 5·6명 물속으로 들어가 「중이」의 시체를 찾아 올렸다.

「송중이」가 물에 빠져 죽자 얼마 없어 그의 부친 송씨 무당도 원통한 나날을 보내다가 〈애혈병〉으로 죽고 「송중이」 모친은 무당이 되어 자식의 원을 풀어주다가 얼마 못 살아 죽었다.

「송중이」의 이러한 슬픈 익사사고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이 마을 이름을 「중개」, 이를 漢字式으로 표기하면서 「주흥동」(周興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金 致錫 (男·69)

註 : 高 泰柱 編 「牛島 鄕土誌」에 이 周興洞 洞名의 由來가 보이는 바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商賈船이 주흥동 앞바다에서 破船되어 돈(葉錢)이 올라오니 주운 동리라 하여 「주흥동리」「주흥개」로 변해진 것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이웃 마을 「돈올네」 곧 「錢屹洞」名의 由來와 마찬가지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중이」의 익사로 인한 由來임을 말하는 사람은 달리 對할 수 없었으나, 다만 이 과부 잠수의 바다 속에서의 단발 사건, 그리고 송씨 무당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송중이」의 익사사건은 우도에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이야기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주흥동」의 동명과의 관계만은 더 알아봐야 할 일이었다.

〔孫씨 이야기〕

한 50여년전의 일로서, 孫氏 夫婦가 이 고장 上牛目洞 근처에 살았었는데, 孫씨는 뱃사공을 하고 夫人은 잠수질을 하면서 잘 살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孫씨가 장사차 며칠을 예정하고 인천에 가게 되었다. 인천에 당도한 孫씨는 어느 벼슬아치의 집에서 며칠을 묵게 되었는데 이 집에는 노처녀가 있었다. 내력을 물어 보니 한번 약혼한 처녀로서 남편될 사람이 결혼도 하기전에 돌아가 버려서, 양반체면에 재혼할 수도 없고하여 이렇게 독수공방하며 설음을 달래고 있다고 하였다.

하루 이틀을 묵다 보니 이 노처녀와 친근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떨어질 수 없다는 노처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노처녀의 아버님께 여쭈었더니, 제주에 가서 살겠으면 가도 좋지만 여기서는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노처녀와 부둣가에 나와 배를 타려고 하니 장삿배에 여자를 실을 수 없다고 처녀를 실어주지 않아 孫씨만 타고 오게 되었다. 그 후 노처녀는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다가 바다로 투신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 孫씨가 牛島에 당도하고 보니 그 처녀의 시체가 먼저 부둣가에 와 있었다고 傳해 내려 오고 있다.

孫씨는 얼마 안되어 죽고 그 후손들도 잘 살지를 못하더니 그 노처녀의 무덤에 가서 제를 잘 지내고 하였더니 그때부터는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金 應錫 (男·62)

4. 部落名에 관한 傳說

牛島에 設村되기는 이 섬을 開拓하였다는 進士 金 錫麟이 入住하면서 이루어졌음은 牛島民 모두가 믿고 있는 일이다.

金 錫麟 入住 以前에 5·6戶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그들의 生活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만 金 錫麟이 入住함으로부터는 땅을 갈아 農事를 始作한 것이겠지만

그 以前에는 住民 5·6家戶가 있어 소만 치었고 그들은 原始的 生活을 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만 오늘날 牛島에는 迎日洞, 飛揚洞, 上古水洞, 下古水洞, 三陽洞, 錢屹洞, 周興洞, 上牛目洞, 下牛目洞, 西天津洞, 東天津洞등 11個洞에다 700戶의 家戶가 있으며, 約 4000名의 住民이 살고 있는 것이다.

〔牛 目 洞〕

牛目洞은 이 섬에서는 先史時代의 住民들이 살았었다는 곳이다.

金 錫麟 進士가 이 섬에 入住하기 以前에는 이 섬은 進上用 소를 養牧하던 곳이요 그 때의 「牛牧」 곧 牧子들은 이 牛目洞에 있는 「장통알」에 모여 살았을 것이라고 한다.

「장통알」은 地形이 움푹하여 소를 간수하기에 便利하였고 거센 北風이 가리워져서 未開時代人들이 生活하기에 알맞는 곳이다.

이 牛目洞의 「장통알」(下牛目洞에 있음)은 바로 南쪽으로 舊左面 終達里와 마주보게 되는 곳이어서, 소를 실어 들어오고 실어 내기에 알맞는 곳이기도 하다.

그 당시의 牧子들은 소를 치다가 가끔 몰래 잡아먹어버리는 수도 있었으니, 官에서는 골치가 이만 저만 앓지 않았다고 한다.

牛島에서 가장 지독한 욕설을 하게 될 때에는 「이 더러운 즈개비 손지놈」이라고 한다고 하거니와, 이 「즈개비 손지」라는 말은 「牧子의 孫子」라는 뜻이라고 한다.

소를 치던 곳이라는 牛島에서 소를 치는 牧子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도 理由 있는 일일 것 같기도 하다.

近來(確實한 年代 未詳)에 下牛目洞 「장통알」 근처에서 工事를 하다가 땅을 팠는데 소뼈가 나왔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 마을의 이름 「牛目洞」의 「牛目」에 對해서는 確實한 說이 없다.

牛島 全体의 岩石이나 모래가 모두 黑灰色인데다, 이 牛目洞 앞바다의 모래만은 白色의 눈(雪)과 같아서 終達이나 城山에서 보아도 하이얗다.

이것이 눈(目)과 같아서 (實은 雪과 같지만) 牛目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牛島의 先史時代에 〈소를 치는 牧子들이 살던 마을〉이라 하여 「牛牧洞」, 이것이 「牛目洞」으로 定着되었다는 說도 있다.

上牛目洞 下牛目洞을 俗稱 「웃우무깨」「알우무깨」라고 하고 「牛目洞」의 俗稱으로는 「우무깨」가 있다. 이 「우무깨」의 「우무」를 「天草」로 解釋한다면 「우무깨」는 「天草浦」가 된다는 一說도 있다.

濟州島는 全國的으로 有名한 천초 生産地로 꼽히고 있거니와 이 濟州島 天草總生産量의 四分의一이 이 牛島에서 生産되고 있다는 것이다.

「牛目洞」의 俗稱 「우무깨」는 천초 生産地인 牛島의 生活中心地란 데서 생긴 이름이요, 이 섬에서는 모든 地名을 소(牛)와 결부시켜 解釋하려는 意識이 不知中 作用하여 漢字式 表記 洞名으로 定着될 때에 「牛目洞」이라고 되어 버린 것이라는 說도 있다.

이러한 主張을 내세우는 사람으로서는 「牛目洞」이 소와 關係된 名稱이라면 「우무깨」가 아닌 「쇠눈깨」따위의 俗稱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說話傳承者 金 基玉 (男·51)

〔進 士 터〕

進士터는 「섬머리」(島頭峰) 西北쪽 廣場에 있어 이 牛島의 開拓者인 金錫麟 進士가 入住당시 居住하였던 곳으로 이 牛島의 歷史後 가장 일찌기 家戶가 세워진 곳으로 傳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집이 한채도 없다.

오직 金進士가 음료수로 파놓은 봉천수 물통만이 남아 進士터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이 進士터에는 金進士 住宅이 한 채만 있었고 近處에 他人은 居住할 수 없게 하였으니 他人들은 後海洞에 살기도 하고 그밖에 여러 곳으로 흩어지니 점차 각각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金進士는 왕의 許諾을 얻고 牛島를 起耕한 것이라 하여 모든 土地를 私

有로 하였다가 나중에는 次次 分配를 하여 주었는데 奴婢들만은 進士터 주변에 살게하고 「進士통」물을 마실 수 있게 하였으니, 進士는 따로 自己의 집에서 마실 수 있는 우물을 작게 파서 자기만 使用하였다 한다.

「進士터」에는 金 進士의 집 한 채만 떨어져 있었으므로 住民들은 金進士의 집을 「톤밭집」이라 불렀고 이 집이 있는 近處를 「톤밭」이라 불렀다. 「톤밭」이란 方言이다.

「進士터」에는 돌아가면서 버드나무를 둘러 심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한다.

그 後 「톤밭집」 近處에도 家戶가 생겨 비록 자그만 규모이긴 하나 마을이 形成되더니 「톤밭집」은 1957年에 廢家가 되어 後海洞 마을로 移住하였고, 그 밖의 住民들은 後海洞을 비롯 飛揚洞 古水洞 錢屹洞 周興洞 牛目洞 天津洞등지로 分散하여 버림으로써 進士터에는 進士통 以外에는 남은 것이 없다.

說話傳承者 梁 星柱 (男·63)

〔迎日洞(後海洞)〕

迎日洞의 古名이 後海洞이다

後海洞은 俗稱 「뒷바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牛島를 開拓한 金進士가 「섬머리」 西北쪽 (進士터)에 定着하면서 생긴 部落이다.

金進士는 進士터에 住居地를 定하면서도 他人은 近處에 居住許可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進士터에 가장 가까운 進士터 東北쪽에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된 것이다.

後海洞 南쪽에 「섬머리」(島頭峰)가 있는데 등에 있는 큰 봉우리는 「큰섬머리」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봉우리를 「족은 섬머리」라고 하는데, 이 「족은 섬머리」에 「龍의 자리」가 있다.

이 「龍의 자리」란 태풍 때에 山이 무너진 곳인데, 住民들은 龍의 꼬리로 치어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後海洞에서는 그「龍의 자리」가 보기 싫고 또한 이「龍의 자리」가 바라다 보이기 때문에 액장이 많이 난다고 하였다. 이래서 마을에서는 그 신이 무너진 자리에 나무를 심고 이를 감추어 버렸으니 흉한 것이 안보이게 되고 흉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後海洞「모살개」포구 앞에 塔이 있다. 風水官의 말에, 이 곳이 너무 터져서 좀 받혀주기 위하여 塔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 돌을 쌓아올려 塔을 세웠다. 좀 떨어져서 또 다른 塔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塔이 있는 位置를「쪽재비동산」이라고 부른다. 따로「도체비동산」이 있는데 이는 헛불(도깨비)이 잘 나서 부쳐진 이름이다.

「섬머리」바다쪽으로 바닷물에서 70미터 돌출한「선돌」이 있고, 그 근처「섬머리」앞 岩壁에 窟이 있어, 俗稱「검은 코끄망」「붉은 코끄망」등이 있다. 地官은 牛島에「有腹三穴」이라고 하나 그것이 어딘지를 모른다.

俗稱「뒷바당」인 後海洞은 1970年에 迎日洞으로 洞名을 바꾸었다. 元來 이 마을의 位置가「섬머리」(島頭峰) 西北쪽 바다에 面하였다 하여, 또는 이 섬 開拓者인 金進士가 살았던「進士터」뒷쪽에 있다고 하여 後海洞이라 불리우게 된 것이지만, 마을에 자주 凶事가 나고 他部落하고 무슨 競技를 겨루었다하여도 敗하기가 일수여서 이는 洞名탓이라 하여 洞名을 바꾸기로 하고, 마을의 公議에 붙여 迎日洞으로 하였다.

說話傳承者 金 昌信 (男 · 68)

〔古 水 洞〕

古水洞의 俗名은「예물동네」이다. 古水洞은 오늘에 와서 두 마을로 나누었으니 上古水洞과 下古水洞이 그것이다.

이 上·下古水洞 가운데서「예물동네」는 下古水洞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물」이란 下古水洞에 있는 湧泉水를 말함인데,「이물」이라고도 하였다.

「예물」또는「이물」이라고 불리워지는 湧泉水가 예전에는 물이 퍽 豊富하였었다.

牛島에는 原來 샘물(生水)이 없어 음료수가 어려웠었는데 옛날에 倭人들이 이 섬에 왔다가 음료수가 없어 물을 찾았다.

섬 안을 골고루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古水洞에 와서 물의 혈을 찾아내어 우물을 팠더니, 샘물이 철철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 샘물은 牛島에 사는 사람 모두를 마시게 할 수 있을 만큼 湧水量이 많았는데, 그 샘물의 뒷동산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더니, 그 後, 그 물은 안흐르게 되어버렸다고 한다.

「예물」, 또는 「이물」은 倭人이 發見한데서 起因하였다는 뜻으로 붙혀진 「倭물」의 뜻이다. 이 「倭」인 「예」를 「古」로 解釋하고 「古水」곧 「古水洞」이 되고 말았다.

倭人이 集團的으로 묻혔다는 「의무덤」과 더불어 이 「倭水」인 「예물」 또는 「이물」 모두가 倭와 關係된 地名이다.

牛島가 倭와 關係가 깊다는 것을 은연중 暗示하고 있기도 한 샘물 이름 또는 이에 起因한 마을 이름이다.

說話傳承者 金 基玉 (男·51)

〔錢 屹 洞〕

錢屹洞을 俗名으로는 「돈을동」, 또는 「돈오른동내」라고 부르고 있다.

돈이 많이 올라온 동내라는 뜻이다.

옛날에 이 錢屹洞 앞바다를 風船이 지나가다가 突風을 만나 難波했다는 것이다.

이래서 배는 突風에 밀려 이 錢屹洞으로 올려졌는데, 그 風船에 싣고 가던 엽전을 바닷가 물으로 많이 올렸다는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엽전을 많이 주어 富者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說로서는 「돈을동」, 또는 「돈오른동내」라고 함은, 富者동내 즉 富村의 뜻이라는 解釋이 있다.

이 마을에 처음 入住한 사람들은 海角으로만 살았다. 海草가 無盡藏 올라왔는데, 이 海草를 주어 모아 섬의 中央地 農土에 거름을 잘 하니, 農

作이 해마다 豊作을 이루고, 이 錢屹洞 사람들은 모두가 富者가 되고, 마을도 富村이 되어 「돈 많은 마을」이 되었다는 것이다.

說話傳承者 姜 孔汝 (男·66)

〔周 興 洞〕

周興洞은 俗稱 「주흥개」「중개」「주흥동리」로 불리우고 있다.

俗稱 「돈을래」인 錢屹洞의 南쪽에 位置하여 마을의 이름도 이 「돈을래」와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

즉 近海를 航海하던 商船이 颱風을 만나 難波되었는데, 이때 商船에 실었던 葉錢이 많이 올라왔다는 마을이 「돈을래」이듯이 그 때 「돈을 많이 주은 동리」라 하여 「주흥개」의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一說에는 청상과부의 아들 「송중이」의 슬픈 故事에서 붙혀진 이름이라는 풀이도 있다.

說話傳承者 高 泰柱 (男·)

〔天 津 洞〕

天津洞은 원래 「한나리」였다. 큰 나루란 뜻으로 「大津」이어야 할 것인데, 「하늘나루」로 풀이하여 漢字式 洞名을 붙힐 때 天津洞으로 되고, 마을이 커짐에 따라서 東, 西天津洞으로 나뉘었다.

牛島 最大의 浦口가 있어 이 섬의 門戶가 되고 있다.

西天津洞과 上牛目洞 사이에 「드렁코지」가 있다. 「들어온 코지」란 뜻이다.

終達 「만서」와 이 「드렁코지」가 牛島와 本島 사이의 거리중 가장 가깝다.

이 「드렁코지」의 地勢를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漢拏山 뒤어나서 〈드랑쉬〉 (山名 舊左面에 있음) 오름 줄기로 하여 〈주무봉〉 (주무망이라고도 함)이 뒤어나고 〈주무봉〉 에서 〈만서줄기〉 (종달 앞 바닷가에 있음)로 하여 소섬 〈드렁코지〉 까지 눈으로는 못 봐도 여(岩礁)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은 漢拏山과 이 牛島의 「드렁코지」까지의 地脈의 이어짐을 說明하는 말이다.

오늘 머구리船이 와도 이 「드렁코지」에 와서 미역을 많이 딴다. 그것은 이 드렁코지가 여(岩礁)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牛島로서 本島와 가깝기는 「드렁코지」이지만, 이는 港口로는 不適하고 이 「한나리」는 築港以前부터 물이 깊고 우묵하게 둘러싸여 있어서 良港으로서의 條件을 갖추고 있었다.

說話傳承者 高 泰柱 (男·)

5. 地形·地名에 關한 전설

〔의 무 덤〕

「비양동」과 「영일동」 사이에 「의무덤동산」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倭寇들이 侵犯하여 왔다가 牛島 사람들과 싸워서 죽은 屍体가 묻힌 곳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日本 商船들이 近海를 航海하다가 暴風을 만나 배는 難破되고 船員들은 죽어 올리니 牛島 사람들이 그 屍体들을 묻은 곳이라고도 한다.

한편 太平洋戰爭때에 近海를 航海하던 輸送船이 爆破되었고 그 屍体들이 떠밀려 와서 묻힌 곳이라고도 한다. 太平洋戰爭이라 할 경우는 時間的으로 얼마 안된 것이 어찌 이 이야기 속에 뒤섞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떻든 이 「의무덤」에는 屍体가 묻힌 곳이라는 것이요, 그 무덤 속의 屍体는 日本人이라는 것이다.

「의무덤」이란 「倭무덤」이란 뜻이다. 「倭」를 옛말로는 「예」라고 하였으니 「예무덤」의 訛傳일 수도 있다.

이 「의무덤」이 果然 屍体가 묻힌 진짜 무덤이냐 아니냐 아직 確認되어 있지는 않다. 解放後에 果然 屍体가 묻혔는지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靑年會에서 이를 파본 일이 있었다. 人骨이 나왔다는 說이 있기도 하고 나

오지 않았다는 說도 있다. 뼈가 나왔다는 說과 함께 이 뼈를 藥으로 갈아 먹었다가 미쳐버렸다는 孔씨 이야기가 傳해져 내려오고 있다.

「飛揚洞」과 「迎日洞」 사이의 海岸가에 屍体들이 많이 올라왔다.

섬 사람들은 이 屍体가 보기 싫으므로 이를 모두 묻어 놓았다.

제대로 잘 묻혀지지 않아서 바람에 依하여 또는 動物인 개나 고양이에 依하여 파였는지, 개가 그 시체를 여기 저기 물고 다녔다.

「의무덤」 가까운 마을에 사는 孔씨는 학질(마라리아)에 걸렸다.

이 病에는 人骨을 갈아서 물에 타 먹으면 完快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孔씨는 人骨을 주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孔씨는 이 人骨을 가지고 돌아와 솥덕에서 삶아서 도구방아에 빠아서, 먹었는지 말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루를 빠는 것 까지는 가족들이 보았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後 그 孔씨는 精神異常이 생겼다

精神異常이 생긴 孔씨는 미쳐 돌아다녔지만, 人骨을 삶아서 빠아먹었다는 이야기는 그의 가족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孔씨가 죽은 다음에 그의 가족의 입에서 이 말이 새어 나왔다.

精神異常이 된 공씨가 하루는 집을 일기(草家지붕을 덥기) 위하여 줄을 내었는데(꼬았는데) 그 줄을 밖에 쌓아두지 않고 방에 가지고 들어와 벽 공장에다 걸어 놓았다. 家族들은 모두 놀랐다.

밤에는 공씨가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뒷날 아침에 家族들이 나가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이틀 뒤엔가 東天津洞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 낚으러 갔다가, 「섬머리」(島頭) 뒤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물건이 떠있음을 보고, 가까이 가 보니 사람의 屍体가 아닌가?

누구인 줄은 모르면서도, 배에 싣고 東天津洞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그 시체는 飛揚洞 孔씨임을 確認하였다.

공씨의 죽은 모습을 보니 〈줄께〉로 머리를 등이고, 다시 〈줄께〉로 넥

마이를 묶듯이 목을 감았고 다시 각반을 묶듯이 다리를 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씨가 精神異常으로 이렇게 悲慘히 죽은 다음에야 그의 家族의 입에서 공씨의 不淨한 行爲의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

공씨는 학질(마라리아)病을 고치기 위하여 人骨을 솥덕에서 삶아서 도구방아에 빠아서 먹었기 때문에 不淨이 타서 미친 것이고 그렇게 悲慘하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소섬안에 번졌다.

說話傳承者 姜 孔汝 (男·66)

〔답 당 고 슬〕

「답당고슬」은 上牛目洞에 있는 방축 이름이다.

이 「답당고슬」이 있는 上牛目洞의 지형은 城山浦쪽을 向해 기울어져 있어, 여기에서 城山浦쪽을 보면 시원스럽게 트여 있다.

地形이 이렇듯 城山浦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風水上으로 이곳이 虛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地形이 虛하기 때문에 이 곳에는 天火가 자주 났다고 한다.

이래서, 오래 前부터 여기에 돌들을 많이 모아 높이 쌓아 올려 이 虛함을 補하고 厄을 막아왔다는 것이다.

5~60년전까지도 그랬다고 한다.

「地尾峰」앞에 도깨비불이 나타나서 춤을 추다가, 이 불은 다시 「드렁코지」로 와 머물고는 또, 「생이동산」(상여동산)으로 옮겨져 춤을 추다가, 어느 집 근처로 떨어지면, 거기에 天火가 나곤 하였다는 것이다.

이 곳에 火災가 자주 나니까, 경찰 주재소에서는 이 곳에 허총을 쌓아 올렸다가 나중에는 방축을 높이 쌓아서 액을 막아왔는데, 이 돌로 쌓아 올린 방축을 「답당」이라고 하고, 이 「답당」의 근처를 「답당고슬」(답단고슬)이라고 한다.

說話傳承者 金 致錫 (男·69)

〔말톡 박은 여〕

「말톡 박은 여」란 안비양(飛揚島)에 있는 岩石 동산으로서 牛島가 上牛島 下牛島로 나뉘었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경계표시로 말뚝을 박았던 곳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즉 牛島는 濟州牧과 旌義縣의 中間位置에 있으면서도 地理的으로는 旌義縣에 가깝고, 感情的으로는 濟州牧에 가깝다.

牛島 住民의 大部分이 濟州牧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요, 當時의 感情이 濟州보다 旌義를 下視하였기 때문에 亦是 오늘에 와서도 南濟州郡 城山面에 屬하지 않고 北濟州郡 舊左面에 屬하여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牛島를 上牛島 下牛島로 나누게 되었을 때의 與件은 牛島를 濟州牧 終達과 旌義縣 始興과를 나눈 境界線을 그대로 이 飛揚島로 直線으로 그어, 그 直線으로 東쪽은 上牛島, 西쪽은 下牛島라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래서 이 경계선에 말뚝을 박았던 일이 있었으니 이 말뚝 박았던 위치의 岩礁를 「말톡 박은 여」라고 부르게 되었으나 牛島를 이렇게 上下牛島로 兩分하는 일은 住民의 反對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說話傳承者 姜 孔汝 (男·66)

〔飛 揚 島〕

제주에 「동비양」 「서비양」이란 말이 있다.

濟州牧에 있어서 西쪽 끝이 西飛揚이니 翰林 앞바다의 飛揚島요, 東쪽 끝이 東飛揚이니 이는 牛島의 飛揚島이다.

이 牛島의 飛揚島는 牛島에서도 다시 작은 섬이라 하여 푸대접을 받아 왔다.

곧 이 飛揚島를 마주 바라보게 되어 있는 마을이 飛揚洞인데 이 따로 떨어져 있는 飛揚島를 飛揚洞에 예속시키지 않고 이 飛揚島만은 牛島의 共同管理로 하여 그 섬의 소산으로 하여 每年 正月달에 行하여지던 「포제」 때에 祭物을 마련하여 왔다.

1930年을 前後하여 이 「포제」가 行하여지지 않게 되자, 當時 飛揚洞에서 學校建築基金의 一部를 내어 놓고 飛揚島를 飛揚洞의 所有로 만들었다.

飛揚島를 「안비양」이라 부르기도 한다.

說話傳承者 金 致錫 (男·69)

〔보섭봉오리〕

東天津洞 東海岸에 보섭과 같이 바다쪽으로 길쭉하게 뻗어나간 바위가 있어 이를 보섭봉오리라고 부르고 있다.

太平洋戰爭이 막바지에 이른 1945年 戰勝의 氣勢를 타고 활개를 치던 美軍艦載機가 誤爆이었는지 오면지는 몰라도 이 「보섭봉오리」를 攻擊하여, 그 앞코지를 破壞하여 놓았다. 太平洋戰爭이 남겨 놓은 표적이다.

說話傳承者 金 昌信 (男·68)

〔망동산〕과 〔포제동산〕

牛島에서 地形이 가장 높은 곳이 「섬머리」(島頭)인데 「큰섬머리」「작은섬머리」가 있다.

이 「작은섬머리」를 다시 「망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전에 倭賊이 侵入하였을 땐 낮이면 연기를 올리고, 밤이면 봉홧불을 올려 이를 알려왔다.

이 「망동산」에 연기를 올리거나 봉홧불을 살아 올리면 이 신호는 終達里의 地尾峰과 城山面의 水山峰으로 連絡이 되고, 全島에 이 信號는 닿게 되는 것이다.

「포제동산」이란 포제를 올리는 동산이란 뜻으로 붙혀진 이름이다. 島民들은 해마다 正月初 丁亥日을 擇하여 포제, 곧 天祭를 올려 住民의 安寧과 豊年을 祈願하여 온 것인데 이 聖스러운 天祭가 이 동산에서 이루어졌었다.

그러더니 1870年頃 이 곳에 누군가가 入葬하여 놓았기 때문에 島民들을

모아 會議를 갖고 이를 移葬해 버렸다.

以後 이 동산은 不淨한 곳이 되어 버렸다 하여 各 洞別로 갈려가서 포제를 擧行하게 되었었는데 얼마 안가서 이 포제는 廢止되고 말았다.

이 「포제동산」이 있는 位置는 「섬머리」를 소의 머리라 할 때에 그 소를 매어놓고 말뚝을 박은 곳이라 하여 「게우마루」(繫牛마루) 또는 「게우바루」라고도 불리운다.

說話傳承者 金 昌信 (男 · 68)

〔고양이 동산〕

「고양이 동산」은 演坪里의 上牛目洞과 錢屹洞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으로서 이곳에 고양이가 주인에게 복수했다는 傳說이 傳해지고 있다.

약 3 · 40여년전의 일로서 숫놈고양이와 늙은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쥐를 잡으려고 기르는 고양이가 암놈 있는 곳만 찾아다니므로 노인이 고양이를 잡아다 거세를 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이 고양이가 이불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른 노인은 잠을 잘려고 보니 이불속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본 노인은 화가 나서 쥐도 잡을 줄 모르는 놈이라고 발로 차버렸더니, 달려들어 노인의 고환을 물었는데, 노인의 외침에 동네사람들이 모여와 고양이를 죽였는데도 고양이의 입을 열 수가 없어서 노인도 함께 죽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그 고양이가 출입하던 굴을 속칭 「고냉이굴」 그 근처를 속칭 「고냉이동산」이라고 부르게 됐다.

說話傳承者 金 應錫 (男 · 62)

〔돈 지 당〕

한나리(天津洞) 포구 가까이 堂이 있는데 「돈지당」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2월 보름에 모여 크게 祭祀를 지낸다.

過去에 이 「돈지당」에 祭를 잘 아니 올리다가 크게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았다.

이 포구에서는 屍体를 실어내거나 실어 들어오지를 못한다.

「돈지당」에 부정타기 때문이다.

시체를 실어내고 실어들어올 수 있는 포구로는 새개(新浦)라고 따로 있는데, 이를 다시 「영장시끄는 봉오지」라고도 한다.

說話傳承者 金 昌信 (男·68)

6, 飮料水에 관한 이야기

牛島는 음료수가 極히 어려운 곳이다. 溪川이 없고 샘물이 없다.

이 음료를 解決하기 위하여 여러군데 貯水池를 팠다. 이 飮料水用 貯水池는 모두 「통」으로 불리우고 있으니 「進士통」과 같은 이름이다. 이 貯水池들은 대체로, 이 「통」을 만든 사람의 이름 밑에 「통」을 붙혀 貯水池 이름으로 되어, 이 섬의 歷史에 남아 있다.

음료수가 어려운 곳이어서 이 음료수의 比重이 크다 함을 새삼스리 느낄 수가 있다.

各 貯水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進 士 통〕

迎日洞에 있는 奉天水 貯水池로서 이 섬을 開拓한 金 錫麟 進士가 入島起耕과 동시에 파놓고 使用하여 오고 있는 飮料水이다.

金進士는 이 물통을 파놓고도 自身의 집에서 使用하는 飮料水는 自己집 울 안에 따로 파놓고, 이 「進士통」의 물은 「進士통」 周邊에 居住許可를 받은 奴僕들과 居住許可를 얻지 못하여 「뒷바당동내」에 내려가 사는 住民들이 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 한다.

說話傳承者 金 基玉 (男·51)

〔梁 병 방 통〕

〔양병방통〕은 「한나리」에서 섬의 中央地를 向하여 얼마동안 나아가면 길가에 보이게 되는 물통이다.

몇 개의 水溜池 가운데서 가장 그 내력이 알려지지 않은 물통이다.

「양병방」이란 人物에 對한 이야기가 一定하지 않다. 一說에 「양병방」이란 「梁 兵防」으로서 牛島의 先史時代인 牧場時代에 進上用 소를 가꾸는 牧子들의 實態를 살피기 위하여 入島한 梁某 武班이 이 섬에는 음료수가 極히 어려움을 보고 牧子들을 動員하여 貯水池를 팠다는 것이다.

이 물통은 牧子들인 사람의 음료수로도 使用되지만 소들의 음료수로서의 目的도 있었다 한다.

牛島 음료수 해결방법으로서 처음 파여진 물통이라는 것이다.

한편 梁벵방이란 사람은 「넓미역」(넓곽)을 캐는 기구를 처음 생각해 만든 人物이라고도 한다.

牛島 앞바다 및 모래판에서 캐어내는 「넓미역」은 牛島의 特産인데 갈구리가 많이 달린 연장을 그곳에 대어 돌리고 있으면 바다 밑의 넓미역이 이 달구리에 감겨 타낼 수 있게 된다. 오늘날 使用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그대로의 넓미역 채취기가 이 양벵방이 발명해 냈다고 한다.

說話傳承者 金 致錫 (男·69)

〔갈라진 문서방통〕

현재 「모살통」으로도 불리우고 있는 물 이름이 또한 「갈라진 문서방통」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牛島가 오래 가물어도 이 「갈라진 문서방통」에는 물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물통이 이루어지게 됨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夫婦가 있었다.

남편은 病身이어서 몸이 언제나 뒷쪽으로 내자빠진 자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갈라진 문서방」이라고 불렀다.

부인은 남편이 병신이지만 극진히 정성을 다하여 모셨다.

부인이 밭에나 바다에 일을 하러 간 사이에 남편은 〈갈라져서〉 뒷손으로 우물을 팠다. 이래서 이루어진 우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을 「갈라진 문서방통」 또는 「병신통」이라고 하였다.

「갈라진 문서방」은 물 먹고 싶으면 뒷손질 하여 물을 먹었고, 똥 오줌도 부인이 뉘워주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길러 오면 「갈라진 문서방」은 갈라져 있으면서 (뒤로 내자빠져 있으면서) 물을 길어 가지 말라고 소리 지르곤 하였다는 것이다.

說話傳承者 金 昌信 (男·68)

倭人이 水脈을 발견하여 팠다는 「예물」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실었고, 下古水洞에 二個가 있는 「고수동통」 그 歷史가 그리 오래지 않은 「정찬흡통」과 「비양동통」에 對한 이야기는 略하겠다.

要는 牛島는 음료수가 어려운 곳이어서 좁은 섬이지만 넓직한 음료수용 奉天水 貯水池가 많고 이 貯水池마다 牛島民의 이야기를 간직해 내려오고 있다.

後 記

여기 傳說分野에서 採錄한 것 가운데는 어떤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어떤 것의 경우는 어느 地名이 붙여지게 된 單純한 由來에 關한 짤막한 이야기에 不過한 것도 없지 않으나 버리기가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실었다.

이만한 이야기가 採錄되었음도 調査 期間 協助하여주신 牛島에 계신 여러분들의 德澤인 것이며 特히 酷暑 속에 바쁘신 일을 모두 밀어 놓고 많은 資料를 紹介하여 주신 牛島 鄕土誌의 編者 高 泰柱 先生과 이 섬을 開拓하시고 牛島의 鄕土史上 不滅의 이름을 남기신 金 錫麟 進士의 孫이신

金 基玉 先生께 깊은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慾心같아서는 「進士터」만은 可能한 限度까지만이라도 復元하여 地方文化財로 指定 保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信　　仰

차　　례

1. 宗教概觀
2. 部落信仰
　1〉 儒式部落祭
　2〉 巫式部落祭
3. 家庭信仰 및 祖上崇拜 其他
　1〉 家宅神과 그 儀禮
　2〉 崇祖祭
　3〉 죄맹질
　4〉 死　婚

1. 宗 教 概 觀

牛島는 270餘年 前부터 牛馬를 放牧하던 섬이었는데, 130餘年 前에 濟州本島民이 移住하여 開拓하였다 한다.[1] 濟州民이 移住하여 그 期間이 얼마 안 되었으니만치, 文化的으로 濟州本島와 큰 差가 없겠고, 따라서 信仰面에서도 큰 差가 없을 것임은 곧 생각할 수 있다.

現在 牛島에 있는 公認된 宗教는 天主教, 佛教와 新興宗教인 天地大安教와 奉南教가 있다. 그중 가장 빨리 들어온 宗教는 天主教로서 1901年에, 다음이 佛教로서 1952年에 各各 처음 布教되었다.[2] 그러니까 天主教는 지금으로부터 72年前, 牛島가 開拓되어 59年만에 布教된 셈이며, 佛教는 그보다 約 50年이 늦은 셈이다.

이들 公認 宗教의 現況은 大略 다음과 같다.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1〉天 主 敎

가, 沿革：1901年 濟州天主敎會 初代 神父인 「구마실」神父가 來島하여 布敎함으로써 비롯되었다. 當時 「구마실」神父는 現 天主敎 演坪公所長인 高 貞煥氏의 曾祖父, 高 俊汝(下古水洞 居住)와 外祖父인 姜 基贊(下古水洞 居住)과 接觸하여 布敎를 시작한 것이다.

나, 代表者：高 貞煥(天主敎 演坪公所長). 高氏는 現在 43歲. 日本에서 中學校를 中退하고 現在 農業 兼 漁業에 從事하고 있다.

다, 布敎地域：上·下古水洞, 三陽洞, 錢乞洞, 周興洞 一帶.

라, 敎人現況：敎人數 51명, 이를 性別로 보면 男 18명、女 33명.

敎育水準別로 보면

高　　卒 ……	3명	國民學生 ……	8명
高等學生 ……	10명	中校中退 ……	1명
中 學 生 ……	2명	其　　他 ……	27명
		計	51명

結局 學生이 20名, 一般人이 31名이 된다.

綜合하고 보면 女子 敎人이 男子의 近 倍數나 되게 많다는 事實, 젊은 學生層이 比較的 많다는 事實을 指摘할 수 있음과 同時에, 74年間의 긴 布敎過程을 거쳤으면서도 그 敎人數가 적다는 事實을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敎人數가 적은 理由에 對해서 高 貞煥氏는 演坪里民이 傳統的, 儒敎的 價値觀에서 脫皮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牛島民의 信仰이 아직 傳統的 信仰体系를 維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天主敎가 아직 牛島의 村落社會의 信仰体系에 커다란 機能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2〉佛　　敎

가, 沿革：1952年 濟州觀音寺에 강 남옥 스님이 來道하여 說法한 것이 처음이다.

나, 寺刹 : 現在 太古宗「牛島教堂」이 있고, 僧侶 1人이 從事하고 있다.

다, 信徒 : 信徒는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 없다. 天主教徒처럼 他 宗教와 分明히 線을 긋는 것이 아니라, 佛教信徒는 必要에 따라 무당을 찾아 巫俗儀禮를 하기도 하고, 儒式儀禮에 依存하기도 하고, 때로는 寺刹을 찾아 佛供을 하기도 하는 信徒가 많기 때문이다. 꼭히 寺刹에만 熱誠을 다하는 信徒는 不過 2·30명일 것이라 한다.

이러한 事實은 佛教가 民間信仰과 같은 性格을 띠고 있어, 民間信仰의 一形態로써 村落社會에 機能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3〉 天地大安教

天地大安教는 한국의 新興宗教 12系統中의 하나로, 奉南教의 教祖 金 奉南 先生이 죽자, 女信徒였던 부 경순이 1952年 3月 15日「天地大安教」란 教名을 내걸고 부산 영도에 교단을 세워 이 宗教가 나타나게 되었다.

天地大安教를 세운 부 경순은 우리가 현지 조사 나간 演坪里에서 마주보이는 구좌면 종달리에서 1902年 6月 27日 태어났으며, 8年前 64歲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天地大安教를 세운 후에 이름을 改名하여 「해월선님」이라 불러 스스로 교주가 되고, 신도안 夫南里에 三合運數가 오고 三災運數가 온다 하여 교단을 충남 계룡산으로 옮겨 그 곳을 본산으로 정하고 계룡산 〈三神堂〉에서 「度數公事」라는 일종의 예배를 보았다.

지금은 해월선님의 상속자로 부산 영도에서 하루 生水 두 사발을 마시며 백일간 수양을 한 김 태순(구좌면 김녕출신)씨가 2代 교주가 되어 天地大安教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天地大安教는 전국 신도수가 3,000名으로, 제주도 내에는 전국의 70%에 해당하는 신도가 도내 약 17개소의 법당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가 조사한 演坪里에도 그 섬의 3.2%에 해당하는 20가호의 信徒를 갖고 있었다. 신도들의 대부분은 환자들이고, 매일 아침 5시~6시까지 1시간 동안 단에 청수를 놓고 수양하며 공사(예배)는 매월 음력 5일, 15일, 25일 한 달

에 3번과 간판선포날인 3월 15일, 해월선님이 돌아가신 날인 6월 4일, 그리고 나신 날인 6월 27일 등 일년에 3번 대공사를 치룬다.

공사를 치룰 때의 주문은 "바다햇자 해월선님 도술조화 지하지리 통일통열 물비소시 소원성취"로 28字이며, 教典은 세 運數의 열림을 알린다는 啓運典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앙에 대한 질서

一 천지 어머님을 염원할 일

二 나라에 충성할 일

三 부모님께 효성할 일

四 형제간에 화목할 일

五 예의를 마땅히 지킬 일

六 빈한한 자를 구제할 일

七 어질고 바름을 지킬 일

八 두 가지 마음을 먹지말 일

九 악은 불을 재촉하는 것이니 반드시 소멸시키고 어짐을 행하여 우리 근본을 찾을 일

十 미신을 영원히 타파할 일

○ 해월선 어머님의 경계 말씀

一 남의 인권을 뺏지 말 것

二 남의 후론하지 말 것

三 남에게 모략하지 말 것

四 시기 투기하지 말 것

五 자기 자청하지 말 것

六 내 몸에 사치하지 말 것

七 말소리, 자국소리 높이지 말 것

八 사람의 복은 미신에 있지 않고 말과 예도에 있으니 주의할 것 등

이다.

계급은 해월선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그 밑의 女信徒를 선녀, 남신도를 선관이라 부르며, 공사할 때의 예복은 노란 옷에 노란 모자를 쓰고 있다.

4〉 奉 南 教(타불교)

奉南教系는 물法信仰을 기초로 成立되었으며 이 물法信仰은 本教의 基本教義이며 信條다.

教祖 金 奉南은 1898年 4月 11日 구좌면 종달리에서 태어났으며, 38세 때(1936年) 機長 蓮華山에서 두 차례의 백일기도를 하여 다음 해 정월 15日 天上으로부터 물법을 받고, 知覺과 靈力을 얻어 1943年 機張의 竹島寺에 교단을 形成하였다. 이 宗教 역시 天地大安教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新興宗教 12系統中의 하나이다.

奉南教系의 一般的 特徵은 세 가지인바, 그것은 教理上의 中心問題가 되는 「물法」과 修道에 있어서 가장 중시되는 吐說, 그리고 教理 구성의 混成과 分化등이다. 「물法」은 찬물을 먹이고, 呪頌과 斷食을 하면서 病을 치료하는 一種의 찬물療法을 말한다. 吐說은 呪頌修鍊에 의하여 수도자의 자신도 모르게 튀어 나오는 神秘한 說話로서 이것을 神說 또는 法說이라 부른다.

呪文은

1. 「太上老君」
2. 「아미타불」
3. 「미륵존불」
4. 「元亨利貞은 天道之常이요 人義禮智는 人性之綱이다」등, 네 가지를 쓰며, 奉南教에서 分理되어 나간 各 教派들은 각각 自派의 呪文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본산은 부산 아미동에 있으며, 제주도내에는 10개 지역에 이 教會가 세워 있으며, 조사나간 演坪里에는 전 홀동(8戶) 삼양동(7戶) 주흥동(3戶)

하우목동(3戶) 상고수동(1戶) 하고수동(1戶) 후해동(1戶)등, 약 25가호의 信徒數를 갖고 있었다.

두달에 한 번 음력 15日에 불공을 하며, 자기불공은 일년에 한 번 정월달에 갖는다. 불공할 때에 올리는 예물은 백지, 초, 쌀등이다.

奉南教를 「타불교」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불공을 할 때 呪文인 「아미타불」을 연송하면 「타불~타불」이라고 들리는 데서 나왔으며, 「타불」이라는 말은 外部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한다.

演坪에 奉南教가 들어온지는 약 25년전이라고 한다.

以上, 公認 宗教의 實態를 보았거니와 綜合하여 보면 天主教를 除外한 佛教 및 新興宗教들은 民間信仰的 要素를 많이 지니고 있어, 民間信仰의 한 側面에서 島民의 生活에 機能하고 있고, 天主教는 民間信仰과 멀어져 獨自性이 있으나, 아직 島民의 生活에 이렇다할 영향을 줄 만큼 파 들어가 있지 못하다.

하고 보면, 半島民의 生活을 支配하는 信仰体系는 巫俗 및 儒教的 信仰을 主軸으로 한 民間信仰体系라 하게 된다. 이 民間信仰体系는 天主教나 佛教가 들어오기 以前, 島民의 入住 當時부터 島民의 精神生活을 支配했고, 公認 宗教가 들어온 以後에도 이들 宗教의 民間信仰的 要素를 吸收하면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諸般 生活에 絶對的인 機能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部 落 信 仰

部落民들이 部落民 全体의 福利를 위하여 行하는 部落祭는 濟州本島와 마찬가지로 儒教式 祭法에 따라 행하는 것과 巫式의 굿으로 하는 것 두가지가 있다. 儒式의 部落祭는 男性들에 의해 管理 執行되고, 巫式 部落祭는 主로 女性들에 의해 管理되는 점도 濟州本島와 같다.

1〉 儒式 部落祭

儒式 部落祭에는 酺祭와 帝釋祭가 있다. 酺祭는 現在 天津洞과 迎日洞

2個部落에만 남아 있어 行하고 있으며, 他部落엔 이미 없어졌다. 그리고 佛釋祭는 다 없어져 記憶만 남아 있다. 이 외로 祈雨祭도 儒式 祭法으로 지내었었다 한다.

[1] 酺　　祭

① 由來：元來, 牛島 全部落民이 合同으로 每年 正月 初丁 또는 亥日에 〈포제동산〉에서 지냈었다. 〈포제동산〉은 섬의 中央部인, 現 忠魂墓地 동산이었다. 그런데, 1870年頃 이 곳에 어떤 者가 墓를 써 버렸기 때문에, 大鄕民을 모아 이 墓를 移葬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미 祭場이 不淨해 졌으므로 이 곳에서의 行祭를 中斷하고 各洞으로 分散 擧行케 되었다. 그 後, 各 洞別로 每年 正月 初丁 或은 亥日에 擧行해 왔었는데 近來 次次 없어지고 지금은 天津洞과 迎日洞 두 部落에만 남아 있다.

牛島 全体가 合同으로 酺祭를 지내던 當時의 祭費는 飛揚洞 海岸의 〈또비양〉이란 곳의 海草 管理를 飛揚洞 住民들에게 맡기고, 거기의 收入으로 充當했었다.

現在 天津洞, 迎日洞 두 部落의 酺祭 內容은 같으니, 그 모습은 다음과 같다.

① 祭神：酺神之靈位, 場神之靈位 그리고 怨魂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② 祭壇：酺祭가 各洞으로 分散된 후, 特別한 祭壇의 設備를 마련하지 않았다. 日常 祭壇에서의 特別한 祭忌도 없어, 神의 常住處라는 觀念은 없고, 祭場으로서의 意義만이 있어 祭儀期間 內에만 神聖觀念이 있다.

③ 祭儀管理：洞長이 班長을 通하여 洞會를 召集하고, 거기에서 祭儀에 所要될 豫算의 規模, 祭官의 選出, 그리고 祭廳의 決定등을 한다. 祭廳이란 行祭 前에 祭官들이 合宿 齊戒할 집을 말하는데, 대개 部落內에서 집이 크고 고요하고 깨끗한 곳으로 정한다.

④ 祭官：選出되는 祭官은 初獻, 亞獻, 終獻, 執禮, 大祝, 贊者, 贊者, 奉香, 奉爐, 司樽, 奉爵, 奠爵, 典祀官이다.

行祭 1週日前에 동네 入口 길에 금줄을 메어 不淨人의 出入을 금하고

3日前에 祭官들은 祭廳에 모여 合宿하며 齊戒한다.

⑤ 祭日：陰 正月 初丁日, 이 날에 동네에 不淨한 일이 있어 못하면 亥日로 延期한다.

⑥祭物：上壇과 下壇에 若干 다름이 있다. 上壇이란 酺神之靈位의 祭壇을 말하고, 下壇이란 場神之靈位의 祭壇을 말한다.

上壇에는 白飯 1器, 犧牲(돼지) 1, 孰(돼지고기를 삶아 적한 것), 淸甘酒(날 것으로) 魚脯 1, 黃脯 1, 菁芹菜 1, 五果, 弊帛, 弊紙등을 올리고,

下壇에는 白飯 3器, 雜穀飯 3器, 孰(돼지 한 마리를 삶아 一部 적하고 나머지는 全部 올림), 海魚(군 것) 1, 黃脯 1, 五果, 甘酒등을 올린다.

上壇에는 메를 除外하면 거의 날 것을 主로 올리고, 下壇에는 익힌 것을 올린다는 다름이 있다.

⑦ 行祭：먼저 上壇에 위의 祭物을 陳設하고「酺神之靈位」의 紙榜을 써 붙여 上壇祭를 지낸다. 이 祭에는 上記한 12祭官이 各各 제 位置에 서서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行祭해가는데, 그 順序는 奠幣禮, 初獻禮, 讀祝, 亞獻禮, 終獻禮, 飮福, 焚幣 焚祝의 順이다. 그 笏記 및 祭法은 鄕校의 그것이나, 他里의 것과 같으므로 詳說을 略한다.

上壇祭가 끝나면 下壇에 紙榜을 써 붙임이 없이 위에 列擧한 祭物을 陳設하여 下壇祭를 지낸다. 이 祭는 典祀官 혼자서 獻官이 되어 單爵으로 告祝하는 간단한 것이다. 이 下壇祭를 끝낼 때에는 壇에 올린 各 祭物을 조금씩 떠 모은다. 이를「잡식한다」고 한다. 이 잡식한 것을 가지고 祭壇境外에 나아가 周圍에 뿌리면서 〈결명축〉을 朗誦한다. 〈결명〉이란 下位神, 雜神들을 대접하는 것을 말함인데, 여기의 〈결명〉은 祝文의 內容으로 보아 怨魂 雜鬼를 대접하여 멀리 쫓아 보내는 儀禮이다.

⑧ 飮福：祭가 모두 끝나면 犧牲한 돼지를 삶아 祭官들이 飮福하고 나머지는 동네 各戶에도 나누어 준다. 前에는 돼지 2마리를 잡았기 까닭에 各戶에 나눌 수 있었지만, 近來에는 1마리를 잡기 까닭에 量이 적어 全家戶에 나누지를 못한다.

⑨ 祝文：

上壇祝(酺神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酺神之靈 伏以於赫明神 鎭我疆域 居斯食斯 本業耕作 未生螽斯 克掃蟊賊 雨順風調 大登百穀 畜不呵噤 人不疾疫 兒無夭折 壯無禍厄 津有安涉 漁必多得 戶戶太平 家家康樂 謹具微誠 敢奠非薄 伏願明神 特垂陰德 永賜爾祉 報賽無斁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明薦于神尙 饗

內容을 解해 보면

「감히 酺神之靈께 告하옵니다. 엎드려 밝고 밝으신 神靈께 비오니 우리의 疆域을 鎭護하여 주시고, 먹고 살아가는데 本業이 耕作이오니 농사를 헤치는 메뚜기를 나지 못하게 하시고, 農作物의 뿌리를 짤라 먹는 나쁜 벌레를 싹 쓸어 버리시고, 비와 바람을 順調롭게 주시어 百穀을 大豊케 하소서. 마소를 꾸짖어 밭에 못들어 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病疫을 없이 하시어 어린 아이의 夭折을 없이 하시고, 어른들에겐 禍厄을 없이 하소서 나루를 편안히 건너게 하시고 漁業에는 반드시 收獲을 많이 얻게 하시어서 戶戶마다 太平하고 집집마다 편안하고 즐겁게 하소서. 삼가 작은 誠意나마 갖추어 감히 변변치 못한 음식이나마 올리오니, 엎드려 원하건데, 밝으신 神靈께서 特히 陰德을 베푸시고 길이 福祉를 내려 주소서. 은혜에 보답을 다할 수 없아옵니다. 삼가 犧牲과 幣帛, 甘酒, 쌀밥 黍稷등 여러 가지를 법식에 맞게 陳設하여 神靈께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소서.」

이 祝文의 內容으로 보아 酺神은 部落을 守護하고 農業, 漁業등 生業과 疾病, 人命등 部落의 諸般事를 守護해 주는 神임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部落守護神인 것이다.

下壇祝(場神祝)

維歲次 ……云云…… 敢昭告于 場神之靈 伏以 群牧縱橫 馬超牛양[3] 已去甲辰 民得許耕 東作西成 迺積迺倉 螟螣蟊賊 克除田庄 螽斯之羽 未得薨薨 瘟疫疾病 無人疆場 畜不呵噤 亦無落傷 家家康樂 戶戶太平 謹具非薄 敢

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

奠微誠 實賴神力 報賽無窮 謹以淸酌 庶羞祗薦于神尙 饗

祝文의 內容을 解해 보면

「감히 場神之靈께 告하옵니다. 엎드려 비옵건데, 牧童의 무리가 縱橫으로 달리고, 말이 牛양을 뛰어넘던 이 곳에 甲辰年(처음 開拓을 시작했다는 해)은 이미 가서 백성들이 入耕을 許可 받아 東西로 농사를 지어 거두어 倉庫마다 가득 쌓게 되었아옵니다. 농작물의 줄기를 파 먹는 벌레, 잎을 갉아 먹는 벌레, 뿌리를 잘라 먹는 벌레등 모든 病虫害를 모든 밭에서 싹 除去해 주시고, 메뚜기의 번식을 못하게 해 주시고 모든 流行性 疾病과 사람들이 밭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마소를 꾸짖어 밭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落傷함이 없게 하시어 집집마다 편안하고 戶戶마다 太平하게 하소서, 삼가 변변치 못한 음식을 갖추어 감히 적은 정성을 올리옵니다. 진실로 神力을 힘입는 바, 은혜에 보답을 다할 수 없아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공경하여 神靈께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소서.」

場神(역신)은 文字 그대로 밭의 경계(밭두둑)의 神이다. 牛島民들은 〈場神(장신)〉이라 부르고 있었으나, 이는 〈場〉字와 〈場〉字가 비슷하여 잘못 傳承된 것이라 보인다. 그것은 祝文의 內容으로 보아서도 짐작이 가는 것이다. 그 內容이 모든 病虫害를 없애고, 사람이나 마소가 밭 안에 出入을 못하도록 하여 豊年이 들게 해 주도록 비는 것을 보면 밭 境界의 神이 이러한 職能을 遂行해 주는 것으로 믿고 致祭하는 것이라 하겠다. 〈밭 境界神〉이 농사의 凶豊을 지켜 管掌한다는 俗信은 現在로서는 여기서 처음 發見하는 것이다.

걸 명 祝

致祭于境內 無祀鬼神 或難產而夭折 或酗酒而致死 或虫獸而嚙害 或墻壁而頹壓 或刀劍而被死 或妻妾而凶窮 或結項而致死 或路中伏死, 或水火溺死 或採卜採薹而死者 陰結未散 携朋挈儔 來我致祀 醉飽無量 速去千里 速去萬里 如律令

內容을 解釋해 보면

「歲祭하는 境內에 있는, 祭祀를 받아 먹지 못하는 귀신들아, 혹 難産으로 夭折한 자, 혹 술에 취해 죽은 자, 혹 벌레나 짐승에게 물려 죽은 자, 혹 담장이 무너져 눌려 죽은 자, 혹 칼에 맞아 죽은 자, 혹 妻妾으로서 그 용계에 죽은 자, 혹 목을 매어 죽은 자, 혹 길에 엎어져 죽은 자, 혹 물, 불에 빠져 죽은 자, 혹 전복을 캐고 미역을 캐다 죽은 자, 이런 원한이 엉키어 풀리지 않은 귀신들아, 벗을 이끌고 무리를 이끌어 우리 祭祀하는 데 와서 취토록 배 불도록 양껏 먹어, 어서 속히 千里를 물러가거라! 속히 萬里를 물러 가거라! 如律令!」

祝文의 內容이 逐鬼詞로 되어 있다.

모든 非命의 죽음을 한 이는 그 원한이 맺혀 雜鬼가 된다는 俗信에서 이러한 窮鬼들을 대접하여 멀리 쫓아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祭儀 內容을 보면 儒式 祭儀지마는, 그 基盤에는 土俗的 信仰이 그대로 깔려져 있고, 그 祭儀形式이 儒式化 했다는 데 不過한 것임을 알게 한다.

② 帝 釋 祭

① 祭日 : 部落에 조 파종이 完全히 끝난 후, 初丁日이나 亥日 子時에 행한다.

② 祭場 : 部落 近處에 一定한 行祭場所가 있다.

③ 祭費 : 部落各戶에서 보리쌀 1되(前에는 밀 1되)씩 모여 이것으로 祭物을 準備한다.

③ 祭官 : 洞長과 班長이 담당한다.

④ 行祭 : 祭日 前日 저녁에 祭官인 洞長과 班長이 기주떡, 海魚(군것), 호박채, 熟甘酒등 祭物과 白米와 솥을 지고 祭場엘 간다.

거기에서 솥을 걸어 메를 짓고, 祭時가 되면 돗자리를 깔아 메 1器를 떠 올리고 上記 祭物을 陳設하여 拜禮도 함이 없이 甘酒를 한 잔 부어 올려 숟가락을 메에 꽂고, 잠시 있다가 〈잡식〉을 한다. 〈잡식〉이란 각 祭物

을 조금씩 떠서 모으는 것인데, 이것을 옆 땅바닥에 붙는 것으로 끝낸다.

⑤ 豫兆 : 멧밥을 다 지어, 밥에 높낮이가 있으면 높은 方向쪽에 豊年이 들고, 낮은 方向 쪽엔 凶年이 든다고 하고, 밥에 구멍이 뻐끔뻐끔 나 있으면 큰 바람이 분다고 한다.

⑥ 性格 : 이 帝釋祭는 그 祭日이 조파종 後라는 점으로 보나 傳承으로 보아 조 농사의 豊年을 비는 部落祭임이 分明하다.

2. 巫式 部落祭

巫式 部落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심방(巫)을 만나지 못하여 具体的인 內容을 調査할 수 없었다. 그러나, 祭의 種類와 大体的인 內容은 알 수 있었으니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돈짓제 (영등제)

돈짓제는 돈짓당에서 지내는 祭인데 部落마다 약간씩 다름이 있다. 돈짓당은 各 部落마다 거의 따로 있어 漁夫, 海女의 海上 漁業을 守護해 주는 神을 모신 당이다.

東天津洞과 迎日洞의 돈짓제의 概略을 보기로 한다.

① 東天津洞의 돈짓제

一名 〈영등제〉 라고도 하여 每年 陰 2月 15日 심방(巫)에 의해서 행해진다.

祭物로는 메, 시루떡, 도래떡, 닭, 술, 채소류, 五果등이 必要하며, 이외로 나무나 짚으로 만든 자그만한 배가 준비된다.

祭日에는 漁夫 海女 등, 特히 배를 부리는 집안에서 아침에 上記 祭物을 準備하고 參席하면, 돈짓당에 祭物을 陳設하고 심방이 요령을 흔들며 部落과 各 家戶의 船舶의 安全, 豊漁를 祈願한다. 各種 巫樂器를 들여 굿으로 하는게 아니라 〈비념〉 의 形式으로 한다는 것이다.

祈願이 끝나면 차리고 온 祭物로 各者가 〈지〉 를 싸서 바다에 던진다.

「지를 싼다」 함은 白紙에 各 祭物을 조금씩 떠 놓아 쌈을 말함인데, 이것을 海上의 安全과 豊漁를 위하여 海神에게 던져 바치는 것이다. 이를 「지드린다」고 한다. 지를 드린 후, 심방은 짚이나 나무로 만든 자그마한 배에 各種 祭物을 조금씩 싣고 멀리 바다에 띄워 보낸다. 이것은 〈영등〉神을 致送하는 意味가 있다.

② 迎日洞의 돈짓제

迎日洞에서는 部落祭로서 지내는 것은 없어지고, 漁夫들이 個別的으로 지내고 있다. 겨울철에 出漁를 아니하고 놀다가 처음 出漁를 하는 날 漁夫가 메, 海魚, 술, 돼지 머리등 祭物을 準備하고 돈짓당에 가서 陳設한다. 祭는 拜禮도 함이 없이 술을 부어 올리고 메에 숟가락을 꽂아 두었다가 잡식한 다. 다음, 배에 가서 한판(배의 중앙부분)에 祭物을 陳設하여 同一한 方法으로 지내어 잡식한 것은 바다에 던지면 끝이 난다.

② 좀 수 굿

좀수굿은 1月 또는 2月에 擇日하여 各 洞別로 행한다. 祭場은 바닷가이며, 祭神은 용왕이라 한다. 이 굿은 매우 큰 굿이어서 2~3日間 계속된다 하며, 海女 採取物의 豊登과 作業의 安全을 祈願하는 굿이라 한다.

이 굿에서는 〈씨드리기〉 〈씨점〉 등이 있어 異彩롭다. 〈씨드리기〉란 海女들이 좁씨를 바다에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소라, 전복, 미역등 海女採取物의 씨를 뿌려 增殖시키는 意味가 있다. 좁씨가 전복 미역등으로 나서 번식한다는 것이다. 〈씨점〉이란 심방이 돗자리 위에 좁씨를 뿌려, 그 씨의 흩어진 密度를 보고, 성긴 쪽의 方位엔 전복 미역등이 凶年, 빽빽한 쪽의 方位엔 豊年이 든다는 占法이다.

③ 말 축 굿

〈말축〉이란 메뚜기의 方言이다. 〈말축굿〉은 메뚜기의 번식으로 農作物에 주는 虫害를 막기 위한 굿이다.

이 굿은 約 30年 前까지 했었으나, 그 후 한 일이 없다. 지금 確認될

수 있는 것은 當時 下牛目洞과 天津洞에서 했던 事實과 그 굿의 大体的인 모습 뿐이다.

下牛目洞의 80歲 老女에게서 들은, 그 동네의 〈말축굿〉의 모습은 대략 다음과 같다.

〈말축굿〉은 메뚜기가 성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심할 때, 下牛目洞의 바닷가(우묵개)에 있는 〈돈짓당〉에서 하였다.

〈우묵개〉는 牛目洞의 浦口名임과 同時에 牛目洞의 固有名이다. 예전에는 이 〈우묵개〉로 牛島의 모든 牛馬를 실어내고 실어들이고 하였다. 따라서 牛島의 代表的인 浦口다. 〈돈짓당〉은 船舶, 漁業을 守護한 神의 당이어서 〈우묵개〉의 〈돈짓당〉은 牛島의 代表的인 〈돈짓당〉이었다. 따라서 다른 동네에서 여기 돈짓당의 굿에는 모두 參禮하였었는데, 오늘날은 〈돈짓당〉을 각 동네마다 갈라가 分散되게 된 것이다.

〈돈짓당〉의 神은 〈돈지할망〉 〈돈지하르방〉이다.[4] 〈말축굿〉은 이 堂神에게 祈願하고, 메뚜기를 몰아다가 배에 실어 내보내 버리는 모티프의 굿이다.

〈돈짓당〉의 祭日은 正月 14日과 7月 14日인데 이 때의 굿도 〈말축굿〉과 비슷하다.

굿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린다. 굿 날 아침이 되면 上·下牛目洞民뿐 아니라 다른 동네의 사람들도 各各 祭物을 지고 〈돈짓당〉으로 모여든다.

祭物은 메 2器, 쌀 1되, 海魚, 술, 實果, 白紙등인데, 漁船을 부리는 집에선 이외에 닭(숫놈) 한마리를 더 가져오기도 한다.

사람들이 모여들면 당 앞에 제물들을 열을 지어 버려놓고 심방이 굿을 시작한다. 굿은 다른 당굿과 별로 다름없이 진행되어 간다.[5]

오후가 되어가면 이 굿의 特徵的 모티프인 메뚜기 몰아내기로 들어간다. 수심방이 祭場에서 「어떤 마소 어떤 마소를 아무 테우리(牧童)가 몰러 갑니다」는 內容의 辭說을 唱하면, 巫樂器를 치던 小巫들이 牧童처럼 〈멜망탱이(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작은 멱서리)〉를 메고 막대기를 들어

「아무 마소 몰려나간다」고 외치며 나선다. 그들은 祭場인 〈돈짓당〉에서 양쪽으로 갈려져 나간다. 한 쪽은 오른 쪽으로 出發, 上牛目洞과 天津洞의 사잇길로 돌아 섬의 中央部分으로 나아가고, 한 쪽은 왼쪽으로 향하여 出發, 下牛目洞의 邊境을 돌아 섬의 中央部分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손으로 닭을 끌며 「어어렁 떠어렁 어허허허」 마소 모는 소리를 해가며, 「아무 마소가 내려간다」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걸어간다. 닭은 수탉이요, 노끈으로 산채로 코를 꿰어 그 노끈을 무명에 묶어매고 그 무명을 잡아 끄는 것이다.

양쪽으로 동네를 돌아온 一行들은 섬의 中央部分에서 만나고, 동네 안길로 해서 祭場이 있는 〈우뭇개〉로 내려온다. 끌고 내려온 닭은 털이 거의 빠지고 거의 죽어 있다. 이 닭을 다리, 날개, 머리를 각각 산산조각이 나게 찢어서 바다에 던지고, 나머지는 배에 싣는다.

배는 이미 좃짚이나 바가지로 자그마하게 만들어져 있다. 수심방은 「요건 쌀입니다. 요건 간장이고, 요건 소금입니다. 아무 테우리(牧童) 아무 테우리, 어서 배에 올라서 마소를 싣고 가십시오」와 같은 內容의 辭說을 노래하며 갖가지 제물을 조금씩 싣는다. 여기에 닭도 싣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배를 바다 멀리 띄워 보내는 것으로 굿은 끝난다.

이와 같은 굿의 內容으로 보아, 이 굿의 特徵的인 모티프는 두 가지로 說明될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살아 있는 닭을 끌어 部落을 돌고 그것을 산산조각이 나게 찢어 바다에 던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닭으로 하여금 部落內의 매뚜기를 全部 잡아먹게 하고 그 닭마저 찢어 없애버림으로써 매뚜기를 말끔히 없애는 類感呪術인 것 같다.

또 하나는 小巫들이 牧童처럼 차리고 마소 모는 소리를 하며 부락을 돌아 浦口에 와서 목동과 마소를 배에 싣고 바다멀리 띄워 보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메뚜기를 마소로 치고, 그것을 마소 몰듯 몰아다가 배에 실어 보내 버림으로써 매뚜기를 말끔히 없애는 類感呪術인 듯 한다. 牛島는 本來 사람이 移住하기 前부터 放牧場이어서 牛馬를 몰아내고 실어내고 했던

곳이었으니, 메뚜기를 牛馬로 代置하여 생각하고 牛馬를 몰아 실어내던 体驗을 메뚜기의 追放에 適用시키는 것은 가장 손쉬운 觀念의 連結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본 部落祭를 종합하여 보면 〈돈지제〉 〈잠수굿〉 등은 漁業에 관련된 祭儀이며, 〈말축굿〉은 農業에 관련된 祭儀이다. 그리고 儒式 部落祭인 酺祭나 帝釋祭는 農業 關係의 祭儀이다. 그런데 農業關係의 酺祭는 아직도 殘存하여 있는데, 〈말축굿〉은 없어졌으며, 漁業關係의 巫俗 部落祭인 〈돈지제〉 〈잠수굿〉은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것은 農業儀禮는 儒式에, 漁業儀禮는 巫俗과 密着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④ 당과 당굿

牛島의 당을 本鄕堂과 돈짓당 두 가지가 있는 셈이다. 本鄕堂은 部落守護神이고, 돈짓당은 船舶, 漁業의 守護神이다.

本鄕堂은 西天津洞에 있는데, 바다를 향한 약간 높은 언덕이다. 바위가 많고 바위틈에 자그만씩한 여러 가지 나무가 서있다. 이 나무 가지에 백지 지전 물색 布片들이 걸려져 있다. 祭日날 祈願하러 온 부락민들이 걸어 놓은 것이다.

이 당의 祭日은 正月 14日 新過歲祭, 2月 15日 영등송별제, 7月14日 백중제, 세 번이다. 新過歲祭는 部落新年祭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등송별제는 영등神에 대한 굿으로서 현재 〈돈지제〉라 하여 돈짓당에서 하고 있고(天津洞의 경우), 백중제는 牛馬의 安泰增殖을 비는 굿이다.

돈짓당은 本來 東天津洞, 下牛目洞 두 개의 浦口에 있었는데 지금은 각 浦口마다 갈려져 나가 周興洞, 迎日洞등에도 있다.

下牛目洞, 周興洞, 天津洞의 돈짓당은 굿을 할 수 있는 넓이만큼 돌로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넓직 넓직하게 깎은 돌로 자그마하게 집모양을 만들어 놓았다. 그 안에는 백지, 지전, 물색 布片, 실등이 걸려 있었다. 天津洞의 돈짓당에는 이 돌집 안에 日本의 〈카미다나(神棚)〉 식으로 나무

판자를 가지고 만든 것을 놓아 있었는데, 그 속에는 赤, 綠, 黃 三色의 布片을 백지 한 장으로 싸 접은 것을 7개 걸어 놓고 있었다. 이것이 神体인지 여부는 未詳이다.

祭物로서의 特性은 本鄕堂에는 돼지 고기를 아니 올릴 뿐 아니라, 먹어서 가도 안되며, 돈짓당에는 돼지 고기를 제물로 올린다는 데 있다.

그리고, 天津洞의 돈짓당은 매우 세어서, 바람이 아무리 센 때도 여기의 배는 까딱하지 않은다 하며, 바다에서 시체가 많이 밀려 와도 이 浦口쪽으로는 시체가 들어오도 나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浦口로는 시체를 밖에 실어내지도 아니한다. 또 여기에는 꼭 고사를 지내고 배를 놓아 가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 어떤 新婚 夫婦가 고사를 아니하고 그대로 배를 놓아 나가다가 아주 반반한 날씨인데도 배가 밀려들어와 못 나간 일이 있었다.

3, 家庭信仰 및 祖上崇拜 其他

1〉 家宅神과 儀禮

牛島의 民家는 濟州本島의 그것과 大同하다. 따라서 울타리 안의 諸神도 濟州本島와 별다름이 없다. 이 神들 중 儀禮의 對象으로 重視되는 것은 〈문전〉 〈조왕〉 〈안칠성〉 〈밧칠성〉이고, 그 儀禮의 機會는 심방 또는 스님을 빌어서 單獨祭로서 行하는 경우와 祖上崇拜의 名節, 祭祀 때 兼事로 행하는 경우가 있다.

前者의 경우로 主要한 것에 〈조왕제〉 〈철갈이〉가 있다.

[1] 조 왕 제

正月初에 吉日을 擇하여 한다. 심방(巫)을 빌어서 巫式으로 하기도 하고, 스님을 빌어다 佛教式으로 하기도 한다. 또는 동네의 有識한 이를 빌어서 祝文을 告하여 儒式儀禮로 하는 집도 있다.

조왕제는 竈神인 〈조왕〉을 주로 위하는 것이지만, 이 때에 門神인 〈문

전〉이나 〈안칠성〉 〈밧칠성〉에게도 儀禮를 하여 위한다. 조왕제는 竈神을 主神으로 하여 家內의 諸神에게 新年의 家內·安泰를 비는 新年祭인 것이다.

[2] 철 갈 이

〈철갈이〉는 一名 〈문전 철갈이〉 또는 〈밸롱갱이〉라 하고 〈문전 비들래기〉라고도 한다고 했다.

철갈이는 正月 15日에 심방을 빌어서 한다. 〈문전〉神을 主神으로 삼아, 新年의 家內 安泰를 빌고, 이어서 〈조왕〉 〈안칠성〉 〈밧칠성〉 등 家內 諸神에게 祈願한다.

이 날 집 뒤에 〈밧칠성〉을 모셔 놓은 〈칠성눌〉을 갈아 덮기도 한다. 〈칠성눌〉은 집 뒤 空地에 〈주쟁이 (낟가리 위에 비가 세어 흐르지 않도록 띠로 엮어 덮는 것)〉를 덮어 놓은 것인데, 이 안에는 빈 단지(작은 항아리)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조, 콩, 팥, 수수등 雜穀과 소라껍질이 들어 있다 한다. 철갈이 때는 밧칠성에게 儀禮를 하고 이 항아리 속의 雜穀과 소라 껍질을 갈아 넣고 〈주쟁이〉를 새 것으로 갈아 덮는 것이다.

牛島에는 儒式 新年祭인 土神祭는 없다.

2〉崇 祖 祭

4代 奉祀를 하는 점이 같고, 名節로는 元旦과 秋夕을 지낸다.

名節 때나 祭祀 때나 〈문상〉 〈몸상〉 〈안상〉 셋을 차린다. 〈문상〉은 門神인 〈문전〉에 대한 祭床이고, 〈몸상〉은 先祖에 대한 祭床이며, 〈안상〉은 〈고팡(穀物을 넣는 방)〉의 〈안칠성〉神에 대한 祭床이다. 〈문상〉이나 〈안상〉은 작은 상에 차린다.

祭는 먼저 門前祭부터 지낸다. 문상을 삼방(마루방)의 바깥 문 쪽에 갖다 놓고 單敵 單爵으로 지낸 다음, 그 상을 부엌으로 넘기면 거기의 祭物을 조금씩 〈잡식〉하여 그것을 부엌의 〈조왕〉神에게 던진다. 〈조왕〉에 대한 고사인 것이다. 그런 후, 三敵이 서서 先祖에 대한 祭祀(몸제)를 지내고, 그 후 〈안상〉을 고팡에 가져다 놓아 主婦가 祭를 지낸다. 祭를 지

낸다 해도 단지 술을 한 잔 부어 올리고 숟가락을 메에 꽂아 두었다가 거두어 버리는 것 뿐이다.

3〉 쇠 맹 질

各 家戶 單位로 하는 儀禮에 〈쇠맹질〉 또는 〈쇠제사〉 라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소의 安泰와 增殖을 비는 儀禮인데, 7月 14日 百中날 밤 子正에 한다. 祭場은 부락 近處 自己 소가 잘 노는 곳이다. 過去에는 목동을 시켜 했는데, 지금은 목동이 없으므로 主人 男子가 하고 있다. 제물은 메 1器, 떡(돌래떡), 海魚, 술등. 이 제물을 가지고 祭場에 가서 陳設하고 술을 부어 올려 숟가락을 메에 꽂아 두었다가 〈잡식〉 해서 땅에 붓는다. 그래서 음식을 거기서 먹는데, 그 음식은 남겨 집에 가져오지 않은다고 한다.

4〉 死　　婚

處女, 총각으로 죽은 영혼을 서로 결혼시킨 후 養子를 데려 家系를 잇는 民俗이다. 결혼식은 儒式 祭法으로 新郎 영혼과 新婦 영혼에게 제를 지내어 祝文으로써 그 事實을 알려 결혼시키고 兩家의 집안에서 잔치를 벌여 사돈을 맺는 것이다. 이 때에 新郎과 新婦의 墓를 한 곳에 移葬시키는 수도 있다.

이 民俗은 총각으로서는 養子를 데릴 수 없기 때문에 養子를 얻어 家系를 잇기 위해 死婚시키는 점도 있지만, 보다도 처녀, 총각으로 죽은 영혼의 원한을 풀어 주고, 그 寃魂에 의한 後患을 막는다는 信仰이 밑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民俗 信仰은 다른 데도 흔한 것이지만 이 死婚祭의 祝文이 入手되었기 여기 紹介하여 둔다.

「維歲次……父告于

亡女某之靈 汝年及笄 未及歸嫁 忽作仙行 香火無主 餘甚悲痛 今以私意將欲死後 結婚許約 于某洞 某氏 某男 亡某名 欲爲配耦 靈其鑑照 式遵斯

儀 玆以酒酌 庶羞預告 厥由尙 饗」

「維歲次……父告于

亡子某之靈 汝年旣成長 未有伉儷 遽因不幸 已作仙行 不得繼後 香花無主 余甚悲傷 今以私情 將欲死後 結婚言約 于某洞 某官 某氏之亡女 某 欲爲配耦 靈其鑑知 式遵斯儀 玆以酒酌 庶羞豫告 厥由尙 饗」

註

1) 牛島의 牛馬 放牧의 始初는 金 錫翼『耽羅紀年』에 의하면 肅宗 24年(1698年)부터라 한다.

牛島의 開拓에 대해서는, 高 泰柱『鄕土誌』에 따르면 1814年(甲辰)에 金進士 錫麟이 隱居次 入住한 것이 始初라 하고, 泉 靖一 著『濟州島』(P. 198)에는 牛島의 緣起를 記錄한『演坪陳述書件』을 引用하여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濟州의 金 傷弼이라는 人物이 이 섬에 窮民을 移住시키려고 純祖 戊子(1828年)부터 運動을 이르키고, 憲宗 辛丑(1841年)에 島官据는 우도의 말(馬)을 搬出하고 翌年 一般人의 移住를 許한 바, 漁業에 適合한 곳이었으므로 窮民이 雲集하여 그 해에 天津, 古水, 後海, 三洞이 이루어지고, 翌年에는 牛目, 珠玉(現 三陽洞), 錢屹, 飛揚, 諸洞이 새로 이루어졌다.」

2) 高 泰柱『鄕土誌』

3) 音이「양」字라 하는데 무슨 字인지 未詳.

4) 〈돈지〉는 둔치의 方言인듯 하고, 〈할망〉은 할머니, 〈하르방〉은 할아버지의 方言이다.

5) 굿이 다른 당굿과 별로 다름 없이 해간다는 것으로 보아 징, 북, 설쇠, 장고등 巫樂器들을 소미(小巫)들이 울리고 수심방이 〈초감제〉부터 해나가는 듯하다. 즉 굿을 하는 날자, 장소, 사유를 노래하고 神을 下降토록 하여 參禮한 各 家戶를 하나 하나 告해 올리면서 祈求事項을 祝願해가는 順序로 進行해 가는 것이다.